

저자 정조
국역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壽民妙詮
下

【外形篇】



9 788959 705665

ISBN 978-89-5970-566-5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수민묘전 권2【외형편】壽民妙詮 卷之二【外形篇】	1.2
머리 頭	1.2.1
얼굴 面	1.2.2
눈 眼	1.2.3
귀 耳	1.2.4
코 鼻	1.2.5
입과 혀 口舌	1.2.6
치아 齒牙	1.2.7
인후 咽喉	1.2.8
경항 頸項	1.2.9
등 背	1.2.10
가슴 胸	1.2.11
젖가슴 乳	1.2.12

배 腹	1.2.13
배꼽 臍	1.2.14
허리 腰	1.2.15
옆구리 脅	1.2.16
피부 皮	1.2.17
살 肉	1.2.18
맥 脈	1.2.19
손 手	1.2.20
다리 足	1.2.21
모발 髮	1.2.22
전음 前陰	1.2.23
후음 後陰	1.2.24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향	2.3

序¹

서문

醫者所以濟群生也. 故曰事親者不可以不知醫, 層顧可賤哉. 我東風俗恥從事於方術. 此固崇儒之所致, 而醫亦儒術中一端. 雖以宋朝治法之專尚儒術, 太宗有親撰《太平聖惠方》, 仁宗有親撰《皇祐濟衆方》, 以及孫思邈、沈括、蘇軾, 亦皆各有成書. 曷嘗如東人之賤而恥之哉. 予自少耽看醫書, 自丙戌至丙申十載, 無解帶時其於脈訣、藥性, 自有所房通者. 然人稟之, 今古有異, 東西之風氣不井. 古今醫書中, 苟求其切於我東之用, 莫如陽平君許浚《東醫寶鑑》一書. 但其論理論方相與錯雜, 體例頗欠整齊. 予稍更其例, 撮其精華, 又以湯液各方別爲續編以附之, 名曰《壽民妙詮》.

의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의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풍속은 의술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본래 유학을 숭상한 결과이나, 의술도 유학의 한 부분이다. 비록 송나라 조정에서 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유학을 숭상하였지만, 태종은 직접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을 저술하고, 인종은 《황유제중방(皇祐濟衆方)》을 보았으며, 손사막·심괄·소식 또한 각기 성서를 남겼다. 어찌 일찌기 우리나라가 의술을 천하게 여기고 부끄러워 하겠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의서를 탐독하여 왔으며, 병술년부터 병신년까지 10년

동안 맥결과 약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스스로 이를 통달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품부받은 것이 고금으로 다름이 있고, 동과 서의 풍습도 고르지 않다. 고금의 의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평(陽平)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이론과 방제가 서로 뒤섞여 있고 체계가 다소 가지런하지 않다. 나는 동의보감의 이론을 조금 수정하고, 그 정수를 추렸으며 또, 탕액편의 각 처방을 별도로 속편으로 엮어 부록으로 삼고 이름을 《수민묘전》이라 하였다.

○親撰序曰 ○정조 친찬서

予故不解醫然, 醫人醫國, 其理固一也. 今夫岐扁以下, 古名醫所命丸劑湯飲之, 愈人疾, 起人死者, 在國則三代、漢、唐、宋、明之良法美制也. 其所論病, 崇之六氣、五勞七傷、證之虛實、寒熱、脈之浮沈遲數、種種差別之存乎人者、在國則當時之弊源物情也. 爲國者, 必先究其弊源之所在, 察其物情之所宜, 然後按古法之當乎今者而行之, 則危可安, 亂可治也. 苟或昧然於弊源物情, 而惟謂是良法美制也, 雜試而竝用, 則不惟無益, 其不病國也者幾希矣. 然則醫者之所先務, 居可知已. 願今之醫者率不致力於脈證, 而徒誦其湯丸之名, 臨病則不能確見, 其崇之在何臟何經, 摸索影響而遽試其所疑, 雖欲有瘳得乎. 無論神聖工巧, 卽周禮所稱下醫亦十無一二者. 良以是也. 是固學醫者之過, 抑爲方而教之醫者, 輒皆混脈證湯丸於一編之中, 故有以岐其志, 貳其工而啓其趨徑求速之弊耳, 予病之久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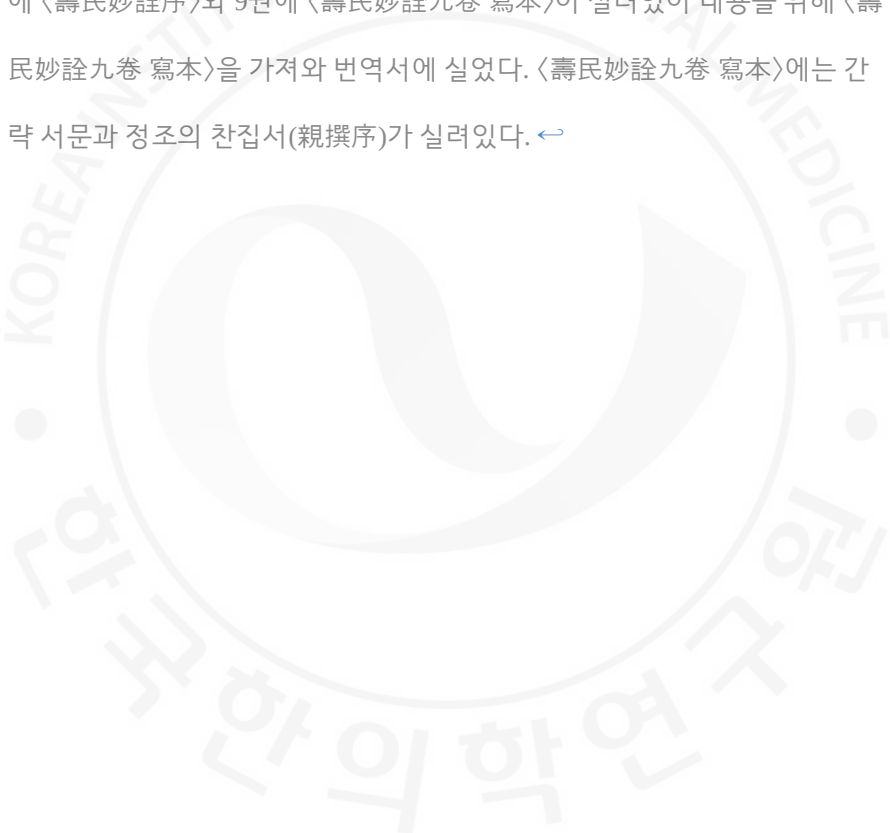
나는 본래 의학을 알지 못했지만, 의학은 사람을 치료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치가 진실로 하나이다. 지금 기백과 편작 이후로 옛날 명의들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죽으려는 사람을 되살린 환제(丸劑)와 탕음(湯飲)들은 국가에 비유하자면 삼대(三代)와 한·당·송·명시절의 좋은 법이나 아름다운 제도 같은 것들이다. 그들이 병의 원인으로 말한 육기·오로칠상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증상의 허실·한열·맥의 부침지삭 같은 것은 국가에 비유하자면 폐단의 원인이나 물정 같은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먼저 폐단의 원인이나 물정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으로 적당한 옛 법을 찾아서 시행하면 위험은 안전해지고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다. 혹시 폐단의 원인이나 물정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이것이 좋은 법, 아름다운 제도라고 하여 이것저것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병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의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 수 있다. 바라건데 오늘날의 의사들이 진맥과 증상에는 힘쓰지 않고, 단지 탕제와 환제의 이름만 외우며, 병의 원인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림자만 찾아 헤매며 의심스러운 것을 급히 시험하려 하지 않기를 바라니, 비록 병을 고치고자 하더라도 나올 수 있겠는가. 신의(神醫)나 의성(醫聖)을 막론하고 의술이 대단하다 해도 《주례》에서 "수준 낮은 의사조차도 열명 중 하나 둘도 없다."고 한 것은 이 까닭일 것이다. 이는 진실로 의학을 배우는 자들의 과오이겠지만, 오히려 방제를 가르치는 의사들이 맥진, 병증, 탕약과 약제를 모두 한 책에서 섞어서 다루니,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지가 않고 기술이 둘로 나뉘며 급한 해결만 추구하는 폐단이 생길 뿐이니 내가 오래전부터 병폐로 여겨왔다.

自夫丙戌以後, 先大王玉候彌, 予夙宵侍側, 帶不解者, 蓋十一年而無日不從事於醫藥. 于時就東醫寶鑑, 自身形精氣以至婦人小兒, 依其門類鈔錄其證論脈訣. 凡爲四卷取, 伊川詩用時還解壽斯民之語, 名之曰壽民妙詮. 既又念湯液諸方, 亦不可以終闕, 故隨即鈔錄爲別編五卷書. 既成而不復省, 近始追檢亂藁, 則所謂別編者已失, 而妙詮則在焉. 若又漫棄其工爲可惜, 乃令楷寫一通, 而叙其所以作之意如此. 雖出於古方, 無新奇可喜之說, 其於一醫者之心目而急乎其先務, 庶幾有少補焉耳. 雖然吾所謂壽民, 豈亶謂是哉. 今財竭民窮, 凋瘵滿目而莫有以醫之, 嗚呼安得起伊川而問之也.

선대왕의 옥후(玉候)가 불편하시기 시작한 병술년(1766, 영조42) 이후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끊임없이 11년 동안 날마다 의약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때 《동의보감》을 참고하여 신(身)·형(形)·정(精)·기(氣)부터 부인과·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그 분류에 따라 그 증론과 맥결을 발췌하여 기록하고 모두 네 권으로 만들어 이천(伊川)의 시에서 '때에 맞게 사용하여 백성의 수명을 연장한다.(用時還解壽斯民)'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 이름하였다. 또 탕액편의 여러 처방을 생각하니 또한 끝내 빠트릴 수 없다고 여겨, 곧바로 <별편>으로 삼아 다섯 권의 책을 편찬하였다. 책이 완성된 후에는 다시 검토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난잡한 초고들을 찾아보니 <별편> 5권은 이미 유실되었고 <수민묘전>만 남아 있었다. 만약 또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공들여 작업한 것이 아까울 것이므로 다시 잘 베껴쓰도록 하고 그 책을 쓴 동기를 이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다. 비록 고방(古方)에서 나온 것이라서 새롭거나 신기한 점은 없으나, 의술을 하는 한 의학자의 마음과 눈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수민(壽民)이 어찌 그 의미만 있겠는가. 지금 재정은
고갈되고 백성은 궁핍하며, 병든 자들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아, 어떻게 하면 이천에게 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1. 序 : 규장각본에는 서문이 없으나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8권
에 〈壽民妙詮序〉와 9권에 〈壽民妙詮九卷 寫本〉이 실려있어 내용을 위해 〈壽
民妙詮九卷 寫本〉을 가져와 번역서에 실었다. 〈壽民妙詮九卷 寫本〉에는 간
략 서문과 정조의 찬집서(親撰序)가 실려있다.



壽民妙詮 卷之二【外形篇】

수민묘전 권2【외형편】



† 頭 머리

頭爲天谷以藏神 머리는 천곡이며 신을 간직한다

谷者, 天谷也. 神者, 一身之元神也. 天之谷, 含造化, 容虛空, 地之谷, 容萬物, 載山川. 人與天地同所稟, 亦有谷焉. 其谷藏眞一宅元神. 是以頭有九宮, 上應九天, 中間一宮, 謂之泥丸, 又曰黃庭, 又名崑崙, 又謂天谷. 其名頗多, 乃元神所住之宮. 其空如谷神居之, 故謂之谷神, 神存則生, 神去則死, 日則接於物, 夜則接於夢, 神不能安其居也. 黃帝內經曰, 天谷元神, 守之自眞, 言人身¹, 上有天谷泥丸, 藏神之府也, 中有應谷絳宮, 藏氣之府也, 下有虛谷關元, 藏精之府也, 天谷, 元宮也, 乃元神之室, 靈性之所存, 是神之要也.

곡(谷)은 천곡(天谷)이다. 신(神)은 몸의 원신(元神)이다. 하늘의 계곡은 조화를 머금고 허공을 담으며, 땅의 계곡은 만물을 담고 산천을 싣는다. 사람은 천지와 부여받은 것이 같아서 또한 계곡을 지니고 있다. 그 계곡에는 진일(眞一)이 간직되고 원신이 머무른다. 그러므로 머리에는 구궁(九宮)이 있어 위로 구천(九天)과 상응하니 그 중심에 있는 일궁(一宮)을 이환궁(泥丸宮)이라고 하고 또 황정(黃庭), 곤륜(崑崙), 천곡이라고도 한다. 그 부르는 이름은 많지만, 모두 원신이 머무는 집을 가리킨다. 계곡과 같은 공간에 신이 거처하기 때문에 곡신(谷神)이라 하니 신이 머무르면 살고 신이 떠나면 죽는다. 낮에는 외물(外物)과 만나고 밤에는 꿈과 만나기 때문에 신은 편안히 있을 틈이 없다. 《황제

내경》에, "천곡의 원신을 지키니 저절로 진인(眞人)이 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는 천곡인 이환궁이 있는데, 이는 신을 간직하는 집이다. 가운데에는 응곡(應谷)인 강궁(絳宮)이 있는데, 이는 기를 간직하는 집이다. 아래에는 허곡(虛谷)인 관원이 있는데, 이는 정을 간직하는 집이다. 천곡은 원궁(元宮)으로 원신의 집이고 영성(靈性)이 보존되는 곳이니 이곳이 신(神)의 요체이다"라고 하였다.

頭有九宮 머리의 구궁

頭有九宮, 腦有九辨², 一曰雙丹宮, 二曰明堂宮, 三曰泥丸宮, 四曰流珠宮, 五曰大帝宮, 六曰天庭宮, 七曰極眞宮, 八曰玄丹宮, 九曰太皇宮, 各有神以主之, 謂之元首九宮眞人也.

머리에는 구궁(九宮)이 있고, 뇌에는 구판(九辨)이 있다. 첫째는 쌍단궁(雙丹宮)이고, 둘째는 명당궁(明堂宮)이며, 셋째는 이환궁(泥丸宮)이고, 넷째는 유주궁(流珠宮)이며, 다섯째는 대제궁(大帝宮)이고, 여섯째는 천정궁(天庭宮)이며, 일곱째는 극진궁(極眞宮)이고, 여덟째는 현단궁(玄丹宮)이며, 아홉째는 태황궁(太皇宮)이다. 여기에는 각각 주관하는 신(神)이 있는데, 이를 원수구궁진인(元首九宮眞人)이라고 한다.

腦爲髓海 뇌는 수해이다

腦爲髓之海,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不足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뇌는 수해(髓海)이다. 수해가 풍부하면 몸이 가볍고 굳세고 힘이 넘친다. 수해가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 돌고 귀가 울며,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눈앞이 어찔하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頭病外候 머리병의 증상

頭者, 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머리는 정명(精明)이 있는 곳이다. 머리가 기울어지고 눈이 들어가면 정신이 나가게 된다.

脈法 맥법

病若頭痛目痛, 脈急短濇者死.

병으로 머리와 눈이 아플 경우 맥이 급(急)、단(短)、색(濇)하면 죽는다.

頭風證 두풍증

頭風之證, 素有痰飲, 或櫛沐取涼, 或久臥當風, 以致賊風入腦入項, 自頸以上, 耳目口鼻, 眉稜之間, 有麻痺不仁之處, 或頭重, 或頭暈, 或頭皮頑厚, 不自覺知, 或口舌不仁, 不知食味, 或耳聾, 或目痛, 或眉稜上下掣痛, 或鼻中聞香極香, 聞臭極臭, 或只呵欠而作眩冒之狀.

두풍의 증상은 평소 담음이 있던 사람이 머리를 빗질하거나 감은 후 찬바람을 맞았거나 오래 누워있다가 바람을 쐬어서 적풍(賊風)이 뇌와 목덜미로 들어가서 목 위로 이목구비와 미륵골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곳이 생긴 것이다. 또 는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 두피(頭皮)가 뻣뻣해지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 입과 혀의 감각이 없어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 귀가 안들리거나 눈이 아픈 증상, 미륵골 부위가 상하로 당기면서 아픈 증상, 코에서 향내를 맡으면 너무 향기롭게 느껴지고 악취를 맡으면 지나치게 심하게 느껴지는 증상, 단지 하품만 하여도 현훈이 생긴 증상을 말한다.

眩暈 어지러움

內經曰, 諸風掉眩, 皆屬於肝, 河間曰, 掉, 搖也, 眩, 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所謂風氣動而頭目眩運者, 由風木旺, 必是金衰不能制木, 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而³爲兼化, 陽主乎動, 兩動相搏, 則頭目爲之眩暈而旋轉矣, 火本動也.

《내경》에, "모든 풍으로 몸을 떨고 어지러운 것은 다 간(肝)에 속한다"고 하였다. 하간이 말하기를, "도(掉)란 흔들리는 것이다. 현(眩)이란 어지럽게 빙빙 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풍이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풍기가 움직여서 머리와 눈에 현훈이 생기는 것은 풍목(風木)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금(金)이 쇠퇴하여 목(木)을 조절하지 못하여 목이 다시 화를 낳기 때문이다. 풍·화는 모두 양에 속하므로 대부분 함께 변화한다. 양은 움직임을 주관하니 풍·화가 움직여 서로 부딪치면 머리와 눈이 현훈으로 빙빙 돌게 되는 것이다. 화는 원래 움직이는 것이다.

風暈 풍훈

傷風眩暈, 惡風自汗, 或素有頭風而發作.

풍훈은 상풍(傷風)으로 현훈이 있고 바람을 싫어하며 자한이 나거나, 본래 두
풍이 있어서 현훈이 생긴 것이다.

熱暈 열훈

火熱上攻, 煩渴引飲.

화열이 치고 올라와 번갈이 나서 물을 찾는 것이다.

痰暈 담훈

痰盛嘔吐, 頭重不舉.

담이 성하고 구토를 하며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는 것이다.

氣暈 기훈

七情過傷, 氣鬱生涎, 痰涎迷塞心竅而眩暈, 眉稜骨痛, 眼不可開.

칠정이 지나치게 상하여 기울로 담연(痰涎)이 생기고, 담연이 심의 구멍을 막
아서 현훈이 있으며, 미륵골이 아프고 눈을 뜰 수 없는 것이다.

虛暈 허훈

內傷氣虛而暈, 宜補中益氣湯.

내상으로 기가 허해져 현훈이 생긴 것으로 보중익기탕을 써야 한다.

濕暈 습훈

冒雨傷濕, 鼻塞聲重而暈.

비를 맞고 습에 상하여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현훈이 생긴 것이다.

頭目不清利 머리와 눈이 맑지 않은 것

此由風濕熱痰涎鬱于精明之府, 故頭目不爲清爽.

풍, 습, 열로 담연이 머리[精明之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머리와 눈이 맑지 못한 것이다.

正頭痛 정두통

三陽有頭痛, 三陰無頭痛, 惟厥陰脈與督脈會於巔, 故有頭痛, 少陰亦有頭痛, 但稀少耳.

삼양의 병에는 두통이 있고 삼음의 병에는 두통이 없으나 오직 궤음맥은 정수리에서 독맥과 만나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 소음의 병에도 두통이 있으나 거의 드물다.

偏頭痛 편두통

偏頭痛者, 頭半邊痛者是也.

편두통은 머리의 반쪽이 아픈 것이다.

○在右屬痰屬熱, 在左屬風屬血虛.

○편두통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담과 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풍과 혈허이다.

風寒頭痛 풍한두통

風寒傷上, 邪從外入, 客於經絡, 令人振寒頭痛, 或風寒之邪, 伏留陽經, 爲偏正頭痛.

풍한으로 상부를 상하고, 사기(邪氣)가 밖에서 경락으로 들어와 덜덜 떨고 두통이 있거나, 풍한의 사기가 양경(陽經)에 머물러 편두통이나 정두통이 있는 것이다.

濕熱頭痛 습열두통

心煩頭痛者, 病在膈中, 乃濕熱頭痛也.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것은 병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습열두통이다.

厥逆頭痛 궤역두통

厥者, 逆也. 邪氣逆上陽經而作痛, 甚則發厥, 頭痛齒亦痛.

궤(厥)이란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 사기(邪氣)가 양경(陽經)으로 거슬러 오르면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궤증이 되어 두통과 치통이 생긴다.

痰厥頭痛 담궤두통

頭痛每發時兩頰青黃, 眩暈, 目不欲開, 懶言語, 身體沈重, 兀兀欲吐, 此厥陰大陰合病, 名曰痰厥.

두통이 생길 때마다 양 볼이 푸르며 누르고 현훈이 있으며, 눈을 뜨려 하지 않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몸이 무겁게 가라앉고 몽롱하며 토하려고 하는 것은 궤음과 태음의 합병으로 담궤두통이라 한다.

氣厥頭痛 기궤두통

頭痛耳鳴, 九竅不利, 兩太⁴陽穴痛, 乃氣虛頭痛也. ○血虛頭痛, 自魚尾上攻而爲痛.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리고, 구구(九竅)가 잘 통하지 않으며, 양 태양혈의 통증이 심한 것은 기허두통이다. ○혈허두통은 어미(魚尾)로부터 위로 치받으면서 아픈 것이다.

熱厥頭痛 열궤두통

頭痛煩熱, 雖冬天大寒, 猶喜風寒, 其痛暫止, 略來煖處或見煙火, 則其痛復作.

두통과 번열이 있고 겨울의 큰 추위에도 오히려 추위와 바람 쐬기를 좋아하며, 통증이 잠시 멎어도 따뜻한 곳에 오거나 불을 보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濕厥頭痛 습결두통

冒雨傷濕, 頭重眩痛, 遇陰雨則甚.

비를 맞고 습에 상하여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면서 아프다. 흐리거나 비가 오면 심해진다.

頭痛當分六經 두통은 육경을 구분해야 한다

凡頭痛, 皆以風藥治之者, 高巔之上, 惟風可到, 故總其大體而言之也, 然亦有三陽三陰之異焉.

두통에 모두 풍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는 높이 있어서 풍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삼양과 삼음의 차이가 있다.

腦風證 뇌풍증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풍기가 풍부를 따라 올라가면 뇌풍(腦風)이 된다.

其證項背怯寒, 腦戶極冷.

증상은 목덜미와 등이 으슬으슬 춥고 뇌호혈(腦戶穴) 부위가 매우 차다.

首風證 수풍증

新沐中風, 則爲首風, 其證頭面多汗惡風, 當先風一日, 則病甚, 頭痛不可出內, 至其風日, 則病少愈.

막 머리를 감은 후 풍을 맞으면 수풍(首風)이 된다. 증상은 머리와 얼굴에 땀이 많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니, 처음 풍을 맞은 당일에는 병이 심해서 머리가 아파서 드나들 수 없다가 풍을 맞은 날이 지나면 병이 약간 낫는다.

眉稜骨痛 미릉골통

眉心竝眉梁骨痛者, 痰也.

양미간과 미릉골이 아픈 것은 담이 있기 때문이다.

風頭旋 머리를 흔드는 것

風頭旋者, 卽別無疾痛, 不自覺知, 常常頭自搖者是也, 肝風盛則搖頭.

풍두선(風頭旋)이라는 것은 별 다른 통증도 없고 저도 모르게 항상 머리를 흔드는 것이다. 간풍이 왕성하면 머리를 흔든다.

頭生白屑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것

頭生白屑, 肺之證也, 肺主皮毛, 故因風熱而頭皮燥痒, 生白屑.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것은 폐의 증상이다. 폐는 피모를 주관하기 때문에 풍열이 있으면 두피가 건조하고 가려우며 비듬이 생긴다.

吐法 토법

卒頭痛如破, 非冷非風, 是胸膈⁵有痰, 厥氣上衝所致, 名爲厥頭痛, 吐之即差.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은 냉증(冷證)도 아니고 풍증도 아니다. 가슴에 담이 있어 곁기(厥氣)가 치밀어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곁두통이라고 하는데, 토하게 하면 곧 낫는다.

下法 하법

頭風之甚者, 久則目昏, 偏頭痛, 久則目束, 大小便秘⁶, 皆宜大承氣湯下之.

심한 두풍이 오래되어 눈이 어두워지거나, 편두통이 오래되어 눈이 빠질 것 같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모두 대승기탕으로 설사시켜야 한다.

1. 身 : 身中 ※《동의보감》←

2. 辦 𢶏 辦 ※《동의보감》←

3. 而 : 多 ※《동의보감》←

4. 大 : 太 ※《동의보감》←

5. 隔  膈 ※《동의보감》[←](#)

6. 大小便秘：小大便秘澁 ※《동의보감》[←](#)



† 面 얼굴

面爲諸陽之會. 얼굴은 양이 모두 모이는 곳이다

靈樞曰, 手之三陽, 從手走至頭. 足之三陽, 從頭走至足.

《영추》에, "수삼양은 손에서 머리로 흐른다."라고 하였다. 족삼양은 머리에서 발로 흐른다.

人面耐寒 얼굴이 추위를 견디는 이유

人面獨能耐寒者, 何也. 蓋人頭者, 諸陽之會也, 諸陰脈皆至頸項中而還, 獨諸陽脈皆上至頭, 故令面耐寒也.

얼굴만은 추위를 견딜 수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 머리는 양맥이 모두 모이는 곳이다. 음맥은 모두 목까지 왔다가 돌아가지만, 양맥은 모두 머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面病專屬胃 얼굴 병은 오로지 위에 속한다

手足六陽之經, 雖皆上至頭, 而足陽明胃之脈, 起於鼻, 交頰中, 入齒挾口環唇, 倚頰車, 上耳前, 過客主人, 維絡于面上, 故面病專屬於胃, 其或風熱乘之, 則令人面腫, 或面鼻色紫, 或風刺癰疹, 或面熱, 或面寒, 隨其經證而治之.

수족의 육양경은 모두 머리로 올라가지만, 족양명위맥은 코에서 일어나 콧마루에서 교차한 뒤, 윗니 속으로 들어가 입을 따라 돌고, 협거혈을 지나 귀 앞으로 올라가서 객주인혈(客主人穴)을 지나 얼굴에 그물처럼 얹혀 있기 때문에 얼굴 병은 오로지 위(胃)에 속한다. 풍열이 들어와 얼굴이 붓거나, 얼굴과 코가 자색(紫色)을 띠거나, 여드름이나 두드러기[癩疹]가 돋거나, 얼굴에 열이 나거나, 얼굴이 차가울 때는 족양명위경의 증상으로 보고 치료한다.

面熱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

面熱者, 足陽明病. 面赤如醉者, 胃熱上熏也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은 족양명의 병이다. 취한 것처럼 얼굴이 붉은 것은 위 열(胃熱)이 올라와 데워진 것이다.

飲食不節則胃病, 胃病則氣短, 精神少而生大熱, 有時顯火上行, 獨燎其面.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위(胃)에 병이 생긴다. 위(胃)에 병이 생기면 호흡이 짧고, 정신이 없으며 열이 심하게 난다. 두드러진 화기(火氣)가 위로 올라와 유난히 얼굴을 달아오르게 할 때도 있다.

面寒 얼굴이 시린 것

面寒者, 胃虛也. 胃中有寒濕, 則面不能耐寒.

얼굴이 시린 것은 위(胃)가 허한 것이다. 위(胃) 속에 한습이 있으면 얼굴이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面見五色 얼굴에 오색이 보이는 것

肝外證, 面靑善怒, 心外證, 面赤善笑, 脾外證, 面黃善噫, 肺外證, 面白善嚏, 腎外證, 面黑善恐欠.

간(肝)의 외증은 얼굴이 푸르고 자주 성내는 것이다. 심(心)의 외증은 얼굴이 벌겋고 자주 웃는 것이다. 비(脾)의 외증은 얼굴이 누렇고 자주 트림하는 것이다. 폐(肺)의 외증은 얼굴이 희고 자주 재채기를 하는 것이다. 신(腎)의 외증은 얼굴이 검고 자주 두려워하고 하품하는 것이다.

面戴陽證 면대양증

諸病面赤, 雖伏火熱, 禁不得攻裏, 爲陽氣怫鬱, 邪氣在經, 宜發表以文¹之, 經曰, 火鬱則發之, 是也, 瘡瘍亦然.

여러 가지 병으로 얼굴이 붉을 때는 비록 화열(火熱)이 숨어 있어도 속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양기(陽氣)가 멎어 있고 사기(邪氣)가 경락에 있는 것이니 발산하여 사기를 제거해야 한다. 《내경》에, "화가 멎은 것은 발산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뜻이다. 창양도 이와 같다.

○面戴陽者, 浮火所衝也, 又曰, 面戴陽者, 面雖赤而不紅活, 乃下虛也, 醫者不察, 誤用涼藥, 則氣消而成大病矣.

◦면대양증(面戴陽證)은 화가 떠서 치받는 것이다. 또한 면대양증이 있으면 얼굴은 벌겁지만 생기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하초가 허하기 때문이니 의사가 잘못하여 찬 약을 쓰면 기가 소멸되어 큰 병이 된다.

胃風證 위풍증

胃風爲面腫.

위풍증은 얼굴이 붓는 것이다.

此初飲食訖, 乘風涼而致, 其證, 飲食不下, 形瘦腹大, 惡風頭多汗, 膈塞不通, 脈右關弦而緩帶浮.

처음 음식을 먹은 뒤에 바람이나 서늘한 기를 만나서 생긴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몸이 마르며, 배가 커지고 바람을 싫어하며, 머리카락에서 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막혀 뚫리지 않으며, 우측 관맥이 현(弦)·완(緩)하면서 부(浮)하다.

搭頰腫 답시종

頰腫, 亦名疔頰, 因風熱或膏粱, 積熱而作.

시종(頰腫)을 자시(疔頰)라고도 한다. 풍열로 생기거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 열이 쌓여 생긴다.

面上雜病 얼굴의 잡다한 병

風刺、粉刺、黤、痤癰、酒瘡、肺風瘡, 皆面上之病也, 風客皮膚, 痰漬藏府, 則生黤, 脾肺風濕搏熱, 則生瘡紅紫, 或腫.

여드름[風刺]、분가시[粉刺]、기미[黤]、뽀루지[痤]、땀띠[癰]、주사(酒瘡)、폐풍창은 모두 얼굴의 병이다.

¹. 文 去 ※동의보감 초간본. 기해영영개간본(1779)에는 文으로 되어있다.

←

† 眼 눈

眼爲臟腑之精 눈은 장부의 정이 모인 곳이다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𩚑¹肉之精爲約束, 裹擷筋骨血氣之精, 而與脈系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逢其身之虛, 其入深, 則隨眼系以入於腦, 入於腦則腦轉, 腦轉則引目系急, 目系急則目眩以轉矣, 邪中其精, 其精所中, 不相比也, 則精散, 精散則視岐, 視岐見兩物也,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榮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燁²而爲精明也, 目者, 心之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神精亂而不轉, 卒然見非常之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

오장육부의 정기(精氣)가 모두 눈으로 올라가 그 정이 눈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눈은 오장의 정(精)의 보금자리다. 골의 정은 눈동자가 되고, 근의 정은 검은자위가 된다. 혈의 정은 혈락(血絡)이 되고, 기의 정은 흰자위가 된다. 기육의 정은 눈꺼풀인데, 근골혈기의 정을 모아 맥계(脈系)를 따라 뇌로 올라갔다가 뒤로 흘러가서 목덜미로 나온다. 그러므로 사기(邪氣)가 목덜미에 적중하여 신체의 허약한 틈을 타고 깊숙이 들어가면 목계(目系)를 따라 뇌로 들어간다. 뇌로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어지러우면 목계가 당기며, 목계가 당기면 눈앞이 아찔하고 빙빙 돈다. 사기가 그 정(精)에 적중하면 정에 틈이

생겨 정이 흠어진다. 정이 흠어지면 시야가 갈라지고, 시야가 갈라지면 사물이 2개로 보인다. 눈은 오장육부의 정이 모인 곳이고, 영위와 혼백이 머무르는 곳이며, 신기(神氣)가 생겨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신(神)이 피로하면 혼백(魂魄)이 흠어지고 의지(意志)가 흐려진다. 눈동자와 검은자위는 음을 본받고 흰자위와 핏줄은 양을 본받아 음양이 합하여 정명(精明)이 된다. 눈은 심의 사신(使臣)이고, 심(心)은 신(神)이 머무는 곳인데 신정(神精)이 어지러워 눈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갑자기 이상한 곳이 보인다. 이는 정신과 혼백이 흠어져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니 '현혹되었다[惑]'고 한다.

○是以五臟六腑,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稟受於脾土, 上貫於目而爲明, 故脾虛則五臟之精氣皆失所使, 不能歸明於目矣.

○혈기 모두가 비토(脾土)에서 받아들여져 오장육부, 12경맥, 365경락을 통해 위로 올라가 눈에 이르러 눈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비가 허하면 오장의 정기가 눈으로 올라오지 못해 눈이 어두워진다.

眼有五輪 눈에는 오륜이 있다.

白睛屬肺, 氣之精爲氣輪. ○黑睛屬肝, 筋之精爲風輪. ○上下瞼屬脾, 肉之精爲肉輪.

○大小皆屬心, 血之精爲血輪. ○瞳人屬腎, 骨之精爲水輪.

흰자위[白睛]는 폐에 속하며 기의 정수가 모였기에 기륜(氣輪)이라고 한다. ○ 검은자위[黑睛]는 간에 속하며 근(筋)의 정수가 모였기에 풍륜(風輪)이라고 한다. ○위아래의 눈꺼풀은 비에 속하며 육(肉)의 정수가 모였기에 육륜(肉輪)

이라고 한다. ○내자와 외자[大小眊]는 심에 속하며 혈의 정수가 모였기에 혈륜(血輪)이라고 한다. ○눈동자는 신(腎)에 속하며 골의 정수가 모였기에 수륜(水輪)이라고 한다.

氣輪 기륜

病因凌寒冒暑, 受飲寒漿, 飢³體虛踈, 寒邪入內, 其候或痛或昏, 傳在白睛, 筋多腫赤, 視日如隔霧, 看物似生煙, 日久不治, 變成白膜, 黑暗難開,

기륜(氣輪)의 병은 추위나 더위에 상하거나, 차가운 음료수를 마신 후 몸이 허한 틈을 타고 한사가 속으로 들어와서 생긴다. 그 증상은 아프거나 어지러운 것이다. 사기(邪氣)가 흰자위에 들어오면 근이 벌겍게 부을 때가 많고, 햇빛을 보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사물을 보면 연기가 나는 듯 희미하다.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백막(白膜)이 생기고 눈이 어두워져 눈을 뜨기 어렵게 된다.

風輪 풍륜

病因喜怒不常, 作勞用心, 晝視遠物, 夜讀細書, 其候眚頭尤澁, 睛內偏疼, 視物不明, 胞弦緊急, 宜去風藥.

풍륜(風輪)의 병은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무리하여 일을 하고 마음을 많이 쓰거나, 혹은 낮에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밤에 잔글씨를 많이 보아서 생긴다. 그 증상은 내외자(內外眊)가 매우 건조하고 눈 속이 특히 아프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눈꺼풀이 땡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풍을 제거하는 약을 써야 한다.

肉輪 육륜

病因多食熱物, 好喫五辛, 遠道奔馳, 食飽耽眠, 風積痰壅, 其候眼胞赤. 血侵睛, 宜踈醒脾藥.

육륜(肉輪)의 병은 뜨거운 것을 많이 먹거나, 오신(五辛)을 즐겨 먹거나, 먼 길을 자주 다니거나, 과식 후 수면하는 습관으로 풍이 쌓이고 담(痰)이 막혀서 생긴다. 그 증상은 눈꺼풀이 벌겋게 붓고 어혈이 눈에 침범하는 것이니 비기(脾氣)를 잘 트이게 하고 깨우는 약을 써야 한다.

血輪 혈륜

病因七情煩勞, 內動於心, 外攻於目, 其候赤筋纏眥, 白膜侵睛, 胞腫難開昏澁日久不治, 失明愈深, 宜洗心涼血藥.

혈륜의 병은 칠정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피로하여 안으로는 심(心)이 흔들리고 밖으로는 눈이 공격을 당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 증상은 적맥(赤脉)이 내외자(內外眥)에 얹혀 있고 백막(白膜)이 눈을 침범하며, 눈꺼풀이 부어 눈을 뜨지 못하고 시야가 어두워지고 건조해진다.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더욱 나빠져 실명할 수 있다. 심혈(心血)을 서늘하게 하고 정화해주는 약을 써야 한다.

水輪 수륜

病因勞役過度, 嗜慾無厭, 又傷七情, 加之多飡酒麪, 好啖鹹辛, 因動腎經, 通於黑水, 其候冷淚鎮流於臉上, 飛蠅相趁於睛前, 積聚風虛或澁或痒, 結成翳障, 常多昏暗, 宜用補腎藥.

수룬의 병은 과도한 노동이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칠정을 상하여 발생하며, 여기에 술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여 신경(腎經)이 영향을 받아 그 병이 눈동자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 증상은 냉루(冷淚)가 뺨에 많이 흐르고, 눈앞에 날파리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적취가 생기거나 풍허(風虛)로 눈이 건조하거나 가려우며 예장이 생겨서 늘 시야가 흐리고 어두운 것이다. 신(腎)을 보하는 약을 써야 한다.

眼有八廓 눈에는 팔곽(八廓)이 있다.

天廓肺, 大腸傳道,

地廓脾與胃, 水穀.

火廓心, 命門抱陽,

水廓腎, 會陰.

風廓肝, 養化.

雷廓小腸, 關泉,

山廓膽, 清淨,

澤廓膀胱, 津液.

천곽(天廓)은 폐·대장에 속하여 전해주는 일을 주관한다.

지곽(地廓)은 비(脾)와 위(胃)에 속하여 수곡을 주관한다.

화곽(火廓)은 심·명문에 속하여 양(陽)을 품고 있다.

수곽(水廓)은 신에 속하여 음을 모은다.

풍곽(風廓)은 간에 속하여 기르고 변화시킨다.

뇌곽(雷廓)은 소장(小腸)에 속하여 물길의 관문이 된다.

산곽(山廓)은 담(膽)에 속하여 청정한 것을 주관한다.

택곽(澤廓)은 방광(膀胱)에 속하여 진액을 주관한다.

○天廓 ○천곽

病因雲中射鴈, 月下看書, 多食腥羶⁴, 侵冒寒暑, 其候視物生煙, 皆疼難開, 不能辨認.

천곽(天廓)의 병은 구름 속에서 기러기를 쏘거나, 달빛 아래에서 책을 보거나, 비린내나 누린내가 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한(寒)이나 서(暑)에 침범을 당해 생긴다. 그 증상은 사물을 볼 때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내외자(內外眵)가 아파서 눈을 뜨기 어려우며,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地廓 ○지곽

病因濕漬頭上, 冷灌睛眸, 其候眼弦緊急, 瘀血生瘡.

지곽(地廓)의 병은 습사가 머리에 스며들어 냉기가 눈을 적셔서 생긴다. 그 증상은 눈시울이 당기고 어혈로 창(瘡)이 생기는 것이다.

○火廓 ○화곽

病因心神恐怖, 赤脈侵眥, 血灌瞳人, 其候臉頭紅腫, 睛內偏疼, 熱淚如傾.

화곽(火廓)의 병은 두려움으로 적맥(赤脈)이 내외자(內外眥)에 침입하고 혈액이 눈동자에 들어가 생긴다. 그 증상은 눈꺼풀이 붉게 붓고 눈 속이 특히 아프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水廓 ○수곽

病因努力爭鬪, 擊棒開弓, 驟騎強力生病, 其候常多昏暗, 睛眩淚多.

수곽의 병은 힘써 싸우거나, 몽둥이를 휘두르고 활을 당기거나, 힘껏 말을 달려서 생긴다. 그 증상은 늘 눈이 어둡고 눈이 어지러우며, 눈물이 많은 것이다.

○風廓 ○풍곽

病因枕邊窓穴有風, 不能遮閉, 坐臥當之, 腦中風邪, 其候黑睛多痒, 兩臉常爛, 或昏多淚.

풍곽의 병은 머리맡의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은 채 앉거나 누워 바람을 쐬면 풍사가 뇌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다. 그 증상은 검은자위가 가려움증이 심하고 두 눈꺼풀이 늘 짓무르며, 눈이 흐려지고 눈물이 많아진다.

○雷廓 ○뇌곽

病因失枕睡臥, 酒後行房, 血脈滿溢, 風邪內聚, 其候皆頭赤腫, 瞼內生瘡, 倒睫拳毛, 遮睛努肉.

뇌곽의 병은 베개를 잘못 베고 자거나 술 마신 후 성생활을 하여 혈맥이 가득 차 넘치고 풍사가 내부로 몰려서 생기는 병이다. 그 증상은 내외자(內外眵)가 벌겋게 붓고 눈꺼풀 속에 창(瘡)이 생기며, 속눈썹이 거꾸로 자라 눈을 찌르거나 눈의 군살로 눈이 자꾸 감긴다.

○山廓 ○산곽

病因撞刺磕損, 致令肉生兩瞼, 瞼⁵閉雙睛.

산곽(山廓)의 병은 눈을 맞거나 찔리거나 부딪쳐서 생긴다. 두 눈꺼풀에 군살이 생겨 두 눈동자를 가린다.

○澤廓 ○택곽

病因春不宜解, 冬聚陽毒, 多⁶冷熱, 致令腦脂凝聚, 血淚攻潮, 有如霧籠, 飛蜂黑花常見.

택곽(澤廓)의 병은 겨울에 뭉친 양독(陽毒)이 봄이 되어도 잘 풀리지 않거나,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뇌지(腦脂)가 엉겨 피눈물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안개처럼 흐릿하며, 눈에 벌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항상 검은 꽃 같은 것이 보인다.

眼睛屬五臟 눈은 오장에 속한다

首尾赤眥屬心, 滿眼白睛屬肺, 其烏睛圓大屬肝, 其上下肉胞屬脾, 而中間黑瞳一點如漆者, 腎實主之.

내외자(內外眥)의 붉은 부분은 심(心)에 속하며, 눈을 채우는 흰자위는 폐(肺)에 속한다. 둥글고 큰 검은자위는 간(肝)에 속하고, 상하의 눈꺼풀은 비(脾)에 속한다. 중간에 검은 옷으로 한 점을 찍은 것 같은 동공은 신(腎)이 실제로 주관한다.

眼有內外眥 내자와 외자

目眥外決于面者爲銳眥, 在內近鼻者爲內眥, 上爲外眥, 下爲內眥.

자(眥)에서 얼굴의 바깥쪽으로 향한 것은 예자(銳眥)이고, 코에 가까운 안쪽은 내자(內眥)이다. 위 눈꺼풀은 외자(外眥)에 속하고, 아래 눈꺼풀은 내자에 속한다.

諸脈屬目 모든 맥은 눈에 속한다

五臟六腑精華, 皆稟於脾, 注於目, 故理脾胃則氣上升而神清也, 肝之系雖總於目, 而照徹光彩, 實腎精心神所主, 故補精安神者, 乃治眼之本也.

오장육부의 정화는 모두 비(脾)에서 받아 눈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비위를 다 스리면 기가 상승하고 신(神)이 맑아진다. 간계(肝系)가 눈을 총괄하지만, 사물을 비추고 광채를 내는 것은 실제로 신정(腎精)과 심신(心神)이 주관한다. 그러므로 정을 보충하고 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눈을 치료하는 근본이다.

脈法 맥법

左寸脈洪數, 心火炎也, 關脈弦而洪, 肝火盛也, 右寸關俱弦而洪, 肝木挾相火之勢, 侮肺金而乘脾土也.

왼쪽의 촌맥이 홍(洪)、삭(數)한 것은 심화(心火)가 타오르는 것이다. 왼쪽의 관맥이 현(弦)、홍(洪)한 것은 간화(肝火)가 왕성한 것이다. 오른쪽의 촌맥과 관맥이 모두 현、홍한 것은 간목(肝木)이 상화(相火)의 세력을 빌려 폐금(肺金)을 얹보고 비토(脾土)를 눌러서 나타나는 것이다.

目者肝之竅 눈은 간의 구멍이다

目者肝之外候, 肝取木, 腎取水, 水能生木, 子母相合, 故肝腎之氣, 充則精彩光明. 肝腎之氣, 乏則昏蒙暈眩, 心者神之舍, 又所以爲肝腎之副焉, 蓋心主血, 肝藏血, 血能生熱, 凡熱衝發於眼, 皆當清心涼肝.

눈은 간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곳이다. 간은 목(木)을 담당하고, 신(腎)은 수(水)를 담당하는데, 수는 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자모(子母) 관계처럼 서로 결합된다. 따라서 간과 신의 기가 충분하면 눈이 밝고, 기가 부족하면 눈이

흐려지고 어지러워 진다. 심은 신(神)의 집이자 간과 신을 보좌한다. 심은 혈액을 주관하고 간은 혈액을 저장한다. 혈액에 열이 생기면 그 열이 눈으로 올라와 퍼져 나가므로 심을 맑게 하고 간을 식혀 주어야 한다.

眼病無寒 눈병에는 한증이 없다

歷考眼科之病, 無寒有虛與熱, 豈寒澁血而不相⁷攻歟.

안과의 병을 두루 살펴보면 한증은 없고 허증과 열증만 있다. 아마 한(寒)은 혈액을 걸끄럽게 할 뿐, 위로 치밀어오르게 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眼無火不病 눈병은 화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目不因火則不病, 何以言之? 白輪變赤, 火乘肺也. 肉輪赤腫, 火乘脾也, 黑水神光被瞖, 火乘肝與腎也, 赤脈貫目, 火自甚也, 能治火者一句了, 故內經曰, 熱勝則腫, 凡目暴赤, 腫起羞明隱澁, 淚出不止, 暴寒目瞶, 皆火熱之所爲也.

눈은 화(火)가 아니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흰자위가 벌겋게 되는 것은 화가 폐를 누르는 것이다. 눈꺼풀이 벌겋게 부은 것은 화가 비를 누르는 것이다. 눈동자의 광채가 예막에 가린 것은 화가 간과 신을 누르는 것이다. 적맥(赤脉)이 눈을 관통하는 것은 화가 지나치게 심해진 것이다. 눈병은 화를 치료하면 된다는 한마디 말이면 된다. 따라서 《내경》에, "열이 지나치면 붓는다"고 하였다. 눈이 갑자기 벌겋게 붓고, 빛을 싫어하며 약간 깔깔하고, 눈물이 많지 않으며, 갑작스런 찬 기운에 눈이 흐려지는 것은 모두 화열 때문이다.

眼病所因 눈병의 원인

生食五辛, 接熱飲食, 刺頭出血多, 極目遠視, 夜讀細書, 久處煙火, 博奕不休, 飲酒不已⁸, 熱飡麪食, 抄寫多年, 雕鏤細作, 泣淚過多, 房室不節, 數向日月輪看, 月下讀書, 夜視星月, 極目瞻視山川草木, 皆喪明之由也.

오신(五辛)을 생으로 먹는 것,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 머리에 침을 놓아 피를 많이 빼는 것, 과도하게 멀리 보는 것, 밤에 작은 글씨를 읽는 것, 오랫동안 연기가 나는 곳에 있는 것, 쉬지 않고 도박을 하는 것, 술을 계속 마시는 것, 밀가루 음식을 뜨겁게 먹는 것, 책 베끼는 일을 오래 하는 것, 조각과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것, 눈물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것, 성생활을 절제하지 않는 것, 해와 달을 자주 보는 것,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밤에 달과 별을 보는 것, 멀리까지 과도하게 산천초목을 보는 것이 모두 시력을 잃는 원인이다.⁹

內障 내장

內障在睛裏昏暗, 與不患之眼相似, 惟瞳人裏有隱隱青白者, 無隱隱青白者亦有之.

내장은 눈알 속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정상적인 눈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눈동자 속이 은은히 희푸르는데, 은은히 희푸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內障先患一眼, 次爲兩目俱損者, 皆有瞖在黑睛內, 遮童子而然, 夫通黑睛之脈者, 目系也, 系屬足厥陰、足太陽、手少陰三經, 三經虛, 則邪從目系入黑睛, 內爲瞖.

○내장은 한쪽 눈에 먼저 발생하고 이후 두 눈이 모두 상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예막(瞼膜)이 검은자위에 있어서 눈동자를 가리기 때문에 생긴다. 검은자위와 통하는 맥은 목계(目系)이며, 목계는 족궤음·족태양·수소음의 세 경맥에 속한다. 세 경맥이 허하면 사기(邪氣)가 목계로부터 검은자위로 들어와서 예막이 생긴다.

○內障昏蒙, 外無瞼膜, 因腦脂下凝, 烏珠轉白, 或如金色, 或綠豆色, 或如雲煙, 或見五色, 治比外障更難, 如腦脂凝結, 童人反背, 不治.

내장이 있으면 눈이 흐릿하고 어두워지지만 겉으로는 예막이 보이지 않는다. 뇌지(腦脂)가 검은자위에 엉겨 백색, 금색, 녹두색으로 변한다. 혹은 구름이나 연기가 낀 것 처럼 보이거나 오색이 보이도 한다. 치료는 외장에 비해 훨씬 어렵다. 만약 뇌지가 엉겨서 눈동자가 눈 반대쪽으로 돌아간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

圓瞼 원에

在黑珠上一點圓, 日中見之差小, 陰處見之即大, 視物不明, 轉見黑花, 此由肝腎俱虛而得.

검은자위에 점같은 하나의 원이 있는데, 햇빛 아래에서는 작게 보이고, 그늘에서는 더크게 보이며,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다가 검은 꽃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과 신이 모두 허하여 생긴 것이다.

氷瞼 빙에

如氷凍堅實, 傍觀自透於瞳人內, 陰處及日中看之, 其形一同, 疼而淚出, 此肝膽病.

예막이 얼음처럼 단단하고, 옆에서 보면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 있으며, 그늘에서나 빛에서나 모양이 같고 아프면서 눈물이 나온다. 이것은 간과 담의 병이다.

滑瞖 활예

有如水銀珠子, 但微含黃色, 不疼不痛, 無淚, 遮邊瞳¹⁰人.

눈에 수은 구슬 같은 것이 있으며 약간 누런색을 띤다. 통증이나 눈물이 없고 예막이 눈동자를 덮어 가린 상태이다.

澼瞖 삽예

微如赤色, 或聚或開, 兩傍微光, 瞳人上如凝脂色, 時復澼痛, 無淚出.

약간 붉은 색을 띤 것이 모이거나 퍼져 있으며, 눈 양쪽 옆으로 약간 광채가 보인다. 눈동자에 기름이 엉긴 것 같은 색이 돌고, 가끔은 따갑고 아프며, 눈물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散瞖 산예

形如鱗點, 或瞼下生粟, 日夜痛楚, 瞳人最疼, 常下熱淚, 此三證皆肝肺相傳.

고기 비늘 같은 모양의 점이 있거나 눈꺼풀 아래에 낱알 같은 것이 생긴다. 밤
낮으로 몹시 아프고, 눈동자가 가장 아프며 항상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이 세
가지 증상(활예, 삽예, 산예)은 모두 간과 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생긴 것
이다.

橫開瞤 횡개예

上橫如【僉+力】¹¹脊, 下面微微甚薄, 不赤不痛, 此病稀少.

횡개예의 위쪽은 칼등처럼 가로로 놓여 있고, 아래쪽은 미미하여 매우 얇다.
붉지도 않고 통증도 없으며, 이 병은 드물게 생긴다.

浮瞤 부예

上如氷光, 白色環繞瞳人, 生自小眦頭至黑珠上, 不痛不痒, 無血¹².

상부에 얼음이 빛나는 것처럼 흰색이 눈동자를 두른다. 눈의 바깥쪽 모서리에
서 검은자위까지 생기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으며 혈색이 없다.

沈瞤 침예

白點藏在黑水下, 向旦¹³細視, 方見其白, 眼睛疼痛, 晝輕夜重, 間或出淚.

흰 점이 눈동자 아래에 숨어 있어 해를 향하여 자세히 보아야 흰 점이 보인다.
눈이 아프고, 낮에는 가볍다가 밤에 심해지고, 간혹 눈물이 흐른다.

偃月瞤 언월에

膜如凝脂, 一邊厚, 一邊薄, 如缺月, 其色光白無瑕疵, 前四證, 竝皆難治.

엷긴 기름 같은 막이 있는데, 한쪽은 두텁고 한쪽은 얇아서 초승달 같다. 희게 빛나며 티가 없는 것이다. 앞의 4가지 증상은 모두 치료하기 어렵다.

棗花瞤 조화에

周回如鋸齒, 四五枚, 相合, 赤色, 刺痛如鍼, 視物如煙, 晝則痛楚, 多淚昏暗.

예막 주위로 톱니 4 - 5개가 이어져 있고 적색을 띤다. 침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며 사물이 연기처럼 뿌옇게 보인다. 낮에는 몹시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며 눈이 어두워진다.

黃心瞤 황심에

四邊皆白, 但中心一點黃團, 團在黑珠上, 時下澁淚, 此兩證, 肝肺風熱.

사방이 모두 백색을 띠지만, 가운데는 누런 반점이 검은자위에 모여 있다. 때로 눈이 깔깔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증상은 간폐에 풍열이 있는 것이다.

黑花瞤 흑화에

其狀青色, 大小皆頭澁痛, 頻頻下淚, 口苦, 蓋膽受風寒.

푸른색을 띤다. 내외자(內外眥)가 깔깔하면서 아프고, 자주 눈물을 흘리고 입이 쓰다. 이것은 담(膽)이 풍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胎患 大환

初生觀物轉睛不快, 至四五歲, 瞳人潔白, 昏蒙不見, 延至年高, 無藥可治, 由胎中受熱致損也.

대환은 태어났을 때는 사물을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4 - 5세 때는 눈동자가 허옇게 변하고 시력이 흐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것은 태내에서 열에 의해 눈이 손상된 결과이다.

五風變 오풍변

五色變爲內障, 頭痛甚, 却無淚, 日中如坐暗室, 常自憂嘆, 此毒風腦熱所致.

눈에 오색(五色)이 나타났다가 내장이 된 것이다. 두통이 심하고 눈물이 없으며, 낮에도 어두운 방에 있는 것 같고, 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풍(毒風)으로 뇌열(腦熱)을 받았기 때문이다.

雷頭風 뇌두풍

此熱毒之氣, 衝入眼睛中, 牽引瞳人, 或微或大或小, 黑暗全不見物.

이것은 뜨거운 독기가 눈으로 침입하여 눈동자를 조이는 것이다. 그로 인해 눈동자가 흐릿해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고, 눈앞이 암흑같이 캄캄하여 전혀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驚振 경진

因病目再被撞打, 變成內障, 日夜疼痛, 不能視三光, 前四證俱不可治.

눈병을 앓는 중에 눈을 얻어맞아서 내장이 생긴 것이다. 밤낮으로 아프고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앞의 4가지 증상(태환·오통변·뇌두풍·경진)은 모두 치료할 수 없다.

綠風 녹풍

初患頭旋, 兩額角相牽, 瞳人連鼻鬚皆痛, 或時紅白花起, 肝受熱則先左, 肺受熱則先右, 肝肺同病則齊發.

처음에 머리를 흔들다가 양 액각(額角)이 당기고, 눈동자에서 비각(鼻鬚)까지 모두 아프며, 때로 희불그레한 꽃이 보이는 것이다. 간이 열을 받으면 왼쪽을 먼저 앓고, 폐가 열을 받으면 오른쪽을 먼저 앓으며, 간폐가 모두 병이 나면 동시에 앓는다.

烏風 오통

眼雖痒痛而頭不旋, 但漸漸昏暗, 如物遮睛, 全無翳障, 或時生花, 此肝有實熱.

눈이 가렵고 아프지만 머리를 흔들지는 않는다. 다만 눈이 점점 어두워져 무언가가 가린 것 같으나, 예장은 전혀 없고 때로 눈에 꽃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간에 실열이 있는 것

黑風 흑풍

此與綠風相似, 但時時黑花起, 乃腎受風邪, 熱攻於眼.

녹풍과 비슷하지만 때때로 검은 꽃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신(腎)이 풍사를 받아 열이 눈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靑風 청풍

此眼不痛不痒, 瞳人儼然如不患者, 但微有頭旋及生花, 轉加昏蒙.

이것은 눈이 아프거나 가렵지도 않으며 눈동자는 앓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눈에 꽃이 보이며 점차 시야가 흐려져 가는 것이다.

肝虛雀目 간허작목

雀目者, 日落即不見物也.

작목(雀目)이란 해가 지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因肝虛血少, 時時花起, 或時頭疼, 年深則雙目直¹⁴, 小兒因疳得之.

○간허로 혈이 부족하면 자주 눈에 꽃이 보이거나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여러 해가 지나면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 소아는 감병(疳病)으로 인해 생긴다.

高風雀目 고평작목

與前證雖同, 但纔至黃昏, 便不見物.¹⁵

앞의 증상과 같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外障 외장

外障者, 肺病也, 在睛外遮暗.

외장(外障)은 폐의 병으로 눈의 겉을 가려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靈樞曰, 診目痛, 赤脈從上下者, 太陽病, 從下上者, 陽明病, 從外走內者, 少陽病.

《영추》에, "눈의 통증을 진맥할 때, 핏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태양병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양명병이며,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것은 소양병이다."라고 하였다.

肝臟積熱 간장적열

眼先患赤腫疼痛, 怕日羞明, 淚澁難開, 忽生瞖膜, 初患一目不見, 以致兩目齊患, 此肝臟積熱.

눈이 먼저 벌겋게 붓고 아프고, 빛을 싫어하며 눈물이 나고 깔깔하여 눈을 뜨기 어렵다가 갑자기 예막이 생긴다. 처음에는 한쪽 눈만 보이지 않다가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간장(肝藏)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混睛 혼정

白睛先赤, 後痒痛淚下, 閉澁難開, 年深則睛變成碧色, 滿目如凝脂, 赤膜橫貫.

처음에는 흰자위가 벌겋다가 나중에 가렵고 아프며 눈물이 나며, 깔깔하여 눈이 감기고 뜨기가 어렵다. 몇 년이 지나면 눈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엉긴 기름 같은 것이 눈에 가득 차며, 핏줄이 눈을 가로지른다.

努肉攀睛 노육반정

或眼先赤爛多年, 肝經爲風熱所衝而成, 或用力作勞而得, 或痒或痛, 自兩眦頭努出筋膜. 心氣不寧, 憂慮不已, 遂乃攀睛.

먼저 여러 해 동안 눈이 벌겋게 짓무르고 간경(肝經)에 풍열이 치받아 생기거나, 무리하여 일을 한 후 생긴다. 가렵거나 아프고 내외자(內外眥)로부터 노육이 자라난다. 심기가 불편하고 근심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눈을 침범한 것이다.

兩瞼粘睛 양검점정

此乃爛弦風也, 雙目赤爛, 或痒或痛, 經年不愈.

이것은 난현풍(爛弦風)이다. 두 눈이 벌겋게 짓무르거나 가렵거나 아프며 여러 해가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이다.

○小兒初生雙目紅而眶邊赤爛, 至三四歲不愈.

○갓난아기의 두 눈이 충혈되고 눈자위가 벌겋게 짓물러 3 - 4세가 되어도 낫지 않는 것이다.

膜入水輪 막입수륜

此因黑珠上生瘡稍安, 其痕不沒, 浸入水輪, 雖光未絕, 終亦難治.

검은자위에 염증이 생겼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중에 그 상흔이 없어지지 않고 눈동자로 침입한 것이다. 비록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기도 어렵다.

釘瞖根深 정예근심

心肝留熱, 致使眼疼痛, 生瞖膜, 經久其色如銀, 釘入黑睛, 不可治.

심간에 열이 머물러 눈이 아프고, 예막이 생기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 색이 은색처럼 변하고, 검은자위에 못이 박힌 듯한 상태가 되어 치료할 수 없다.

黑瞖如珠 흑예여주

此起在黑水上, 如小黑豆, 疼痛淚出, 不可用點藥, 乃腎虛受風熱而得.

이것은 눈동자에 작은 검은콩 같은 것이 생겨서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다.
점안약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신허(腎虛)한 상태로 풍열을 받아 생긴 것이다.

花瞖白陷 화예백함

白瞖旋遠腫人, 點點如白花鱗砌者, 此因肝肺伏藏積熱.

흰 예막이 눈동자를 둘러싸고 꽃 같은 것이 점점이 있거나 비늘 같은 조각이
층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간폐에 적열이 쌓여 생긴 것이다.

水瑕深瞖 수하심예

黑水內橫深瑕盤青色, 沈沈深入, 痛楚無時, 此五藏俱受熱.

눈동자 안에 가로로 푸른 흠집이 생겨 깊이 박혀 들어가며 수시로 몹시 아픈
것이다. 이것은 오장이 모두 열을 받아 생긴 것이다.

玉瞖浮滿 옥예부만

黑珠上浮, 玉色, 不疼痛, 瞖根不紅, 不宜針割.

검은자위에 옥색의 예막이 떠 있는 것이다. 아프지 않으며 예막의 뿌리는 붉지
않다. 자침하거나 베어내면 안 된다.

順逆生瞖 순역생예

凡瞽自下生上者爲順, 自上而生下者爲逆, 順則易安, 逆則難治.

예막(瞖膜)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생기는 것은 순증(順證)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기는 것은 역증(逆證)이다. 순증이면 쉽게 낫지만 역증이면 치료하기 어렵다.

鷄冠蜆肉 계관현육

瞖生瞼內, 如鷄冠蜆肉, 或青或黑, 須翻出看之, 阻礙痛楚, 怕日羞明, 蓋脾經先受熱, 後有所傳.

눈꺼풀 속에 닭 벼슬이나 가막조개 살 같은 예막이 생긴 것으로 푸르거나 검은 색이다. 반드시 뒤집어서 봐야 하는데, 잘 뒤집어지지 않고 몹시 아프며 빛을 싫어한다. 대체로 비경이 먼저 열을 받아서 눈으로 전해진 것이다.

瞼生風粟 검생풍속

瞼生風粟者, 眼痛狀如眯, 名曰粟眼, 其眼瞼皮肉上下有肉如粟粒, 淚出碇痛, 可翻眼皮起, 以針撥之, 兼服湯散, 宣其風熱.

검생풍속이란 눈에 티가 들어간 것처럼 아픈 것으로 속안(粟眼)이라고도 한다. 눈꺼풀의 위아래로 좁쌀 같은 군살이 있어 눈물이 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다. 눈꺼풀을 뒤집어 침으로 다스린 후, 탕제나 산제를 복용하여 풍열을 흩어야 한다.

胞肉膠凝 포육교응

眼胞皮肉有似膠凝, 腫高如桃李, 時出熱淚, 乃風毒所注.

눈꺼풀에 아교가 엉긴 것 같은 것이 있어 복숭아나 자두크기만큼 부어 오르고,
때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것이다. 이것은 풍독이 들어온 것이다.

漏睛膿出 누정농출

眦頭結聚生瘡, 流出膿汁, 無翳障, 不疼痛, 因心氣不寧, 并風熱在瞼中.

내외자(內外眦)가 뭉치고 창이 생겨 고름이 흐르지만, 예장도 없고 통증도 없
는 것이다. 이것은 심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풍열이 눈꺼풀에 침투하여 생긴
것이다.

蟹睛疼痛 해정동통

肝有積熱, 上衝於目, 令目痛甚, 當黑睛上生黑珠子, 如蟹之目, 以爲名, 或有如豆者,
名曰損翳, 極難治.

간에 쌓인 열이 눈으로 치솟아 눈이 심하게 아프고, 검은자위에 게눈 같은 검은
구슬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간혹 콩알만한 것이 생기기도 하는
데, 이것은 손예(損翳)라고 하며 매우 치료하기 어렵다.

突起睛高 돌기정고

風毒流注五藏, 不能消散, 忽然突起痒痛, 乃熱極所致.

풍독이 오장으로 흘러들었다가 사라지지 않아 갑자기 눈이 튀어나오면서 가렵고 아픈 것이다. 이것은 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생긴다.

風起喎偏 풍기와편

偏風牽引, 雙目喎斜, 淚出頻頻, 却無瞖膜, 不痒不痛.

편풍(偏風)으로 당겨져 두 눈이 비뚤어지고 눈물이 자주 나오며, 예막이 없고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이다.

倒睫拳毛 도첩권모

淚出涓涓, 瞖膜漸生, 眼皮漸急, 睫倒難開, 瞳人如刺樣痛, 此脾受風熱.

눈물이 줄줄 흐르고 예막이 점차 생기며, 눈꺼풀이 점차 당기고 속눈썹이 구부러져 눈을 뜨기 어려우며, 눈동자가 찢린 것처럼 아픈 것이다. 이것은 비(脾)가 풍열을 받았기 때문이다.

風牽瞼出 풍견검출

上下瞼俱赤, 或翻出一瞼在外, 此脾受風毒.

위아래 눈꺼풀이 모두 벌겋거나, 한쪽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이것은 비(脾)가 풍독을 받은 것이다.

神崇疼痛 신수동통

舊無根因, 忽然疼痛, 或如針刺, 或如火灸, 兩太陽穴掣痛, 早輕晚重.

예전에 다치거나 병이 든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침으로 찌르는 듯하거나 불로 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양 태양혈 부위가 당기면서 아프고, 아침에는 가볍고 날이 저물면 심해지는 것이다.

旋螺尖起 선라첨기

目痛生瞖膜, 尖起而赤似旋螺.

눈이 아프고 예막이 우렁이처럼 뾰족하게 솟으면서 벌겋게 된 것이다.

鵠眼凝睛 골안응정

輪硬而不能轉側, 此爲鵠眼凝睛, 不可治.

눈알이 단단해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골안응정이다. 치료할 수 없다.

輻輳轉關 녹로전관

風寒入貫瞳人, 攻於眼帶, 則瞳人牽曳向下, 名曰墜睛眼, 亦輻輳轉關之類, 若日數漸多, 卽拽破瞳人, 兩眼俱陷, 則不見物.

풍한이 눈동자에 침투하여 눈 주위를 공격하면 눈동자가 아래로 당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추정안(墜睛眼)이라고 하며 녹로전관(輓轡轉關)과 같은 종류이다. 만약 시간이 흐르면 눈동자가 당겨서 찢어지고 두 눈이 모두 함몰되어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被物撞打 피물당타

目被撞打, 疼痛無時, 瞳人被驚, 昏暗濛濛, 眼眶停留瘀血.

눈을 맞아서 수시로 통증이 있고, 눈동자가 놀라서 시야가 흐릿하고, 눈자위에 어혈이 정체된 것이다.

撞刺生翳 당자생예

因撞刺生翳疼痛, 或兼風熱, 轉加痛楚, 昏暗不見.

눈을 맞거나 찔려 예막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며, 때로는 풍열이 더해져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다.

血灌瞳人 혈관동인

瞳人爲血灌注, 痛如錐刺, 皆無翳膜, 視物不明, 由肝氣閉, 血無歸¹⁶而得.

눈동자에 피가 고여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예막은 없으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간기(肝氣)가 막혀 혈이 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天行赤目 천행적목

目忽赤腫, 晨昏痛澁, 長幼相似, 此天行時疾.

눈이 갑자기 벌겋게 붓고 새벽이나 저녁에 아프고 깔깔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증상이 비슷하니 이것은 유행병이다.

赤眼後生翳 적안후생예

此證輕則無妨, 重則疼痛, 而白睛紅花, 乃生翳膜, 此由五藏積熱.

이 증상은 가벼우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심할 때는 통증이 있고 흰자위에 붉은 꽃 같은 것이 나타나며 예막이 생긴다. 이것은 오장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胎風赤爛 태풍적란

小兒初生, 便有此證, 至三四歲, 雙目紅而弦邊赤爛, 時復痒痛.

태어날 때부터 이 증상을 보이다가 3 - 4세가 되면 두 눈이 빨갛고 눈시울이 벌겋게 짓무르며 때로 가렵고 아픈 것이다.

風赤瘡疾 풍적창질

眼兩瞼似朱砂塗而生瘡, 黑睛端然無所染, 此脾藏風熱, 久不治, 則生翳膜.

양 눈꺼풀에 주사(朱砂)를 바른 것처럼 창(瘡)이 생기지만, 검은자위는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장(脾藏)에 풍열이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예막이 생긴다.

衝風淚出 충풍루출

至冬月尤甚, 此因肺虛遇風冷而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진다. 이것은 폐허한데 풍랭(風冷)을 만나서 생기는 것이다.

DD 偷鍼 DD 다래끼

目眥瘍, 俗謂之偷鍼.

내외자(內外眥)에 창양이 있는 것을 민간에서 투침(偷鍼)이라고 한다.

○眼眥生小疱, 細紅點如瘡, 以鍼刺破即差, 故名爲偷鍼, 實解太陽經之結熱也.

○내외자(內外眥)에 작은 물집이 생기는데 작고 붉은 것이 마치 창(瘡)과 같다. 침으로 찔러 터트리면 곧 낫기 때문에 투침(偷鍼)이라고 한다. 이것은 태양경에 뭉친 열을 풀어주는 것이다.

瞼膜 예막

腎膜者, 風熱重則有之, 或癍痘後亦生腎, 此肝氣盛而發在表也, 宜發散而去之, 若反踈利, 則邪氣內蓄, 爲腎益深, 邪氣未定, 謂之熱腎, 而浮邪氣已定, 謂之冰腎, 而沈邪氣牢而深者, 謂之陷腎, 當用煖發之物, 使其邪氣再動, 腎膜乃浮, 佐之以退腎之藥, 而能自去也, 病久者不能速效, 宜以歲月除之.

예막은 풍열이 심할 때 생기며 간혹 반진이나 두진을 앓은 후에도 생긴다. 이것은 간기가 왕성하여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발산시켜서 제거해야 하며 도리어 소통시키면 사기(邪氣)가 내부에 쌓여 예막이 더 깊어진다. 사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열예(熱腎)라 하고, 떠돌던 사기가 고정되면 빙예(冰腎)라 하며, 사기가 침투하여 깊어지면 함예(陷腎)가 된다. 강력하게 발산시키는 약을 써서 사기를 다시 움직이게 하여 예막이 떠오르게 한 후에 예막을 제거하는 약을 써서 저절로 사라지게 해야한다. 병이 오래된 것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제거해야 한다.

眼花 눈에 꽃이 보이는 것

眼見黑花, 乃肝腎俱虛也.

눈에 검은 꽃이 보이는 것은 간신이 모두 허하기 때문이다.

○上虛屬肝虛, 必頭暈目眩耳聾, 下虛屬腎虛, 必眼花睛痛耳鳴.

상허(上虛)는 간허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쩔하며 귀가 들리지 않다. 하허(下虛)는 신허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꽃이 보이고 눈동자가 아프며 귀에서 소리가 난다.

○黑花者, 腎虛也, 五色花爲腎虛客熱也, 青花, 膽虛也, 紅花, 火盛也, 散眵者, 瞳人散大, 視物杳冥也.

검은 꽃이 보이는 것은 신허 때문이다. 오색의 꽃이 보이는 것은 신허로 인해 객열(客熱)이 있는 것이다. 푸른 꽃이 보이는 것은 담허 때문이다. 붉은 꽃이 보이는 것은 화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산묘(散眵)란 것은 눈동자가 크게 퍼지고 사물이 어둡게 보이는 것[杳冥]이다.

眼疼 눈이 아픈 것

目疼有二, 一謂目眥白眼疼, 二謂目珠黑眼疼也, 目眥白眼疼屬陽, 故晝則疼甚, 點苦寒藥則效, 經所謂白眼赤脈, 法於陽, 故也, 目珠黑眼疼屬陰, 故夜則疼甚, 點苦寒藥則反劇, 經所謂瞳子黑眼, 法陰¹⁷, 故也.

눈이 아픈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외자와 흰자위가 아픈 것이고, 둘째는 눈동자와 검은자위가 아픈 것이다. 내외자와 흰자위가 아픈 것은 양에 속하므로 낮에 통증이 심하다. 쓰고 차가운 약을 눈에 넣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經)》에, "흰자위와 적맥(赤脉)은 양을 따른다"고 한 것이다. 눈동자와 검은자위가 아픈 것은 음에 속하므로 밤에 통증이 심하다. 쓰고 차가운 약을 점안하면 도리어 통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경(經)》에, "눈동자와 검은자위는 음을 따른다"고 한 것이다.

○若讀書鍼刺過度而眼痛, 名曰肝勞, 但須閉目調護.

◦독서나 바느질을 많이 하여 눈이 아픈 것을 간로(肝勞)라고 한다. 눈을 감고
조리해야 한다.

眼昏 눈이 어두운 것

五藏精明聚於目, 目精全則目明.

오장의 정명(精明)이 눈에 모이므로 눈의 정이 온전하면 눈이 밝다.

◦目昧不明, 熱也, 然玄府者, 無物不有, 人之藏府、皮毛、肌肉、筋膜、骨髓、爪
牙, 盡皆有之, 乃氣出入升降之道路門戶也, 有所閉塞不能爲用者, 悉由熱氣怫鬱,
玄府閉密, 而致氣液、血脈、榮衛、精神不能升降出入故也, 各隨鬱結微甚, 而爲
病之輕重, 故知熱鬱於目, 則無所見也, 或目昏而見黑花者, 由熱氣甚而發之於目也.

◦눈이 밝지 못한 것은 열 때문이다. 현부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람의 장부、
피모、기육、근막、골수、손발톱、치아에 모두 존재하며, 기가 드나들고 오
르내리는 길이고 문이다. 막혀서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열기가 뭉쳐 현
부를 막아서 기액(氣液)、혈맥、영위、정신이 제대로 오르내리고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기(熱氣)가 뭉친 정도에 따라 병의 경중이 정해진다. 따라
서 열이 눈에 뭉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눈이 어두
워지고 검은 꽃이 보이는 것은 열기가 심하여 눈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老人眼昏 노인의 눈이 어두운 것

人年老而目昏者, 血氣衰而肝葉薄, 膽汁減而目乃昏矣.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혈기가 쇠약해지고 간엽이 얇아지고 담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童子水在上, 故視明瞭, 老人火在上, 故視昏睡.

○어린아이는 수(水)가 위에 있어 눈이 밝고, 노인은 화가 위에 있어 눈이 어둡다.

不能遠視, 不能近視 근시와 원시

能遠視不能近視者, 陽氣有餘, 陰氣不足也, 乃血虛氣盛, 氣盛者, 火有餘也, 能近視不能遠視者, 陽氣不足, 陰氣有餘, 乃氣虛血盛也, 血盛者, 陰火有餘也, 氣虛者, 元氣衰弱也, 此老人桑榆之象也.

먼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양기는 남아돌고 음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혈이 허하고 기가 성한 상태이며, 기가 성한 것은 화가 남아도는 것이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먼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는 남아돌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가 허하고 혈이 성한 것인데, 혈이 성한 것은 음화가 남아도는 상태이며, 기가 허한 것은 원기가 쇠약한 것이다. 이것이 황혼을 맞은 노인의 모습이다.

目不得開合 눈을 감지 못하거나 뜨지 못하는 것

足太陽之筋, 爲目上綱¹⁸, 足陽明之筋爲目下綱¹⁹, 熱則筋縱目不開.

족태양근은 위 눈꺼풀의 줄기가 되고, 족양명근은 아래 눈꺼풀의 줄기가 된다.
여기에 열이 있으면 근이 늘어져 눈을 뜨지 못한다.

眼生眦贅 눈곱이 끼는 것

凡眼有血紅, 或有紅絲及生贅, 此是熱眼.

눈에 붉은 피가 고이거나 실핏줄이 보이며 눈곱이 끼는 것이 열안(熱眼)이다.

○眦多結硬者, 肺實也. 眦稀不結者, 肺虛也.

○눈곱이 많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은 폐가 실한 것이고, 눈곱이 적고 뭉치지 않는 것은 폐가 허한 것이다.

視一物爲兩 하나가 둘로 보이는 것

有人視一物爲兩, 醫作肝氣盛, 服瀉肝藥不驗, 予記靈樞云, 目之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邪中其精, 精散則視岐, 故見兩物, 令服驅風入腦藥得愈.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물건이 둘로 보였다. 의사는 간기가 성하다고 여겨 간기를 사하는 약을 먹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나는 《영추》에, '목계(目系)는 위로 뇌에 이어지고 뒤로 가서 목덜미 가운데로 나온다. 사기(邪氣)가 눈의 정(精)에 적중하면 정이 흩어져서 갈라져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둘로 보인다고 한 내용이 기억났다. 그래서 풍을 몰아내고 뇌로 들어가는 약을 먹게 했더니 나아졌다.

讀書損目 책을 읽어 눈을 상한 것

內經曰, 目得血而能視, 然久視傷血, 亦能損目.

《내경》에, "눈은 혈을 얻어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니 오래 보아서 혈이 상되면 눈이 손상된다.

○久視傷血, 血主肝, 故勤書則傷肝, 肝傷則自生風熱, 熱氣上騰, 致目昏, 不可專服補藥, 宜服益血鎮肝明目藥自愈.

○오래 보면 혈이 손상된다. 혈이 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면 간이 손상되고, 간이 손상되면 저절로 풍열이 발생하여 열기가 위로 올라와 눈이 어두워진다. 보하는 약만 복용해서는 안 되고, 혈을 보하고 간을 누르며 눈을 밝히는 약을 복용해야 저절로 낫는다.

眼病當分表裏虛實 눈병의 표리와 허실

眼之爲病, 在府則爲表, 當除風散熱. 在藏則爲裏, 當養血安神.

눈병이 육부에 있으면 표증이므로 풍을 제거하고 열을 발산시켜야 하며, 오장에 있으면 이증이므로 혈을 기르고 신(神)을 안정시켜야 한다.

○眼疾所因, 不過虛實二者而已, 虛者眼目昏花, 腎經眞水之微也, 實者眼目腫痛, 肝經風熱之甚也, 實則散其風熱, 虛則滋其眞陰, 虛實相因, 則散熱滋陰兼之, 此內治之法也, 至於日久, 熱壅血凝, 而爲攀睛瘀肉、瞖膜赤爛之類, 不假點洗外治之法, 則何由而得痊乎.

○눈병의 원인은 허실의 두 가지 밖에 없다. 허증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꽃이 보인다. 이것은 신경(腎經)의 진수(眞水)가 미미한 것이다. 실증에는 눈이 붓고 아프다. 이것은 간경의 풍열이 심한 것이다. 실증은 풍열을 흠어 주고 허증은 진음(眞陰)을 자양시켜 준다. 허실이 서로 원인이 되면 열을 흠어 주는 것과 음을 길러주는 것을 겸해야 한다. 이것이 내치법이다. 병이 오래되어 열이 막히고 혈이 엉겨서 반정(攀睛)、어육(瘀肉)、예막(腎膜)、적란(赤爛)의 증상이 있을 때는 눈에 약을 넣거나 눈을 씻는 등의 외치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眼病調養 눈병의 조리법

讀書博奕過度, 患目名曰肝勞, 非三年閉目不可治.

독서나 도박을 과도하게 하여 눈병을 앓는 것을 간로(肝勞)라고 한다.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熱摩手心, 熨兩眼, 每二七遍, 使人眼目自無障翳, 明目去風, 無出於此.

○열이 나게 손바닥을 비빈 후 두 눈을 14번 문지르면 저절로 눈에 예장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며 풍이 사라진다. 이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1. 飢 飢 肌 ※동의보감 <

2. 傳 傳 傳 ※동의보감 <

3. 飢 : 肌 ※동의보감 <

4. 羶 : 膾 ※동의보감, 갑완_와에는 羶로 되어있다 ←

5. 瞽 𠬞 瞽 ※동의보감 ←

6. : 物 ※동의보감 ←

7. 相 𠬞 上 ※동의보감 ←

8. 飲酒不已 : 夜間讀書, 飲酒不已 ※《동의보감》←

9. 《동의보감》에서 야간독서(夜間讀書)가 빠진 것이 특이하다 ←

10. 童 𠬞 瞳 ※동의보감 ←

11. 【僉+力】 𠬞 劒 ※《동의보감》←

12. 無血 : 無血色相潮 ※《동의보감》←

13. 日 : 目 ※《동의보감 남산당본》←

14. 育 𠬞 盲 ※《동의보감》←

15. : 經年瞳子如金色, 名曰黃風, 不治. ※동의보감 ←

16. 歸 : 所歸 ※《동의보감》←

17. 法陰 : 法於陰 ※《동의보감》←

18. 網 : 綱 ※《동의보감》←

19. 網 : 綱 ※《동의보감》←



† 耳 귀

耳目受陽氣以聰明 귀와 눈은 양기를 받아야 밝아진다

人之耳目, 猶月之質, 必受日光所加, 始能明, 耳目亦必須陽氣所加, 始能聰明, 是故耳目之陰血虛, 則陽氣之加無以受之, 而視聽之聰明失, 耳目之陽氣虛, 則陰血不能自施, 而聰明亦失, 然則耳目之聰明, 必須血氣相須, 始能視聽也.

달이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비로소 빛나듯이 사람의 귀와 눈도 반드시 양기를 받아야 비로소 밝아진다. 그래서 귀와 눈의 음혈이 허하면 양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귀와 눈이 밝지 않게 되고, 귀와 눈의 양기가 허하면 음혈이 스스로 작용하지 못해서 역시 밝아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은 반드시 혈과 기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밝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耳者, 腎之竅 귀는 신의 구멍이다

內經曰, 腎主耳, 又曰, 腎在竅爲耳.

《내경》에, "신(腎)은 귀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신(腎)의 구멍은 귀다"라고 하였다.

○又曰, 腎藏精, 靈樞曰, 精脫者耳聾, 夫腎爲足少陰之經, 乃藏精而氣通于耳, 耳者, 宗脈之所聚也, 若精氣調和, 則腎藏強盛, 耳聞五音, 若勞傷血, 兼受風邪, 損於腎藏而精脫者, 則耳聾無聞也.

○또 《내경》에 "신은 정을 간직한다"고 하였다. 《영추》에, "정이 몹시 부족하면 귀가 먹는다"고 하였다. 신은 족소음경으로 정을 간직하고 그 기는 귀로 통한다. 귀는 종맥이 모이는 곳이다. 정기가 조화로우면 신장이 강성하여 귀가 오음을 들을 수 있으나, 과도한 노동으로 혈이 손상되고, 아울러 풍사를 받아 신장이 상하면 정이 부족해져 귀가 먹어 들을 수 없게 된다.

脈法 맥법

病耳聾, 脈大者生, 沈細者難治.

귀가 먹었을 경우 맥이 대(大)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침세(沈細)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耳鳴 귀가 우는 것

黃帝曰, 人之耳中鳴者, 何氣使然? 岐伯曰, 耳者, 宗脈之所聚也, 故胃中空則宗脈虛, 宗脈虛則下流, 脈有所竭, 故耳鳴.

황제가, "귀가 우는 것은 어떠한 기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귀는 종맥(宗脈)이 모이는 곳입니다. 위가 비어 있으면 종맥이 허해지고, 종맥이 허해지면 기가 흘러 내려가 맥이 마르기 때문에 귀가 울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

다.

○凡人嗜慾無節, 勞力過度, 或中年之後大病之餘, 腎水枯涸, 陰火上炎, 故耳痒耳鳴, 無日而不作, 或如蟬噪之聲, 或如鍾鼓之聲, 早而不治, 漸至聾聵, 良可嘆哉.

○사람이 욕심을 절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중년 이후에 큰 병을 앓은 뒤에는 신수(腎水)가 마르고 음화(陰火)가 타오른다. 이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귀가 가렵고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매미가 우는 소리나 종소리와 같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귀가 먹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耳聾 귀가 먹는 병

耳聾, 皆屬於熱, 然有左耳聾者, 有右耳聾者, 有左右耳俱聾者, 不可不分, 夫左耳聾者, 足少陽火也, 忿怒之人多有之, 右耳聾者, 足太陽之火也, 色慾之人多有之, 左右俱聾者, 足陽明之火也, 醇酒厚味之人多有之, 總三者而言之, 則忿怒致耳聾者爲多, 厥陰少陽火多故也.

귀가 먹는 것은 모두 열에 속한다. 그러나, 좌측 귀가 먹은 경우, 우측 귀가 먹은 경우, 좌우측 귀가 모두 먹은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치료해야 한다. 좌측 귀가 먹은 것은 족소양에 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내는 사람에게 많다. 우측 귀가 먹은 것은 족태양에 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색을 밝히는 사람에게 많다. 좌우측 귀가 모두 먹은 것은 족양명에 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주(醇酒)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많다.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해보면 성을 내어 귀가 먹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꺾음과 소양에 화가 많기 때문이다.

風聾 풍릉

風聾者, 風邪入耳, 必耳中痒或頭痛.

풍릉은 풍사가 귀에 들어가 반드시 귓속이 가렵거나 머리가 아픈 것이다.

濕聾 습릉

濕聾者, 因雨水入耳浸漬, 必耳內腫痛.

습릉은 빗물이 귀로 들어가서 생긴 것이다. 반드시 귓속이 붓고 아프다.

虛聾 허릉

因久瀉, 或大病後風邪乘虛入耳, 與氣相搏, 嘈嘈而鳴, 或時眼見黑花.

오랜 설사나 중병을 앓은 후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귀로 들어가서 정기(正氣)와 맞부딪쳐 시끄럽게 소리가 나거나, 때로는 눈에 검은 꽃이 보이는 것이다.

勞聾 노릉

經曰, 精脫者耳聾, 其候頰顴色黑, 耳輪焦枯, 受塵垢者是也.

경(經)에, "정이 몹시 부족하면 귀가 먹는다"고 하였다. 그 증후는 뺨과 관골이 검고 귓바귀가 마르며 때가 끼는 것이다.

厥聾 귓멀

暴厥而聾, 偏塞閉不通, 內氣暴薄也.

갑자기 귓멀하여 귀가 먹어 한쪽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기(內氣)가 갑자기 치고 올라온 것이다.

卒聾 졸롱

卒聾者, 腎氣虛, 風邪搏於經絡, 入於耳中.

졸롱은 신기가 허하여 풍사가 경락을 치받아 귓속으로 들어가서 정기(正氣)와 사기가 맞부딪혀 귀가 먹은 것이다.

聾耳 고름으로 귀가 막힌 것

人耳中有津液, 若風熱搏之, 津液結硬, 成核塞耳, 亦令暴聾, 謂之聾耳, 熱氣乘虛, 隨脈入耳, 熱聚不散, 膿汁出焉, 謂之膿耳.

귓속에는 진액이 있는데, 풍열이 들어오면 진액이 굳어 결핵을 형성하여 귀를 막아 갑자기 귀가 먹게 된다.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열기가 허한 틈을 타고 경맥을 따라 귀로 들어가고, 이렇게 모인 열이 흩어지지 않으면 고름이 배출되는데 이를 농이(膿耳)라고 한다.

耳痛成膿耳 귀가 아프다가 고름이 생긴 것

風邪乘少陰之經，入於耳內，熱氣聚則痛而生膿，或風熱上壅，腫痛日久，膿汁流出，皆謂之膿耳，膿不去則塞耳成聾。

풍사가 소음경을 타고 귓속으로 들어가 열기가 모여 아프고 고름이 생기는 것이나, 또는 풍열이 위에서 뭉쳐 오랫동안 붓고 아프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농이(膿耳)라고 한다. 고름이 제거되지 않으면 고름이 귀를 막아 귀가 먹는다.

耳痒 귀 가려움증

有人患耳痒，一日一作，可畏，直挑剔出血稍愈，明日復然，此乃腎藏虛，致浮毒上攻，未易以常法治也。

어떤 사람이 귀 가려움증을 앓았다. 하루에 1번 발작하여 두려워할 만하였고, 곧바로 후벼파서 피를 내면 조금 나았다가 다음날이면 재발하였다. 이것은 신장(腎臟)이 허하여 독이 떠올라 상부를 공격한 것이니 보통 쓰는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렵다.

修養法 수양법

以手摩耳輪，不拘遍數，所謂修其城郭，以補腎氣，以防聾聵也。

귓수에 상관없이 손으로 귓바퀴를 문지른다. 이것을 '성곽(城郭)을 닦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신기(腎氣)를 보해주고 귀가 먹는 것을 막아 준다.

諸蟲入耳 여러 가지 벌레가 귀에 들어간 것

諸蟲入耳不出, 將兩刀於耳門上相磨, 敲作聲, 蟲聞自出, 又將鏡子敲之亦出.

여러 가지 벌레가 귀에 들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귀 옆에서 칼 2개를 서로 갈고 부딪혀 소리를 내면 벌레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나온다. 또, 거울을 두드려도 나온다.

○取車釐脂塗耳孔, 蟲自出.

○바퀴통쇠에 칠해진 기름을 귓구멍에 바르면 벌레가 스스로 나간다.

○藍靑汁滴入耳中, 蟲自死出.

○쪽물을 귓속에 떨어뜨리면 벌레가 저절로 죽어서 나온다.

○川椒末醋浸良久, 取汁灌耳中, 蟲自出.

○천초 가루를 식초에 담갔다가 한참 후에 즙을 내어 귓속에 넣으면 벌레가 스스로 나간다.

○諸蟲及蝨入耳, 白膠香燒煙, 熏入耳, 耳內煖, 蟲自出.

○여러 가지 벌레나 이가 귀에 들어갔을 경우 백교향(白膠香)을 태운 연기를 귀에 쏘이면 귓속이 따뜻해지면서 벌레가 스스로 나온다.

○蟲入耳痛者, 鰻鱺魚膏塗入耳中.

○벌레가 귀에 들어가서 아플 때는 뱀장어 기름을 귓속에 바른다.

○諸蟲入耳, 桃葉熟揅塞耳中, 卽出.

◦여러 가지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경우 삶은 복숭아 잎을 비벼서 귀속을 막으면 벌레가 나온다

◦惡蟲入耳, 桃葉作枕枕之, 蟲自鼻出.

◦나쁜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경우 복숭아 잎으로 베개를 만들어 베면 벌레가 코로 나온다.

◦飛蟲入耳, 好醋滴入耳內, 蟲必死而出.

◦날아다니는 벌레가 귀로 들어갔을 경우 좋은 식초를 귓속에 떨어뜨리면 벌레가 반드시 죽어 나온다.

◦飛蛾入耳, 醬汁灌耳中, 卽出, 又擊銅器於耳傍, 亦出.

◦불나방이 귀에 들어갔을 경우 간장을 귓속에 넣으면 곧 나온다. 또, 귀 옆에서 구리그릇을 두들겨도 나온다.

◦百蟲入耳, 韭汁、葱汁、薑汁、麻油、鷄冠熱血, 隨所得灌耳中, 卽出.

◦온갖 벌레가 귀로 들어갔을 경우 부추즙, 파즙, 생강즙, 참기름, 닭 벼슬의 뜨거운 피 중에서 아무거나 귓속에 넣으면 벌레가 나온다.

† 鼻 코

鼻曰神廬 코는 신려(神廬)라고 한다

黃庭經, 神廬之中當修治, 呼吸廬間入丹田, 神廬者, 鼻也, 乃神氣出入之門也.

《황정경》에, "신려(神廬)의 속을 잘 닦고 다스려야 한다. 신려의 호흡이 단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신려는 코이다. 이것은 신기(神氣)가 드나드는 문이다.

鼻爲玄牝之門戶 코는 현빈(玄牝)의 문이다

老子曰,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爲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勤, 何謂玄牝之門? 答曰, 鼻通天氣曰玄門, 口通地氣曰牝戶, 口鼻乃玄牝之門戶也.

《노자》에, "곡신(谷神)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玄牝)이라고 한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원으로 면면히 이어져 존재하며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엇을 현빈의 문이라고 하는가? 답하기를 "코는 천기와 통하니 현문(玄門)이라 하고, 입은 지기와 통하니 빈호(牝戶)라고 한다. 그러므로 입과 코는 현빈의 문호이다."라고 하였다.

鼻爲肺之竅 코는 폐의 구멍이다

內經曰,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내경》에, "서방의 백색이 폐로 들어가 통하고 코에서 구멍을 연다"고 하였다.

○肺在竅爲鼻.

폐의 구멍은 코이다.

○五氣入鼻, 藏于心肺, 心肺有病, 而鼻爲之不利也.

○오기(五氣)는 코로 들어와서 심폐에 저장되니 심폐에 병이 있으면 코가 막히게 된다.

○難經曰,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矣.

○《난경》에, "폐기는 코와 통하여 있으니 폐가 조화로우면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

脈法 맥법

左寸脈浮緩, 爲傷風, 鼻塞流涕, 右寸脈浮洪而數, 爲鼻衄、鼻齕.

좌촌맥이 부완(浮緩)한 것은 상풍이니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른다. 우촌맥이 부홍(浮洪)하면서 삭(數)하면 코피가 나고 비사(鼻齕)가 된다.

鼻淵 비연

內經曰, 膽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傳爲衄蟻瞑目, 註曰, 膽液下注爲濁涕, 下不已如水泉, 故曰鼻淵也, 久而不已, 必成衄血, 失血多, 故目視瞑暗也.

《내경》에, "담(膽)에서 뇌로 열이 옮겨지면 콧등이 시큰거리고 비연이 생긴다. 비연이란 탁한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변하면 코피가 되고,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였다. 주(註)에, "담액(膽液)이 흘러내리고, 탁한 콧물이 샘솟듯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비연이라 한다"고 하였다. 비연이 오랫동안 안 멎지 않으면 반드시 코피가 나오고, 과다한 출혈로 인해 시야가 어두워진다

鼻鼫 비구

鼫者, 鼻流清涕也.

구(鼫)란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傷風則決然鼻流清涕.

○풍에 상하면 독이 터지듯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러내린다.

○鼻流清涕者, 屬肺寒.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은 폐한(肺寒)에 속한다.

鼻塞 코막힘

鼻塞皆屬肺.

코가 막히는 것은 모두 폐에 속한다.

○寒傷皮毛, 則鼻塞不利, 火鬱清道, 則香臭不知, 新者偶感風寒, 鼻塞聲重, 流涕噴嚏, 久則略感風寒, 鼻塞便發.

○한사가 피모를 상하면 코가 막혀서 잘 통하지 않고, 화가 청도(淸道)에 뭉치면 냄새를 맡지 못한다. 갓 생겼을 경우에는 어쩌다 풍한이 들어오면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난다.

鼻痔 코의 군살

輕爲鼻癰, 重爲鼻痔, 皆肺熱也.

가벼울 때는 비창이 되고, 중할 때는 비치가 된다. 이것은 모두 폐열이다.

○鼻痔者, 肺氣熱極, 日久凝濁, 結成癰肉, 如棗大, 滯塞鼻竅, 甚亦名鼻鼈.

○비치(鼻痔)는 폐기의 심한 열이 오래되어 탁한 것이 엉겨 대추만 한 군살이 생겨서 콧구멍을 막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비옹(鼻鼈)이라고도 한다.

鼻癰 코의 창

鼻中生癰, 乃肺熱也.

콧속에 창이 생기는 것은 폐열이 있기 때문이다.

鼻痛 코가 아픈 것

鼻痛者, 因風邪與正氣相搏, 鼻道不通, 故爲痛.

코가 아픈 것은 풍사와 정기(正氣)가 서로 부딪쳐 비도(鼻道)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鼻齁 비사

鼻齁者, 鼻之準頭紅也, 甚則紫黑, 酒客多有之, 血熱入肺, 鬱久則血凝濁而色赤, 或有不飲酒而紅者, 名曰肺風瘡, 亦是血熱入肺.

비사는 코끝이 붉은 것이다. 심하면 자흑색이 된다. 주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며 혈열이 폐로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울체되어 혈액이 응고되고 탁해지면서 붉은 색을 띤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붉게 되는 경우를 폐풍창이라고 하며 이것도 또한 혈열이 폐에 들어간 것이다.

面鼻紫黑 얼굴과 코가 자흑색인 것

面爲陽中之陽, 鼻居面之中, 一身之血, 運到面鼻, 皆爲至清至精之血, 多酒之人, 酒氣熏蒸, 面鼻得酒, 血爲極熱, 熱血得寒, 汚濁凝滯而不行, 故色爲紫黑, 治宜化滯血, 生新血.

얼굴은 양(陽)의 중심이고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으니 몸 속의 혈 가운데 얼굴과 코에 이르는 것은 모두 지극히 맑고 순수한 혈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기운에 의해 몸이 훈증되고 얼굴과 코가 술기운을 받아 혈이 아주 뜨거워

진다. 뜨거워진 혈이 한을 만나면 더럽고 탁한 피가 엉기고 막혀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흑색을 띤다. 막힌 혈액을 풀어주고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치료해야 한다.

鼻色占病 코의 색으로 병을 아는 법

靈樞曰, 鼻頭色青爲痛, 色黑爲勞, 色赤爲風, 色黃者便難也, 色鮮明者, 有留飲也.

《영추》에, "코끝이 푸르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검으면 피로한 것이다. 붉으면 풍증이고, 누런 색이면 소변을 보기 어렵다. 색이 선명한 것은 유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鼻色青, 腹中痛, 苦冷者死.

○코가 푸르고 배속이 아프며 심하게 차가우면 죽는다.

○鼻頭微白者, 亡血也, 赤者, 血熱也, 酒客多有之.

○코끝이 약간 흰 것은 망혈증이다. 붉은 것은 혈열인데, 대부분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있다.

† 口舌 입과 혀

口曰玉池 입을 옥지(玉池)라고 한다

黃庭經曰, 玉池清水灌靈根, 註曰, 玉池者, 口也. 清水者, 津液也. 靈根者, 舌也.

《황정경》에, "옥지(玉池)의 청수(清水)가 영근(靈根)을 적신다"고 하였다. 주(註)에, "옥지는 입이다. 청수는 진액이다. 영근은 혀다"라고 하였다.

舌屬心 혀는 심에 속한다

內經曰, 心在竅爲舌, 又曰,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舌者, 心之苗也.

《내경》에, "심(心)의 혀의 구멍이다"라고 하였다. 또, "심(心)의 기운은 혀와 통하니 심이 조화로우면 혀가 오미를 안다"고 하였다. 혀는 심장의 싹이다.

○舌爲心之官, 主嘗五味, 以布五藏焉, 心之本脈繫於舌根, 脾之絡脈繫於舌傍, 肝脈循陰器絡於舌本, 腎之津液出於舌端, 分布五藏, 心實主之, 三經爲四氣所中, 則舌卷不能言. 七情氣鬱, 則舌腫不能語, 至如心熱則舌破生瘡, 肝壅則出血如湧, 脾閉則白胎如雪, 此舌之爲病也.

○혀는 심장의 기관으로 오미를 맛보는 것을 주관하고, 여기에 오장이 분포하고 있다. 심의 본맥은 혀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비의 낙맥은 혀 옆에 연결되어 있다. 간맥은 생식기를 따라 올라와 혀뿌리에 이어져 있고, 신(腎)의 진액은 혀

끝으로 나온다. 이와 같이 혀에는 오장이 분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심이 주관한다. 심·비·간의 세 경맥에 사기(四氣)가 적중하면 혀가 말려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칠정으로 기울어지면 혀가 부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심열이 있으면 혀가 터져서 헐고, 간이 막히면 피가 용솟음치듯 나오며, 비가 막히면 눈처럼 혀에 흰 백태가 낀다. 이것이 혀의 병이다.

口唇屬脾 입과 입술은 비에 속한다

內經曰,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故病在舌本, 又曰, 脾主口, 又曰, 脾在竅爲口.

《내경》에, "중앙의 황색은 비장을 통해 들어가고 입에서 그 구멍을 연다. 그래서 병이 혀뿌리에 생긴다"고 하였다. 또, "비는 입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비의 구멍은 입이다"라고 하였다.

○難經曰, 脾氣通於口, 脾和則能知五味矣.

○《난경》에, "비기는 입으로 통하니 비장이 조화로우면 오미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心主舌, 脾主唇口, 心脾二氣, 恒相通也.

○심장은 혀를 주관하고 비장은 입과 입술을 주관하니 심과 비의 기는 항상 서로 통한다.

○唇屬脾, 風則潤動, 寒則掀縮, 熱則乾裂, 血虛則無色, 氣鬱則瘡腫, 唇有病, 則隨證以治脾可也.

◦입술은 비장에 속하니 비장에 풍이 있으면 입술이 떨리고, 한(寒)이 있으면 들리거나 오그라들며, 열이 있으면 마르고 갈라진다. 혈이 허하면 색이 없어지고, 기가 울체되면 창이 나고 붓는다. 그러므로 입술에 병이 있으면 증에 따라 비를 치료하는 것이 좋다.

◦六府之華, 在唇四白.

◦육부의 상태는 입술 주위에 나타난다.

脈法 맥법

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 膽虛口苦, 洪實則肝熱口酸, 右關沈實, 脾熱口甘, 洪數則口瘡, 或爲重舌、木舌.

좌촌맥이 홍삭(洪數)하면 심열로 입이 쓰고, 우촌맥이 부삭(浮數)하면 폐열로 입이 맵다. 좌관맥이 현삭(弦數)하면 담허(膽虛)로 입이 쓰고, 홍실(洪實)하면 간열로 입이 시다. 우관맥이 침실(沈實)하면 비열로 입이 달고, 홍삭(洪數)하면 입이 헐거나 중설(重舌)·목설(木舌)이 된다.

◦口舌生瘡, 脈洪疾速, 若見脈虛, 中氣不足.

◦입이나 혀가 헐면 맥이 홍(洪)하고 빠르며 만약 맥이 허(虛)하면 중기(中氣)가 부족한 것이다.

口舌主五味 입과 혀는 오미를 주관한다

心氣通於舌, 能知五味. 脾氣通於口, 亦能知五穀之味.

심기는 혀와 통하여 오미를 알고, 비기는 입과 통하여 오곡의 맛을 안다.

○口之味, 熱勝則苦, 寒勝則鹹, 宿食則酸, 煩燥則澁, 虛則淡, 疸則甘, 勞鬱則口臭, 凝滯則生瘡, 口之津液, 通乎五藏, 藏氣偏勝, 則味應乎口.

○입맛은 열이 심하면 쓰고, 한이 심하면 짜다. 속식(宿食)이 있으면 시고, 번조하면 뚱다. 허하면 담담하고, 황달이 있으면 달다. 피로가 쌓이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뭉쳐서 막히면 입이 험다. 입의 진액은 오장과 통하니 오장의 기가 치우치면 그 맛이 입에 나타난다.

○傷胃陽虛, 則口中無味. 傷腎陰虛, 則口中有味.

○위(胃)를 상하여 양허하면 입맛이 없고, 신(腎)을 상하여 음허하면 입맛이 있다.

口酸 입이 신 것

肝熱則口酸, 木乘脾, 口亦酸.

간열이 있으면 입이 시고, 목(木) 기운이 비를 눌러도 입이 시다.

口苦 입이 쓴 것

心熱則口苦, 或生瘡.

심장에 열이 있으면 입이 쓰거나 입이 험다.

○內經曰, 有病口苦者, 名曰膽瘴, 此人數謀慮不決, 故膽虛氣上溢, 而口爲之苦.

○《내경》에, "병이 있어 입이 쓴 것을 담단(膽瘧)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자주 일을 계획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담이 허약해지고 기가 위로 넘쳐 입이 쓰다"고 하였다.

口甘 입이 단 것

脾熱則口甘或臭.

비장에 열이 있으면 입이 달거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

○內經曰, 有病口甘者, 病名爲何? 此土¹氣之溢, 名曰脾瘕, 瘕者, 熱也.

○《내경》에, "병이 있어서 입이 단 것은 병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기(五氣)가 넘친 것으로 비단(脾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단(瘕)은 열을 의미한다.

○胃熱則口甘, 胃虛則口淡.

○위열이 있으면 입맛이 달고, 위허하면 입맛이 담담하다.

口辛 입이 매운 것

肺熱則口辛喉腥.

폐열에는 입이 맵거나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난다.

口鹹 입이 짠 것

腎熱則口鹹.

신열(腎熱)에는 입이 짜다.

口臭 입 냄새

口臭者, 胃熱也, 此虛火鬱熱, 蘊於胸中, 乃作口臭.

입 냄새는 위열이 있는 것이다. 허화나 울열이 가슴 속에 쌓이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口糜 입이 짓무른 것

內經曰, 膀胱移熱於小腸, 膈²腸不便, 上爲口糜.

《내경》에, "방광에서 소장으로 열이 옮겨지면 장이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고 위로는 입이 짓무른다"고 하였다.

唇腫唇瘡 입술이 붓거나 헉 것

唇舌焦燥, 口破生瘡, 蓋心脾受熱所致也.

입술과 혀가 마르고 입안이 터져서 헉은 것은 심비가 열을 받았기 때문이다.

蠶唇 건순

口唇緊小, 不能開合, 飲食不得, 不急治則死, 此亦奇病, 名曰蠶唇, 又曰緊唇, 亦曰瀕唇.

입술이 조여들어 벌리거나 다물지 못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드문 병으로 견순(繭脣)이라고 한다. 긴순(緊脣)이라고 하거나 심순(瀋脣)이라고도 한다.

舌腫 혀가 붓는 것

舌腫滿, 口, 氣不得吐者, 名曰木舌.

혀가 부어 입을 가득 채워서 숨을 내쉴 수 없게 된 것을 목설(木舌)이라 한다.

○木舌者, 舌腫³大, 漸漸腫硬滿口, 不急治即塞, 殺人也.

○목설은 혀가 부어서 굽어지고, 점점 붓고 단단해져 입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된다.

重舌 중설

附舌根而重生小舌, 謂之重舌,

작은 혀가 혀뿌리에 붙어서 두 겹으로 자라나는 것을 중설이라고 한다.

其着頰裏及上齦如此者, 名曰重齦, 其着齒齦上如此者, 名曰重齦, 皆刺之去血可也.

이와 같은 것이 뺨 속이나 상악에 붙은 것을 중악(重腭)이라고 하고, 잇몸에 붙은 것을 중은(重齦)이라고 한다. 모두 침으로 찔러 피를 제거해야 한다.

舌長舌短 혀가 늘어나거나 짧아지는 것

舌吐不收, 名曰陽強, 舌縮不能言, 名曰陰強.

혀를 내밀고 다시 집어넣지 못하는 것을 양강(陽強)이라고 하고, 혀가 오그라들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음강(陰強)이라고 한다.

○傷寒熱病後, 犯房得病, 名曰陰陽易, 舌出數寸而死.

○상한으로 열병을 앓은 후 성생활로 병을 얻은 것을 음양역(陰陽易)이라고 한다. 혀를 몇 치 늘인 채로 죽는다.

舌上生胎 혀에 태가 생기는 것

舌者心之官, 法應南方火, 本紅而澤, 傷寒邪氣在表者, 舌即無胎, 及邪氣傳裏, 津液結搏, 則舌上生胎矣.

혀는 심의 기관으로 남방의 화(火)에 대응하여 본래 붉고 윤택하다. 상한의 사기가 겉에 있으면 혀에는 태가 없고, 사기가 속에 들어가서 진액이 막히면 혀에 태가 생긴다.

○舌上胎滑者, 以丹田有熱, 胸中有寒, 邪氣初傳入裏也.

○설태가 매끄러운 것은 단전에는 열이 있고 가슴속에는 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기가 내부로 막 들어간 것이다.

○腎虛有火, 是爲無根虛火, 舌色淡黑一二點, 用補腎降火之藥.

○신허로 인한 화는 뿌리가 없는 허화이므로 혀에 1 - 2개의 열은 검은 점이 있을 때는 신(腎)을 보하고 화를 내리는 약을 쓴다.

舌生芒刺 헛바늘이 돋는 것

舌生芒刺, 結熱甚也.

헛바늘이 돋는 것은 열이 심하게 뭉쳤기 때문이다.

視唇舌占病 입술과 혀를 보고 병을 아는 법

脾肺病久則虛而唇白, 脾者肺之母, 母子皆虛, 不能相營, 故名曰怯, 脾主唇, 唇白而光澤者吉, 白如枯骨者死.

비폐의 병이 오래되면 허하여 입술이 하얗게 된다. 비는 폐의 어머니로 모자(母子)가 모두 허해져 서로 도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겁(怯)이라고 한다. 비는 입술을 주관한다. 입술은 희어도 윤기가 있으면 예후가 좋고, 마른 뼈처럼 희면 죽는다.

○血氣虛怯, 爲冷所乘, 則唇青, 又額黑唇青爲寒.

○혈기가 허겁(虛怯)하고 차가운 기운에 눌리면 입술이 파랗게 된다. 또한 이마가 검고 입술이 푸른 것은 한증이다.

小兒口舌病 소아의 입과 혀의 병

小兒弄舌者, 脾藏有微熱, 令舌絡微緊, 故時時舒舌出也. ○若大病後弄舌者凶.

소아의 농설(弄舌)은 비장에 미열이 있어 혀의 경락이 약간 긴장되어 생긴다. 수시로 혀를 내밀게 된다. ○중병을 앓은 후 농설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1. 土 𠂔 五 ※《동의보감》↩

2. 膈 𠂔 隔 ※《동의보감》↩

3. 麤 : 麤 ※동의보감 ↩



† 齒牙 치아

齒者, 骨之所終, 髓之所養, 腎主之¹, 故經云, 腎衰則齒豁, 精盛則齒堅, 虛熱則齒動.

치아는 뼈가 끝나는 곳으로 골수가 길러주며 신이 주관한다. 그래서 경(經)에, "신(腎)이 쇠하면 치아가 벌어지고, 정(精)이 왕성하면 치아가 든든해지며, 허열이 있으면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였다.

齒病惡寒惡熱 잇병으로 찬것이나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것

足陽明胃絡脈入齒上縫, 其病喜寒飲而惡熱飲, 手陽明大腸絡脈入齒下縫, 其病喜熱飲而惡寒飲.

족양명위경의 낙맥은 윗잇몸으로 연결된다. 병이 들면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고 뜨거운 음료를 싫어한다. 수양명대장경의 낙맥은 아랫잇몸으로 연결된다. 병이 들면 뜨거운 음료를 좋아하고 차가운 음료를 싫어한다.

○熱牙痛怕冷水, 冷牙疼怕熱水, 不怕冷熱, 乃風牙痛.

○열로 생긴 치통은 찬물을 싫어하고, 한(寒)으로 생긴 치통은 뜨거운 물을 싫어한다.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풍으로 생긴 통증이다.

牙齒盛衰 치아의 성쇠

內經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三七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三八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五八腎氣衰, 髮墮齒枯, 八八則齒髮去, 去謂落也.

《내경》에, "여자는 7세에 신기(腎氣)가 성숙해져서 치아를 갈고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21세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어 사랑니가 나고 다 자란다. 남자는 8세에 신기가 실해져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치아를 간다. 24세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니 사랑니가 나고 다 자란다. 40세에는 신기가 쇠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마른다. 64세에는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말이다.

牙齒異名 치아의 이명

口前兩大齒謂之板齒, 其兩傍長者謂之牙, 通謂之齒, 其牙齒之根謂之齦, 亦曰床².

입의 앞쪽에 있는 2개의 큰 치아를 앞니[板齒]라고 하고, 그 양 옆의 긴 치아를 아(牙)라고 한다. 통틀어 치(齒)라고 한다. 치아의 뿌리를 잇몸[齦]이라고 하는데 아상(牙床)이라고도 한다.

脈法 맥법

右關脈洪數或弦而洪, 腸胃中有風熱牙痛, 尺脈洪大而虛者, 腎虛, 主齒動踈豁, 相火上炎而痛.

우관맥이 홍삭(洪數)하거나 현(弦)·홍(洪)한 것은 장위의 풍열이 있어 치통이 생긴 것이다. 척맥이 홍대(洪大)하면서 허한 것은 신허(腎虛)로 주로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며 상화가 타올라서 통증이 생긴다.

牙齒痛有七 일곱 가지 치통

牙齒之痛, 因胃中濕熱上出於牙齦之間, 適被風寒或飲冷所鬱, 則濕熱不得外達, 故作痛也, 寒是標, 故外用辛溫擦漱之藥, 熱是本, 故內服辛涼散熱之劑.

치통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胃) 속의 습열이 올라와 치아와 잇몸 사이로 나왔을 때 풍한에 맞거나 찬것을 마셔서 길이 막혀 습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한(寒)은 표(標)에 해당하므로 외용으로는 맵고 따뜻한 약으로 치아를 문지르거나 양치하고, 열(熱)은 본(本)이 되니 안으로는 맵고 차가운 약을 복용하여 열을 흩어준다.

\$\$\$\$\$

風熱痛 풍열통

風熱者, 外風與內熱相搏, 齒根³痛, 膿汁臭穢.

풍열통은 외풍과 내열이 맞부딪쳐 잇몸이 아프며 고름물로 악취가 나는 것이다.

風冷痛 풍랭통

風冷者, 齒齦不腫不蛀, 日漸動搖.

풍랭통은 잇몸이 붓지 않고 충치가 없지만 점점 치아가 흔들리는 것이다.

熱痛 열통

熱痛者, 腸胃積熱, 齒齦腫爛, 口氣臭穢.

열통은 장위의 적열로 잇몸이 붓고 짓무르며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寒痛 한통

客寒犯腦, 頭連齒痛,

한사가 뇌에 들어와 머리에서 치아까지 아픈 것이다.

此證與厥逆頭痛同, 當參看.

이 증상은 궤역두통의 증상과 같으니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毒痰痛 독담통

熱則生痰, 毒氣上攻, 灌注經絡, 最能發痛, 外證痰盛咳唾.

열이 있으면 담(痰)이 생기고, 그 독기가 위로 치밀어 경락에 들어가면 통증이 생기기 쉽다. 그 증상은 가래가 많고 기침하며 침을 뱉는 것이다.

瘀血痛 어혈통

風熱挾攻齦間, 令血出瘀滯不消, 掣痛鑽刺.

풍열이 잇몸을 공격하여 피가 나고, 막힌 어혈을 삭이지 못하여 당기고 아프며,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蟲蝕痛 충식통

凡人飲食, 不能潔齒, 腐臭之氣, 淹漬日久, 齒齦有孔, 蟲蝕其間, 蟲蝕一齒盡, 又度其餘, 至如疳蠹, 皆其種類, 必殺蟲而後痛止.

음식을 먹고 치아를 청결히 하지 않아 오랫동안 썩은 냄새가 나고 잇몸에 구멍이 생긴 것은 벌레가 치아 사이를 파먹었기 때문이다. 치아 하나를 다 먹으면 다른 치아로 건너가 감늑(疳蠹) 같이 되는데, 모두 이러한 종류이다. 반드시 벌레를 죽여야 통증이 멎는다.

牙齒動搖 치아가 흔들리는 것

齒齦宣露動搖者, 腎元虛也.

이 뿌리가 드러나 흔들리는 것은 신원(腎元)이 허하기 때문이다.

牙齒漸長 치아가 점점 자라는 것

牙齒逐日漸長, 開口難爲飲食, 此⁴髓液溢所致.

치아가 날마다 점점 자라나 입을 벌리고 있으며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것은 수액(髓液)이 넘쳤기 때문이다.

齧齒 이갈이

凡人睡中, 上下齒相磨切有聲, 謂之齧齒, 亦曰戛齒, 亦曰咬齒.

사람이 자면서 위아래의 치아를 서로 갈아 소리를 내는 것을 개치(齧齒)라고 한다. 알치(戛齒)라고도 하고 교치(咬齒)라고도 한다.

食酸齒齲 신 것을 먹어서 치아가 시린 것

人多食酸則齒軟, 謂其水生木, 水氣弱, 木氣盛, 故如是, 細嚼胡桃肉解之.

신맛을 많이 먹으면 치아가 연해진다. 수는 목을 낳는데, 수기는 약하고 목기는 왕성하기 때문이다. 호두살을 꼭꼭 씹으면 낫는다.

1. 腎主之：腎實主之 ※동의보감 ←

2. 床 牙床 ※동의보감 ←

3. 痛：腫痛 ※《동의보감》 ←

4. 此：盖 ※《동의보감》 ←



† 咽喉 인후

靈樞曰, 咽喉者, 水穀之道也, 喉嚨者, 氣之所以上下者也, 會厭者, 音聲之戶也, 懸雍者, 音聲之關也.

《영추》에, "인후는 수곡의 통로이다. 후릉(喉嚨)은 기가 오르내리는 곳이다. 회염(會厭)은 목소리가 나오는 문이다. 목젖은 목소리가 나오는 관문이다"라고 하였다.

○咽者胃之系, 喉者肺氣所通, 咽以嚥物, 喉以候氣, 理一而分殊也.

○인(咽)은 위(胃)와 이어져 있고, 후(喉)는 폐기가 흐르는 곳이다. 인으로 음식물을 삼키고 후로 공기를 맞이한다. 원리는 동일하지만 그 역할은 다른 것이다.

咽喉會厭與舌, 其用不同 인·후·회염·혀의 작용은 다르다

咽與喉, 會厭與舌, 此四者同在一門, 而其用各異, 喉以納氣, 故喉通於天, 咽以納食, 故咽氣通於地, 會厭管于¹其上, 以司開闔, 掩其喉則其食下, 不掩之則其喉錯, 必舌抵上齶, 則會厭能開其喉矣, 四者交相爲用, 闕一則飲食廢而死矣.

인(咽)·후(喉)·회염(會厭)·혀, 이 4가지는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그 작용은 각각 다르다. 후두는 숨을 받아들이니 숨구멍의 기운은 하늘과 통한다. 인은 음식을 받아들이니 식도의 기운은 땅과 통한다. 회염은 인과 후의 위쪽에서 열

고 달는 것을 조절한다. 후두를 덮으면 음식이 내려가고 후두를 덮지 않으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데, 반드시 혀가 윗잇몸에 닿아야 회염이 숨구멍을 열 수
있다. 이 4가지는 서로 도우며 작용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
어 죽게 된다.

脈法 맥법

兩寸脈浮洪而溢者, 喉痺也, 脈微而伏者死.

양 촌맥이 부홍(浮洪)하면서 넘치는 것은 후비(喉痺)이다. 맥이 미(微)하면서
복(伏)하면 죽는다.

○咽喉之脈, 兩寸洪溢, 上盛下虛, 脈忌微伏.

○인후의 맥은 양 촌맥이 홍(洪)하면서 넘치니 상성하허(上盛下虛)이다. 맥이
미(微)、복(伏)하면 조심해야 한다.

咽喉之病, 皆屬火 인후병은 모두 화에 속한다

內經曰, 一陰一陽結, 謂之喉痺, 註曰, 一陰謂心主之脈, 一陽謂三焦之脈也, 三焦心
主脈竝絡喉, 氣熱內結爲喉痺,

《내경》에, "일음일양이 뭉친 것을 후비라 한다"고 하였다. 주(註)에, "일음은
심포의 맥이고 일양은 삼초의 맥이다. 삼초와 심포맥은 모두 후(喉)와 이어지
니 열기가 안에서 뭉치면 후비가 된다"고 하였다.

咽喉之疾, 皆屬火熱, 雖有數種之名, 輕重之異, 乃火之微甚故也, 微以²輕者, 可以緩治, 甚而急者, 惟用砭刺出血, 最爲上策.

인후병은 모두 화열에 속한다. 인후병은 몇 가지 이름이 있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화가 미약한가 심한가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미약하고 가벼우면 천천히 치료해도 되지만, 심하고 급하면 침으로 찔러 피를 내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單乳蛾雙乳蛾喉痺 단유아·쌍유아·후비

會厭之兩傍腫者, 俗謂之雙乳蛾, 易治, 會厭之一邊腫者, 俗謂之單乳蛾, 難治, 古方通謂之喉痺, 皆相火之所衝逆耳.

회염의 양쪽 옆이 부은 것을 민간에서는 쌍유아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쉽다. 회염의 한쪽 옆이 부은 것을 민간에서는 단유아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고방에서는 모두 후비라고 하였다. 모두 상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일 뿐이다.

○纏候³風喉閉之證, 皆由隔⁴間素有痰涎, 或因酒色七情不節, 而作, 火動痰上, 壅塞咽喉, 所以內外腫痛, 水漿不入, 可謂危且急矣.

○전후풍(纏候風)이나 후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다. 흥격 사이에 원래 담연이 있다가 주색이나 칠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화가 동하니 담이 따라 올라와서 인후를 막는다. 그래서 안팎이 붓고 아파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위급한 것이다.

急喉痺 급후비

夫喉之爲會厭者, 經謂之吸門是也, 以其司呼吸, 主升降, 爲人身緊關之橐籥門戶也, 若夫卒然腫痛, 水漿不入, 言語不通, 死在須臾, 誠可驚駭, 宜速用鍼法吐法以救之.

목구멍의 회염(會厭)을 경(經)에서는 흡문(吸門)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호흡을 담당하고 기를 오르내리게 하기 때문에 몸의 중요한 관문이며 호흡을 돕는 풀무이자 출입구이다. 갑자기 붓고 아프면 물도 넘기지 못하고 말이 나오지 않아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이다. 빨리 침법이나 토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纏喉風 전후풍

纏喉風, 自耳邊過頤下赤色⁵者是也, 大槩內外皆腫者, 爲纏喉風.

전후풍은 귀 옆에서 턱 아래까지 벌겋게 된 것이다. 대개 안팎이 모두 부은 것이 전후풍이다.

○纏喉風之證, 先兩日胸膈⁶, 出氣短促, 忽然咽喉腫痛, 手足厥冷, 氣閉不通, 頃刻不治.

○전후풍의 증상은 처음 2일 동안 흉격이 긴장되어 내쉬는 숨이 짧고 급하다가 갑자기 인후가 붓고 아프며 손발이 차고 숨이 막혀 통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

懸雍垂 목젖이 부어 아래로 늘어진 병

懸雍生於上齶⁷, 雖不關於咽喉, 所以暴腫者, 抑亦熱氣使然也.

목젖은 입천장에서 나온다. 인후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목젖이 갑자기 붓는 것 역시 인후의 열기(熱氣) 때문이다.

梅核氣 매핵기

七情氣鬱, 結成痰涎, 隨風⁸積聚, 堅大如塊, 在心膈間⁹, 或塞咽喉, 如梅核粉絮樣, 咯不出, 嚥不下, 每發欲絕, 逆害飲食.

칠정(七情)으로 기(氣)울이 되어 뭉치면 담연(痰涎)이 생긴다. 이 담연이 기를 따라 돌덩이처럼 쌓여 단단해지고 커진다. 이것이 명치에 있다가 인후를 막기도 하는데, 매화 씨나 흰 솜뭉치 모양과 같다.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 해도 내려가지 않으며, 발작할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하고 구역질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

穀賊 곡적

穀賊者, 穀芒強澁, 藏於米而誤食之, 滯於咽門, 不能傳化, 故風熱併聚, 與血氣搏, 遂令腫刺也, 不急治能殺人.

곡적이란 낱알에 섞여 있는 억세고 갈갈한 까끄라기를 잘못 먹어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은 채로 풍열이 몰려 혈기와 싸워 붓고 찌르는 듯이 아프게 된 것을 말한다.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誤吞稻麥芒在咽間不下, 急取鵝口中涎灌之, 卽下, 蓋鵝涎能化穀也.

○잘못하여 벼나 보리의 까끄라기를 삼켜 목구멍에서 내려가지 않을 때는 급히 거위 입 속에 있는 침으로 적셔 주어야 내려간다. 거위의 침은 곡식을 삭일 수 있기 때문이다.

咽喉痛 인후통

咽喉乾枯, 常如毛刺, 吞嚥有礙¹⁰者, 風燥也.

인후가 말라서 늘 털로 찌르는 것 같고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것은 풍과 건조 때문이다.

天行喉痺 유행병으로 후비가 된 것

喉痺一鄉皆相似者, 屬天行運氣之邪, 大忌酸藥點之, 寒藥下之, 鬱其邪於內, 不得出也.

후비가 한 마을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유행병이거나 운기로 인한 사기(邪氣) 때문이다. 신맛이 나는 약을 찍어 바르거나 찬 성질의 약으로 설사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기가 속에서 울체되어 나가지 못한다.

咽喉急閉宜吐 인후가 갑자기 막힌 때는 토하게 해야 한다

凡喉痺勿論大人小兒, 非吐不可. 如膽礬、石綠之類爲末, 薄荷汁入醋同調, 以鷄翎蘸藥, 送入喉內, 徐徐引痰吐出爲佳.

후비는 성인이나 소아나 상관없이 토법을 써야 한다. 담반이나 석록 같은 것을 가루내어 박하즙을 넣은 식초와 함께 섞는다. 닭의 깃털에 이 약을 적셔 목구멍 안쪽에 천천히 대어서 담(痰)을 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魚骨鯁 물고기 가시가 목에 걸린 것

凡魚鯁在咽不下, 用玉屑無憂散.

생선뼈나 가시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을 때는 옥설무우산(玉屑無憂散)을 쓴다.

獸骨鯁¹¹ 짐승의 뼈가 목에 걸린 것

在咽不下, 象牙磨水嚥下, 梳笏皆可用.

짐승의 뼈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을 때는 상아를 간 물을 삼킨다. 상아로 만든 빗이나 흘(笏)도 모두 쓸 수 있다.

誤吞諸物 여러 가지 물건을 잘못 삼킨 것

誤吞金銀物在腹中, 取水銀服之, 令消烔出也,

금이나 은으로 된 물건을 잘못 삼켜서 뱃속에 있을 경우 수은을 먹으면 녹아서 나온다.

金見水銀則如泥, 故吞金銀物者, 服半兩即消出.

금은 수은을 만나면 진흙처럼 된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으로 된 물건을 삼켰을 경우 수은 반 냇을 먹으면 녹아서 나온다.

誤吞諸蟲 여러 가지 벌레를 잘못 삼킨 것

誤吞蜈蚣在喉, 悶甚, 急取生豬血令病人吃, 須臾以清油灌口中, 其蜈蚣滾在血中, 卽吐出, 繼以雄黃末水調服, 解其毒.

지네를 잘못 삼켜 목에 걸려 매우 답답할 때는 급히 돼지의 생피를 환자에게 마시게 한다. 잠시 후 식용유를 입 속에 넣어주면 피 속에서 놀던 지네를 토해 낸다. 이어 옹황 가루를 물에 타 복용하여 독을 푼다.

1. 于：乎 ※《동의보감》↩

2. 以 而 ※《동의보감》↩

3. 候 喉 ※《동의보감》↩

4. 隔 膈 ※《동의보감》↩

5. 色：免 ※《동의보감》 초간본, 갑완_와에는 色으로 되어 있다. ↩

6. 緊：氣緊 ※동의보감 ↩

7. 齧：腭 ※동의보감 ↩

8. 隨風 隨氣 ※《동의보감》↩

9. 腸間 腹間 ※《동의보감》↩

10. 礙 : 碍 ※《동의보감》↩

11. 鯁 : 梗 ※동의보감 ↩



† 頸項 경항

前曰頸, 後曰項,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 二次手陽明之脈, 名曰扶突, 三次手太陽之脈, 名曰天窓, 四次足少陽之脈, 名曰天容, 五次手少陽之脈, 名曰天牖, 六次足太陽之脈, 名曰天柱, 七次項中央督脈, 名曰風府.

목 앞쪽을 경(頸)이라 하고, 뒤쪽을 항(項)이라고 한다. 결분(缺盆)의 가운데는 임맥에 속하는데 천돌(天突)이라고 한다. 임맥에서 옆으로 첫 번째 맥이 뛰는 곳이 족양명에 속하는데 인영(人迎)이라고 한다.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수양명에 속하는 맥인데 부돌(扶突)이라고 한다.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수태양에 속하는 맥인데 천창(天窓)이라고 한다.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족소양에 속하는 맥인데 천용(天容)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에 있는 것은 수소양에 속하는 맥인데 천유(天牖)라고 한다. 여섯 번째에 있는 것은 족태양에 속하는 맥인데 천주(天柱)라고 한다. 일곱 번째에 있는 것은 목덜미 중앙의 독맥에 속하는데 풍부(風府)라고 한다.

項強 목덜미가 뻣뻣한 것

諸瘧項強, 皆屬於濕.

모든 경병(瘧病)으로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것은 모두 습에 속한다.

○項強卒口噤, 背反張爲瘥.

○목덜미가 뻣뻣하고 갑자기 이를 악물며 등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치병(瘥病)이다.

○頸項乃足太陽膀胱之經, 足少陰腎經, 與膀胱經爲表裏, 故太陽感風濕, 爲頸項強痛, 身腰反張爲瘥.

○목은 족태양방광경에 속하고, 족소음신경은 방광경과 표리가 된다. 그러므로 태양경이 풍습을 받으면 목이 뻣뻣하고 아프며 허리가 뒤로 젖혀진다. 이것이 치병이다.

項軟 항연

項軟者, 天柱骨倒也, 宜用健骨散、生筋散. ○小兒久患疳疾, 體虛不食, 及諸病後天柱骨倒, 醫者不識, 謂之五軟.

항연이란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것이다. 건골산·생근산을 써야 한다. 소아가 감질(疳疾)을 오래 앓아 몸이 허하고 먹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병을 앓은 후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연(五軟)이라고 한다.

† 背 等

問背後三關. 答曰,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乃精氣升降之道路也.

몸 뒷면의 삼관이란 무엇인가? 뒷머리를 옥침관이라 하고, 척추 양 옆을 녹로관이라 하고, 수화가 만나는 곳을 미려관이라 한다. 삼관은 모두 정기가 오르내리는 도로이다.

背爲胸府 등은 가슴의 집이다

背者, 胸中之府, 背曲肩隨, 胸將壞矣.

등은 가슴의 집이다.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면 가슴이 무너지려는 것이다.

背寒 등이 시린 것

內伏寒痰, 則寒從背起, 冷如掌大.

안으로 한담이 숨어들면 한기가 등으로부터 일어나 손바닥만 한 부분이 시리다.

○凡人每日背上一條如線而寒起者, 痰也, 宜吐下之.

○매일 등에서 한기가 실처럼 한 줄로 일어나는 것은 담이 있기 때문이다. 토법이나 하법을 써야 한다.

○背寒有陰有陽, 傷寒小陰證, 背惡寒者, 口中和. 陽明證, 背惡寒者, 口中乾燥, 此寒熱之辨也.

○등이 시린 것에는 음증과 양증이 있다. 상한소음증으로 등에 오한이 날 때는 입안이 편안하고, 양명증으로 등에 오한이 날 때는 입안이 마른다. 이것으로 한열을 구분할 수 있다.

背熱 등에 열이 나는 것

背熱屬肺, 肺居上焦, 故熱應於背.

등에 열이 나는 것은 폐에 속한다. 폐가 상초에 있기 때문에 등에서 열이 나는 것이다.

背痛 등의 통증

肩背痛屬肺分野, 內經曰, 西風生於秋, 病在肺, 俞在肩背, 故秋氣者, 病在肩背, 又曰, 秋脈太過, 則令人逆氣背痛愠愠然.

견배통은 폐의 분야이다. 《내경》에, "서풍은 가을에 발생하고, 병은 폐에 있고, 관련 부위는 어깨와 등에 있다. 따라서 가을 기운으로 인한 병은 등과 배에 생긴다"고 하였다. 또, "추맥(秋脉)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기가 거슬러 올라 등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였다.

○肺病者, 喘咳逆氣, 肩背痛, 汗出, 又曰, 邪在腎, 則病肩背頸項痛.

○폐에 병이 들면 숨이 차고 기침하며, 기가 거슬러 올라 견배통이 생기고 땀이 난다. 또한 사기가 신(腎)에 있어도 견배와 경향이 아프다.

○一男子患胛縫¹, 有一線痛起上肩跨至胸前側脅而止, 其痛晝夜不歇, 診其脈弦而數, 重取豁大, 左大於右, 予意背胛, 小腸經也, 胸脅, 膽經也, 此必思慮傷心, 心藏未病, 而小腸府先病, 故痛從肩胛起, 及慮不能決, 乃歸之膽, 故痛至胸脅而止, 乃小腸火乘膽木, 子來乘母, 是爲實邪, 詢之, 果因謀事不成而病.

○한 남자가 어깨죽지 아래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로 올라가 가슴과 옆구리까지 이어졌으며, 통증은 밤낮으로 멎지 않았다. 맥을 짚어보니 현삭(弦數)하고, 더 깊게 누르자 대맥(大脉)이 나타났으며, 좌측 맥이 우측보다 강하게 뛰었다. 건갑골에는 소장경이 지나고, 흉협에는 담경이 지난다. 이번 경우는 과도한 생각으로 심을 상하였는데 심장은 병들지 않고 소장이 먼저 병들어 건갑골에 통증이 생긴 것이다. 또한, 결단하지 못한 채 생각만 지속하여 담(膽)에 영향을 미쳐 그 통증이 가슴과 옆구리까지 이른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것은 소장의 화가 담목을 누른 것이다. 자(子)가 모(母)를 누른 격으로 실사(實邪)이다. 환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과연 생각하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병이 생긴 것이었다.

脊強 척추가 뻣뻣해지는 것

脊痛, 項強, 背痛, 不可回顧, 此足太陽、手太陽經中濕氣鬱不行也.

척추가 아프고 목덜미가 뻣뻣하며, 등이 아파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족태양경과 수태양경에 습기가 뭉쳐 기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背偻 구루

腰脊間骨節突出,亦是中濕,內經曰,濕熱不攘,大筋繆短,小筋弛長,繆短爲拘,弛長爲痿,註曰,大筋受熱,則縮而短,小筋得濕,則引而長,是故背偻而骨節突出也.

요추의 관절이 튀어나온 것도 증습에 속한다. 《내경》에, "습열이 제거되지 않으면 큰 근은 짧아지고 작은 근은 늘어진다. 짧아진 것은 오그라든 것이고 늘어진 것은 위병(痿病)이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큰 근은 열을 받아 수축되어 짧아지고, 작은 근은 습을 받아 늘어나서 길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등이 구부러지고 관절이 튀어나온 것이다.

1. 胛縫 : 背胛縫 ※《동의보감》↔

† 胸 가슴

胸膈之名有義 흉격의 뜻

夫人之胸者, 呼吸之所經, 飲食之所過, 一或失節, 則疾病邪氣交至於胸中, 乃有凶之兆, 故謂之胸也.

사람의 가슴은 호흡이 지나가는 곳이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니, 절도를 잃게 되면 질병과 사기가 번갈아 가슴으로 들어와 나쁜 징조[凶兆]가 생기기 때문에 흉(胸)이라고 한다.

胸膈部位 흉격의 부위

胸腹者, 藏府之郭也, 膈中者, 心主之宮城也.

가슴과 배는 장부의 성곽이고, 전중은 군주인 심장의 궁성이다.

○咽之下, 胃脘也, 膈與肺系相竝, 在肺系之後, 其上卽, 咽門也, 胃脘之下卽胃之上口也, 謂之賁門, 其膈膜相貼之間, 亦漫脂相包也.

○목구멍 아래가 위완이다. 위완은 격막을 뚫고 올라가 폐계(肺系)의 뒤로 나란히 붙어 있다. 위완의 상부는 목구멍[咽門]이고, 위완의 하부는 위(胃)의 입구로, 이를 분문이라 한다. 위완과 격막이 접하는 곳에는 기름이 넓게 감싸고 있다.

脈法 맥법

脈陽微陰弦, 則胸痺而痛, 陽微故知在上焦, 陰弦故知胸痺心痛.

양맥이 미(微)하고 음맥이 현(弦)하면 가슴이 저리면서 아프다. 양맥이 미(微)하면 병이 상초에 있는 것이고, 음맥이 현(弦)하면 흉비와 심통이 있는 것이다.

○心腹痛脈沈細宜, 浮大弦長命必殂.

○명치가 아플 때는 맥이 침세(沈細)해야 한다. 부(浮)、대(大)、현(弦)、장(長)하면 반드시 죽는다.

○沈弦細動皆是痛證, 心痛在寸腹痛在關, 下部在尺脈象顯然.

○맥이 침(沈)、현(弦)、세(細)、동(動)하면 모두 통증이 다. 심통은 촌맥에서, 복통은 관맥에서, 하부의 병은 척맥에서 맥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心痛與胃脘痛, 病因不同 심통과 위완통의 병인은 다르다

心之包絡, 與胃口相應, 往往脾痛連心, 或陽虛陰厥, 亦令心下急痛.

심포락은 위(胃)의 입구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종종 비의 통증이 심장으로 이어진다. 혹 양허로 음결이 되어도 명치가 당기고 아프다.

○眞心痛, 卽死不治, 其久心痛者, 是心之支別絡, 爲風邪冷熱所乘痛, 故成疹不死, 發作有時, 經久不得差也.

○진심통은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 오래된 심통은 심장에서 갈라진 낙맥이 풍사나 냉열의 침입을 받아 아픈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앓아도 죽지 않으며,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胃之上口, 名曰賁門, 與心相連, 故經所謂胃脘當心而痛, 今俗呼爲心痛者, 誤也, 夫九種心痛, 詳其所由, 皆在胃脘, 而實不在於心也.

○위(胃)의 입구는 분문이라고 한다. 분문과 심장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경》에서 '위완의 심장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아프다'고 한 것이다. 지금 민간에서 심통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9가지의 심통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위완에 있으며, 실제로는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心痛有九種 9가지의 심통

蟲心痛 충심통

胃脘痛, 痛定便能食, 時作時止者, 是蟲痛也.

위완통이 있지만 통증이 멎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때로 발작했다가 그쳤다 하는 것이 충통(蟲痛)이다.

○蟲痛之證, 心腹痛, 上下攻刺, 嘔噦涎沫, 或吐清水, 面色青黃.

○충통의 증상은 명치가 아프면서 상하로 퍼져 나가 찌르는 듯 아프고, 딸꾹질을 하며 거품을 토하거나 맑은 물을 토하며, 안색이 창백하고 누렇다.

疰心痛 주심통

卒感惡忤, 尸疰神昏, 卒倒, 口噤不省.

갑자기 중악·객오나 시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도하며, 입을 악물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다.

風心痛 풍심통

因傷風冷, 或肝邪乘心, 兩脅引痛.

풍랭에 상하거나 간사(肝邪)가 심을 눌러서 양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픈 것이다.

悸心痛 계심통

因七情怔忡驚悸, 以致心痛.

칠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명치가 아프게 되는 것이다.

食心痛 식심통

因食生冷或食物過多, 以致心痛.

생것이나 찬것을 먹거나 과식하여 심통이 생긴 것이다.

飲心痛 음심통

傷水飲聚痰涎, 心痛如刺.

수음에 상하고 담연이 몰려서 찌르는 듯한 심통이 있는 것이다.

冷心痛 냉심통

寒氣客於背俞之脈, 則血脈澁, 血脈澁則血虛, 血虛則痛, 其俞注於心, 故相引而痛.

한기가 배수(背俞)에 있는 경맥으로 들어가면 혈맥이 걸끄러워지고, 혈맥이 걸끄러워지면 혈이 허해지며, 혈이 허해지면 통증이 생긴다. 배수는 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당기면서 아픈 것이다.

熱心痛 열심통

積熱攻心, 暑毒入心, 面目赤黃, 身熱煩躁, 掌中熱, 大便堅.

열이 쌓여 심장을 공격하거나 서독(暑毒)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얼굴과 눈이 벌겋거나 누렇게, 몸에 열이 나며, 번조가 있고 손바닥에 열이 나며, 대변이 단해진다.

去來痛 거래통

心痛或作或止, 久而不愈也.

거래통은 심통이 발작했다가 그쳤다 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이다.

心痛亦有六 또 다른 6가지의 심통

脾心痛 비심통

心痛甚而至於脅下, 如刀割之痛者, 已連及於脾藏矣, 古方名爲脾痛者是也.

심통이 심해져 옆구리 밑까지 이르고, 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비장까지 파급된 것이다. 이것이 고방에 언급된 비통(脾痛)이다.

胃心痛 위심통

蓋木氣被鬱, 發則太過, 故民病有土敗木賊之候也, 夫胃爲脾之府, 陽先於陰, 故藏未病而府先病也.

울체된 목기가 발작하면 태과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목이 해쳐지고 토가 패하는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위(胃)는 비(脾)의 부(腑)로 양이 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장이 병들기 전에 부가 먼저 병든 것이다.

腎心痛 신심통

心痛與背相控, 善瘕¹, 如從後觸其心, 僂僂者, 腎心痛也.

심통으로 인해 등까지 당기며, 뒤에서 심장을 만지는 것처럼 자주 등을 구부리는 상태를 신심통이라 한다.

積心痛 적심통

飲食聚積, 遇食還發, 名曰積心痛.

음식으로 적취가 생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다시 발작하는 것을 적심통이라고 한다.

DD 厥心痛 DD

因內外邪犯心之包絡, 或他藏之邪犯心之支脈, 謂之厥者, 諸痛皆少陰・厥陰氣逆上衝, 又痛極則發厥也.

궤심통은 내외의 사기가 심포락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부의 사기가 심의 지맥을 침범해서 생긴다. 궤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통증이 소음과 궤음의 기가 거슬러 올라 치받아 생기며 통증이 극심하면 쓰러지기 때문이다.

眞心痛 진심통

心爲諸藏之主, 不可傷, 傷之而痛者, 爲眞心痛, 手足青至節, 朝發夕死, 夕發朝死, 不假復治.

심장은 모든 장기(臟器)의 주인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심장이 상하여 아픈 것이 진심통인데, 손발에서 여러 관절까지 퍼렇게 된다. 아침에 발작하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작하면 아침에 죽기 때문에 치료할 겨를이 없다.

七情作心痛, 食積、痰飲、瘀血, 皆作胃脘痛 칠정으로 심통이 생기고, 식적·담음·어혈로 위완통이 생긴다

七情心痛 칠정심통

七情者, 喜、怒、憂、思、悲、驚、恐, 蓋喜則氣散, 怒則氣上, 憂則氣沈, 思則氣結, 悲則氣消, 驚則氣亂, 恐則氣下, 六情皆令心氣鬱結, 所以作痛, 惟喜則氣散, 所以散六情之鬱, 能止痛.

칠정은 기쁨[喜], 성냄[怒], 걱정[憂], 생각[思], 슬픔[悲], 놀람[驚], 두려움[恐]이다. 기뻐하면 기가 흩어지고, 성내면 기가 거슬러 오르며, 걱정하면 기가 가라앉고, 생각을 하면 기가 맺히며, 슬퍼하면 기가 사그라지고,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지며, 두려워하면 기가 내려간다. 육정(六情)이 모두 심기를 뭉치게 하여 통증을 만들지만, 기뻐하면 기가 흩어져 육정으로 뭉친 것을 풀어주므로 통증을 멈출 수 있다.

食積胃脘痛 식적위완통

飲食過多, 以致積滯成胃脘痛, 先用吐法.

과식으로 적체가 되어 위완통이 생기면 먼저 토법을 쓴다.

痰飲胃脘痛 담음위완통

胃中若有流飲清痰作痛, 腹中漉漉有聲, 及手足寒痛, 或腰膝背脅抽掣作痛.

위(胃) 속에 유음(流飲)이나 맑은 담으로 통증이 있고, 배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손발이 차고 아프거나 허리·무릎·등·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프다.

瘀血胃脘痛 어혈위완통

如平日喜食熱物, 以致死血留於胃口, 作痛者. 下之, 輕者開之.

평소에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면 어혈이 위(胃)의 입구에 머물러 통증이 생긴다. 설사시키되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위의 입구를 열어준다.

心胃痛, 當分虛實 심위통은 허실을 구분해야 한다

按之痛止者爲虛, 按之痛反甚者爲實.

누르면 통증이 멎는 것은 허증이다. 누르면 도리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실증이다.

心胃痛治法 심위통의 치료법

寒冷自外而入, 初則是寒, 鬱久則變熱, 始終俱是熱也, 宜分寒、熱、血、蟲四條, 寒則溫之, 熱則清之, 血則散之, 蟲則殺之, 庶乎不惑也.

한랭한 것이 밖에서 들어오면 처음에는 한증이 되고, 그것이 오래되어 맏히면 열증으로 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열증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심위통은 한·열·혈·충(蟲)의 네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한증이면 따뜻하게 하고,

열증이면 서늘하게 하며, 혈증이면 흘려 주고, 충(蟲)일 때는 충을 죽인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치료할 수 있다.

諸痛不可用補氣藥 모든 통증에는 기를 보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

諸痛不可用補氣藥, 氣旺不通而痛愈甚矣.

모든 통증에 기를 보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 기가 성해지면 잘 통하지 못하여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心胃痛宜吐 심위통은 토하게 해야 한다

飮食過傷心胸痛甚, 不省人事, 多飲, 薑鹽湯探吐之, 卽止痛.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심통이 심하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경우 생강과 소금을 달인 물을 많이 마시고, 목구멍을 더듬어서 토하게 하면 통증이 멎는다.

心胃痛宜下 심위통은 설사시켜야 한다

通則不痛, 不通則痛, 又云, 諸實爲痛, 痛隨利減, 凡心胃痛甚, 須用下藥利之, 是爲捷法.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또한 모든 실증에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은 잘 통하게 하면 감소한다. 심위통이 심할 때는 반드시 하약(下藥)으로 설사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飲食禁忌 음식의 금기

凡心痛數日不食無妨, 痛止恣食, 卽復發.

심통이 있을 때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통증이 멎었다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재발한다.

胸痞 흉비

內經曰, 太陰所至, 爲積飲痞隔.

《내경》에, "태음이 이르는 때에는 적음(積飲)이나 비격(痞隔)이 생긴다"고 하였다.

○痞者, 否也, 如易所謂天地不交之否, 內柔外剛, 萬物不通之義也, 物不可以終否, 故痞久則成脹滿而莫能療焉.

○비(痞)란 막혔다는 뜻이다. 역(易)에서 천지가 교류하지 않아 막혔다[否]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안은 부드럽고 밖은 강하여 만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물은 계속 막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명치가 막히고 그득한 것이 오래되면 창만(脹滿)이 된다. 창만이 되면 치료할 수 없게 된다.

○痞者, 胸膈飽悶而不舒暢也.

○비(痞)란 흉격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시원하지 못한 것이다.

痞有寒熱 한비·열비

寒痞不渴, 脈遲.

한비로 갈증이 없고 맥이 지(遲)한 것이다.

痞有虛實 허비·실비

痞有虛有實, 大便易而利者爲虛, 大便難而閉者爲實.

비에는 허증과 실증이 있다. 대변이 쉽게 잘 나오는 것은 허증이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막히는 것은 실증이다.

痞宜吐下 비는 토하거나 설사시켜야 한다

飲食過傷, 心胸痞悶, 兀兀欲吐者, 宜吐之.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상하여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며, 목과 등이 뻗뻗해지고 토하려고 할 때는 토하게 해야 한다.

結胸 結胸

傷寒病發於陽, 而反下之, 熱入裏² 因作結胸, 發於陰而反下之, 因作痞, 所以成結胸者, 以下之太早故也.

상한에 병이 양에서 생겼는데 도리어 설사를 시키면 열이 내부로 들어가면 결흉(結胸)이 되고, 병이 음에서 생겼는데 도리어 설사시키면 비(痞)가 된다. 결흉이 되는 것은 너무 일찍 설사시켰기 때문이다.

○大結胸者, 不按而痛, 胸連臍腹痛硬, 手不可近, 不大便, 日晡潮熱.

○대결흉은 누르지 않아도 아프고, 가슴에서 배꼽 부위까지 아프면서 단단하여 손을 댈 수도 없으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해질녘에 조열이 있는 것이다.

○小結胸者, 按之方痛, 只心下硬.

○소결흉은 눌러야 아프고 명치만 단단한 것이다.

○寒實結胸者, 身不熱, 口不渴, 只心中脹硬而痛, 無熱證.

○한실결흉은 몸에 열이 없고 갈증이 없으며, 단지 심중(心中)이 불러 오르고 단단하며, 아프고 열증이 없는 것이다.

○熱實結胸者, 心下滿硬, 懊惱煩燥而渴.

○열실결흉은 명치가 더부룩하고 단단하며, 답답하고 번조가 있으며, 갈증이 있는 것이다.

○水結胸, 傷寒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脅, 但頭微汗出.

○수결흉은 상한결흉에 심한 열이 없는 것은 수(水)가 가슴과 옆구리에 뭉쳤기 때문이다. 머리에서만 약간 땀이 난다.

○血結胸, 婦人傷寒血結胸, 痛不可忍, 宜服玄胡索散.

○혈결흉은 부인이 상한으로 혈결흉이 되어서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현 호색산을 써야 한다

○陰陽毒結胸, 傷寒陰陽二毒伏逆, 變爲結胸, 有自利者, 有不得利者, 依結胸灸臍法以利之, 陽毒內服活龍散, 陰毒內服破結丹, 得泄則陰陽升降, 榮衛流行, 自然大汗而解, 若心下已結, 延至五日間, 斷不可治.

○음독결흉과 양독결흉은 상한에 음독이나 양독이 숨어 있다가 거슬러 올라와 결흉이 되면 설사가 저절로 나올 때도 있고 설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결흉에 배꼽에 땀을 뜨는 법대로 땀을 떠서 설사시켜야 한다. 양독은 활룡산을 복용하고, 음독은 파결단을 복용한다. 설사를 하면 음양이 오르내리고 영위가 잘 흐르게 되어 저절로 크게 땀이 나면서 병이 풀어진다. 만약 명치에 뭉친 것이 5일이 지나면 결코 치료할 수 없다.

○支結, 傷寒心下妨悶, 不滿不硬者, 謂之支結.

○지결(支結)은 상한에 명치가 막힌 듯 답답하지만 더부룩하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것이다.

1. 癥 : 癥 ※《동의보감》↩

2. 裏 : ※《동의보감》↩

† 乳 젖가슴

男女乳, 腎爲根本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젖가슴은 몸의 근본이다

男子以腎爲重, 婦人以乳爲重, 上下不同, 而性命之根一也.

남자에게는 음경이 중요하고, 부인에게는 젖가슴이 중요하다. 위아래로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성명(性命)의 근본인 것은 한 가지다.

○女人屬陰, 陰極則必自下而上衝, 故乳房大而陰戶縮也. 男子屬陽, 陽極則必自上而下降, 故陰莖垂而乳頭縮也.

○여자는 음에 속한다. 음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젖가슴은 커지고 음문[陰戶]은 오므라진다. 남자는 양에 속한다. 양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경은 늘어지고 젖꼭지는 오그라든다.

產後乳汁不行有二 산후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 2가지 원인

乳汁不行有二種, 有血氣¹盛而壅閉不行者, 有血氣²弱而枯涸不行者, 虛當補之, 實當疎³之.

젖이 나오지 않는 것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 기혈이 왕성하여 꼭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있고, 기혈이 부족하여 바짝 말라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 허할 때는 보해야 하고 실할 때는 잘 통하게 해야 한다.

○果經產而無乳者, 亡津液故也, 須服滋益之藥以助⁴, 雖有乳却又不甚多者, 須服通經之藥以助⁵之.

○아이를 많이 낳아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진액이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진액을 채워 주는 약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젖이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경락을 통하게 하는 약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產前乳出 출산 전에 젖이 나오는 것

產前乳汁自出者, 謂之乳泣, 生子多不育, 產後乳汁自出, 蓋是身虛, 宜服補藥以止之.

산전에 젖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유읍(乳泣)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후에 젖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몸이 허하기 때문이다. 보약을 먹어서 멎게 해야 한다.

吹乳妬乳 취유·투유

乳房陽明所經, 乳頭厥陰所屬, 乳子之母, 不知調養, 忿怒所逆, 鬱悶所遏, 厚味所養, 以致厥陰之血不行, 故竅閉而汁不通. 陽明之血沸騰, 故熱甚而化膿, 亦有所乳之子, 膈有滯痰, 口氣熾熱, 含乳而睡, 熱氣所吹, 遂成結核, 謂之吹乳, 於初起時, 便須忍

痛, 揉令稍軟, 吮令汁透, 自可消散失, 此不治, 必成癰癤.

젖가슴으로는 양명경이 지나가고, 젖꼭지는 궤음경에 속한다. 젖을 먹이는 사람이 몸조리를 잘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기가 치밀어오르거나, 우울하고 답답하여 기가 막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궤음경의 혈이 흐르지 못하여 구멍이 막혀서 젖이 나오지 않고, 양명경의 혈이 끓어올라 열이 심해져 고름이 생긴다. 또한 젖먹이의 격막이 담으로 막혀 있으면 입김이 뜨겁고, 젖을 문 채로 잠들면 아이가 뱀어낸 열기로 인해 멍울이 생긴다. 이것을 취유(吹乳)라고 한다. 취유가 생긴 초기에는 통증을 참고 주물러 부드럽게 한 뒤, 젖을 빨게 하여 젖이 나오면 저절로 멍울이 흩어져 없어진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웅(癰)이나 절(癧)이 생긴다.

○嬰兒未能吮乳, 或爲兒口氣所吹, 或斷乳之時, 捻出不盡, 皆令乳汁停蓄其間, 與血氣搏, 始而腫痛, 繼而結硬, 至手不能近, 則謂之妬乳.

갓난이가 제대로 젖을 빨지 못하거나, 아이가 더운 입김을 젖에 불거나, 젖을 땔 때 젖을 다 짜내지 않으면 젖이 정체되어 젖가슴에 쌓인다. 이것이 혈기와 서로 맞부딪히면 처음에는 붓고 아프다가 뭉쳐서 단단하게 되어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을 투유(妬乳)라고 한다.

乳癰 유옹

多因厚味濕熱之痰, 停蓄膈間, 與滯乳相搏而成, 亦有兒口氣吹噓而成, 又有怒氣激滯而生.

유옹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긴 습열로 인한 담이 격막 사이에 정체 되고 쌓인 후 고여있던 젖과 맞부딪쳐 생긴다. 또한 젖먹이가 입감을 불어서 생기거나, 노기가 몰아치다가 막혀서 생기기도 한다.

○婦人乳癰, 四十以下, 血氣周流, 患此可療, 年事既高, 血氣耗澁, 患此難瘳, 惡寒發熱, 煩燥大渴, 是其候也, 甚則嘔吐無已, 蓋毒氣上衝所致也.

○부인이 유옹이 있을 경우, 40세 이하에는 혈기가 잘 돌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혈기가 소모되어 잘 돌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유옹의 증상은 오한발열이 있으며 번조로 갈증이 심한 것이다. 심하면 구토가 멎지 않는데, 독기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結核久成癰巖 멍울이 오래되면 내암이 된다

婦人憂怒抑鬱, 時日積累, 脾氣消沮, 肝氣橫逆, 遂成隱核, 如鰲碁子, 不痛不痒, 十數年後, 方爲瘡陷, 名曰癰巖, 以其瘡形嵌凹似巖穴也, 不可治矣, 若於始作, 便能消釋病根, 使心清神安, 然後施之治法, 亦有可安之理.

부인이 근심하거나 성내거나 답답한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비기가 약해지고 막히며 간기가 거슬러 올라 마침내 납작한 바둑알처럼 생긴, 잘 보이지 않는 멍울이 된다.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으며, 십 수년이 지난 후 창이 생겨서 함몰된다. 이것을 내암(癰巖)이라고 한다. 창이 형태가 움푹 들어가 석굴[巖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할 수 없다. 초기에 병의 뿌리를 없애려면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 뒤에 치료해야 나올 수 있다.

乳懸證 유현증

產後瘀血上攻, 忽兩乳伸長, 細小如腸, 直過小腹, 痛不可忍, 名曰乳懸, 危證也.

산후에 어혈이 위로 치밀어 갑자기 양 젖가슴이 창자처럼 가늘게 늘어져 아랫배까지 지나가며,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유현이라고 한다. 이것은 위증(危證)이다.

男女乳疾不同 젖가슴의 병은 남녀가 다르다

男子乳疾與婦人微異者, 女損肝胃, 男損肝腎, 蓋怒火房勞過度, 以致肝燥腎虛, 亦能結核, 或令腫痛.

남자의 젖가슴에 생긴 질환은 여자와 약간 차이가 있다. 여자는 간위를 상한 것이고, 남자는 간신을 상한 것이다. 노화(怒火)나 과도한 성생활로 간신이 마르고 허해져도 멍울이 되거나 붓고 아프다.

1. 血氣 : 氣血 ※동의보감 ←

2. 血氣 : 氣血 ※동의보감 ←

3. 疎 : 疏 ※동의보감 ←

4. 助 : 動之 ※동의보감 ←

5. 助 : 動 ※동의보감 ←



† 腹 배

臍之上曰大腹, 臍之下曰小腹.

배꼽 위를 윗배[大腹]라 하고, 배꼽 아래를 아랫배[小腹]라 한다.

○小腹謂臍下兩傍髀骨內也.

○아랫배는 배꼽 아래 양쪽 곁으로 골반 안쪽을 말한다.

腹痛有部分 복통의 부위

大腹屬太陰, 臍腹屬少陰, 小腹屬厥陰.

윗배[大腹]는 태음에 속하고, 배꼽 부위[臍腹]는 소음에 속하고, 아랫배[小腹]는 궤음에 속한다.

○大腹痛, 多食積外邪, 臍腹痛, 多積熱痰火, 小腹痛, 多瘀血及痰與尿澁.

○윗배가 아픈 것은 대부분 식적이나 외사로 생기고, 배꼽 부위가 아픈 것은 대부분 적열이나 담화로 생기며, 아랫배가 아픈 것은 대부분 어혈·담음·요삽(尿澁)으로 생긴다.

脈法 맥법

尺脈弦則腹痛. ◦脈細小緊急, 腹中刺痛. ◦陰弦則腹痛. ◦弦急小腹痛. ◦尺脈緊, 臍下痛. ◦心腹痛, 脈沈細宜, 浮大弦長命必殂.

척맥이 현(弦)하면 배가 아프다. ◦맥이 세소(細小)하고 긴급(緊急)하면 뱃속이 찌르듯 아프다. ◦음맥이 현(弦)하면 배가 아프다. ◦맥이 현급(弦急)하면 아랫배가 아프다. ◦척맥이 긴(緊)하면 배꼽 아래가 아프다. ◦명치가 아플 때는 맥이 침세(沈細)해야 하니 부(浮)·대(大)·현(弦)·장(長)하면 반드시 죽는다.

寒腹痛 한복통

寒氣客於脈外則脈寒, 脈寒則縮絀, 縮絀則脈絀急, 絀急則外引小絡, 故卒然而痛, 因重中於寒, 則痛久矣.

한기가 맥의 밖으로 들어오면 맥이 차가워지고, 맥이 차가워지면 오므라든다. 오므라들면 맥이 구부러지고, 구부러지면 밖에 있는 작은 낙맥을 당기게 되어 갑자기 아프다. 이때 다시 한사가 침범하면 통증이 오래 간다.

◦寒氣客於背俞, 其俞注于心, 故相引而痛.

◦한기가 배수(背俞)에 들어오면 배수는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면서 아프다.

◦寒氣客於厥陰之脈, 則血澁脈急, 故脅肋與小腹相引痛矣.

◦한기가 궤음맥에 들어오면 혈이 걸끄러워 잘 흐르지 못하여 맥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옆구리와 아랫배가 서로 당기면서 아프다.

○寒氣客於五藏, 厥逆上泄, 陰氣竭, 陽氣未入, 故卒然痛死不知人, 氣復反則生矣.

○한기가 오장에 들어오면 거슬러 올라 토하게 된다. 음기는 다하고 양기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프고 거의 죽게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양기가 다시 회복되면 살아난다.

○綿綿痛而無增減者, 寒痛也.

○계속 아프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것이 한통이다.

熱腹痛 열복통

熱氣留於小腸, 小腸中痛, 瘴熱焦渴, 則堅乾不得出, 故痛而閉不通矣.

열기가 소장에 머무르면 소장 속이 아프고 열이 심하여 바짝 마르니 대변이 말라 단단해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대변이 막히는 것이다.

○時痛時止者, 熱也.

○때로 아프다가 멎었다가 하는 것은 열이다.

死血腹痛 어혈복통

瘀血腹痛有常處, 或跌撲傷損, 或婦人經來, 產後惡瘀未盡下而凝.

어혈복통은 늘 일정하게 아픈 곳이 있다. 넘어지거나 맞아서 손상을 입었거나, 부인이 월경을 하게 되거나, 산후에 어혈이 다 나오지 않고 엉겨서 생긴다.

○其痛有常處而不移動者, 是死血也.

◦아픈 부위가 일정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食積腹痛 식적복통

脈弦者, 食積痛, 宜溫散之.

맥이 현(弦)한 것은 식적통이니 따뜻하게 흩어 주어야 한다.

◦痛甚欲大便, 利後痛減者, 是食積也.

◦통증이 심하면서 대변을 누고 싶고, 설사한 뒤에는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식적이다.

痰飲腹痛 담음복통

凡腹痛脈滑者是痰, 宜導痰解鬱.

배가 아플 때 맥이 활(滑)한 것은 담으로 인한 것이니 담을 삭히고 울체를 풀어야 한다.

◦痰痛者, 必小便不利, 又云, 痛則小便不利者, 痰也.

◦담으로 아플 때는 반드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 아플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腹痛有虛實 복통의 허실

腹痛按之痛, 重按却不痛者, 此是氣痛, 乃虛寒證也, 若重按愈痛而堅者, 有積也.

배가 아플 때 누르면 아프다가 더 누르면 아프지 않은 것은 기통(氣痛)으로 허한증이다. 힘을 주어 누르면 더 아프면서 단단한 것은 적(積)이 있는 것이다.

積冷腹痛 냉기가 쌓여 생긴 복통

有一田夫, 醉飽露宿一枕天明, 自此脾疼攻刺, 百藥罔功, 淹淹數載後, 遇至人授以和劑抽刀散, 溫酒調下, 數服頓愈, 則知風露之根入胃, 良薑、菖蒲爲能散其邪, 巴猫借氣爲能伐其根也, 故有如是之驗焉.

어떤 농부가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은 후 길거리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잔 뒤로 배가 찌르듯 아팠으나 온갖 약이 효과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인을 만나 화제추도산을 받았다. 따뜻한 술에 타서 몇 번 복용하니 단번에 나았다. 이것으로 바람과 이슬의 뿌리가 위(胃)에 침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강·창포는 사기를 흠을 수 있고, 파두와 반묘의 기운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腹痛嘔泄 복통에 구토하거나 설사하는 것

寒氣客於腸胃, 厥逆上出, 故痛而嘔也.

한기가 장위에 들어오면 거슬러 올라 나오기 때문에 아프면서 토한다.

○寒氣客於小腸, 小腸不得成聚, 故便¹泄腹痛矣.

○한기가 소장(小腸)에 들어오면 소장은 음식을 모으지 못하니 설사하고 배가 아프다.

腹中窄狹 뱃속이 좁아지는 것

乃濕痰濁氣, 攻於心脾二藏, 升降失常, 以致自覺腹中窄狹.

습담의 탁기가 심비(心脾)를 공격하여 오르내리지 못하게 되면 뱃속이 좁아지는 것을 알게 된다.

腹皮麻痺或痛 뱃가죽이 마비되거나 아픈 것

肚皮痛者, 由腎虛不能行水, 加之酒麪無度, 酒與水交, 聚於腹中, 而麪毒復纏滯其氣, 是以水滲肚皮而作痛矣.

뱃가죽이 아픈 것은 신(腎)이 허하여 수(水)를 운행시키지 못하는데 술과 밀가루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기 때문이다. 술과 물이 만나서 뱃속에 모이고, 밀가루의 독이 다시 그 기를 얹어서 막기 때문에 물이 뱃가죽에 스며들어 아프게 된 것이다.

腹中鳴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腹中鳴者, 病本於胃也. ○脾氣虛, 則腹滿腸鳴.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병의 근본이 위(胃)에 있다. ○비기가 허하면 배가 더 부룩하고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

○中氣不足, 腸爲之苦鳴.

○중기가 부족하면 장에서 몹시 소리가 난다.

涌水證 용수증

經²曰, 肺移寒於腎, 爲涌水, 涌水者, 按之腹不堅, 水氣客於大腸, 疾行則鳴濯濯, 如囊裹漿, 水之病也.

《내경》에, "폐가 신으로 한기를 옮기면 물을 토한다. 용수증은 배를 눌러 보면 단단하지 않고 수기가 대장에 침입해 빨리 걸으면 물을 담은 주머니처럼 탁탁 하는 소리가 난다. 이것은 수병이다"라고 하였다.

腹痛宜通利 복통에는 통하게 해야 한다

凡腹痛大抵宜通塞則爲痛, 凡痛甚, 須通利藏府乃愈.

복통에 대부분 통하게 하는 것은 막히면 통증이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할 때 장부를 잘 통하게 하면 낫는다.

○初得時, 元氣未虛, 必推蕩之, 此通因通用之法也.

○처음 배가 아플 때는 원기가 아직 허하지 않으니 반드시 몰아내어야 한다. 이것이 설사할 때 설사시키는 방법이다.

○實痛宜辛寒推蕩, 經曰, 通因通用, 又曰, 痛隨利減是也.

○실증으로 배가 아픈 데에는 맵고 차가운 약으로 몰아내어야 한다. 경(經)에, "설사할 때는 설사시킨다"고 하고, 또, "통증은 잘 통하게 하면 감소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腹痛通治 복통을 두루 치료하는 법

凡腹痛必用溫散, 此時³鬱結不行, 阻氣不運, 故痛也.

배가 아플 때 반드시 따뜻하게 흠어야 하는 것은 기가 울결되어 잘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혀서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1. 便 : 後 ※《동의보감》↩

2. 經 : 內經 ※《동의보감》↩

3. 時 ⌚ 是 ※동의보감 ↩

十 臍 배꼽

臍居一身之中 배꼽은 몸의 중심에 있다

臍者, 齊也, 言其上下齊也, 身之半正謂臍中也, 當伸臂指天, 舒足至地, 以繩量之, 則中正當臍, 天樞之穴, 正當臍兩傍各二寸, 是爲身半也.

제(臍)란 '같다'는 뜻으로 그것의 위아래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몸의 반을 바로 제중(臍中)이라고 한다. 팔을 하늘로 뻗고 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줄로 재어보면 그 한 가운데에 바로 배꼽이 있다. 천추혈은 바로 배꼽의 2촌 옆에 있으며 몸의 가운데에 있다.

臍下有丹田 배꼽 밑에 단전이 있다

十二經脈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腎間動氣卽下丹田也, 此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源也.

십이경맥은 모두 생기의 근원과 이어져 있다. 생기의 근원이란 신간동기를 말하니, 곧 하단전이다. 이것은 오장육부의 근본이고 십이경맥의 뿌리이며, 호흡의 문이고 삼초의 근원이다.

臍築證 제축증

臍築湫痛, 命將難痊, 湫者深也, 蓋臍爲生氣之源, 築痛者, 生氣已絕也.

제축증(臍築證)은 배꼽이 뛰며 심하게[湫] 아픈 것으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다. 추(湫)란 심하다는 뜻이다. 배꼽은 생기의 근원이므로 배꼽이 뛰면서 아픈 것은 생기가 끊어진 것이다.



† 腰 허리

腰圍度數 허리 둘레의 치수

腰圍四尺二寸。○腰脊者，身之大關節也。

허리둘레는 4.2척이다. 요추는 우리 몸의 큰 관절이다.

腰爲腎府 허리는 신의 집이다

腰者腎之外候，一身所恃以轉移開闔者也，然諸經，貫於腎，絡於腰脊，雖外感內傷，種種不同，必腎虛而後邪能湊之，故不可純用涼藥，亦不可純用參芪補氣也。

허리는 신(腎)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우리 몸은 허리에 의지하여 움직이며 개합작용을 한다. 이렇게 모든 경맥이 신장을 관통하고 요추에 이어 지니 비록 외감·내상 등 병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신이 허한 다음에야 사기가 들어온다. 그러므로 순전히 차가운 약만 써서도 안 되고 인삼·황기 등 기를 보하는 약만 써서도 안 된다.

脈法 맥법

腰痛之脈皆沈弦，沈弦而緊者爲寒，沈弦而浮者爲風，沈弦而濡細者爲濕，沈弦而實者爲挫閃。

요통의 맥은 모두 침현(沈弦)하다. 침현하면서 긴(緊)하면 한요통이고, 침현하면서 부(浮)하면 풍요통이다. 침현하면서 유세(濡細)하면 습요통이고, 침현하면서 실(實)하면 좌섬요통이다.

腰痛有十 10가지의 요통

有腎虛, 有痰飲, 有食積, 有挫閃, 有瘀血, 有風, 有寒, 有濕, 有濕熱, 有氣, 凡十種.

요통에는 신허요통, 담음요통, 식적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습열요통, 기요통 등 모두 10종이 있다.

†脅 옆구리

脅腋度數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치수

腋以下至季脅, 長一尺二寸, 季脅以下至臑¹樞, 長六寸.

겨드랑이에서 옆구리 아래[季脇]까지의 길이는 1.2자이고, 옆구리 아래에서 비추(臑樞)까지의 길이는 6촌이다.

脅腋屬肝膽 옆구리와 겨드랑이는 간담에 속한다

肝膽之脈布脅肋, 肋者, 脅骨也.

간담의 경맥은 옆구리와 갈비뼈로 퍼진다. 늑(肋)이란 갈비뼈를 말한다.

脈法 맥법

寸口脈弦者, 即脅下拘急而痛, 其人噎噎惡寒也,

촌구맥이 현(弦)하면 옆구리 아래가 당기면서 아프고 오싹오싹 오한이 난다.

脈雙弦者, 肝氣有餘, 兩脅作痛.

맥의 양쪽이 현하면 간기가 남아도는 것이니 양 옆구리가 아프다.

氣鬱脅痛 기울협통

大怒氣逆, 及謀慮不決, 皆令肝火動甚, 脅痛難忍.

크게 성내어 기가 거슬러 오르거나, 모려(謀慮)를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간화를 심하게 요동하게 하여 옆구리가 참을 수 없이 아프다.

死血脅痛 어혈협통

因惡血停留於肝, 居於脅下而痛, 按之則痛益甚.

나쁜 피가 간에 정체되거나 옆구리 아래에 있어서 아플 때는 누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痰飲脅痛 담음협통

痰飲流注於厥陰之經, 亦能使脅下痛, 病則咳嗽氣急引脅痛.

담음이 꺾음경에 흘러 다닐 때에도 옆구리 밑이 아프다. 기침을 하고 숨이 급하며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프다.

食積脅痛 식적협통

食積脅下如杠梗起, 一條作痛.

식적으로 옆구리 아래에 한 줄기 통증이 뻗쳐오른다.

風寒脅痛 풍한협통

外感脅痛, 寒熱.

외감으로 옆구리가 아프고 한열이 있는 것이다.

乾脅痛 건협통

虛甚成損, 脅下常一點痛不止者, 名曰乾脅痛, 甚危.

심하게 허하여 몸이 상하고, 옆구리 아래의 한 곳이 늘 아프면서 통증이 멎지 않는 것을 건협통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단한 위증(危證)이다.

脅痛有虛實 협통의 허실

肝氣實脅痛者, 手足煩燥², 不得安臥.

간기가 실하여 옆구리가 아프면 답답하여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편안히 누울 수 없다.

○肝氣虛脅痛者, 悠悠不止, 耳目眊眊, 善恐如人將捕.

○간기가 허하여 옆구리가 아프면 통증이 계속 멎지 않고, 귀와 눈이 침침하며, 다른 사람이 잡으러 오는 듯 두려워한다.

1. 脾：脾 ※《동의보감》↩

2. 燥：躁 ※《동의보감》↩



† 皮 피부

皮有部分 피부에는 나누어진 부위가 있다

凡十二經絡者, 皮之部也, 視其部中浮絡,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爲熱, 多白則寒, 五色皆見則寒熱也, 絡盛則入客於經, 陽主外, 陰主內.

십이경락은 피부를 부위 별로 나눈다. 그 부위의 부락(浮絡)을 살펴서 푸른색이 많으면 통증이고, 검은색이 많으면 비증(痺證)이며, 누렇거나 벌거면 열증이고, 희면 한증이며, 오색이 모두 드러나면 한열이 섞여 있는 것이다. 낙맥이 왕성하면 경맥을 침범한다. 양은 밖을 주관하고 음은 안을 주관한다.

皮毛屬肺 피모는 폐에 속한다

內經曰,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又云, 肺主皮毛, 又云, 在藏爲肺, 在體爲皮毛.

〈내경〉에, "폐는 피부와 상합하고, 그 상태는 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 "오장에서는 폐이고, 몸에서는 피모이다"라고 하였다.

風寒之邪, 先入皮毛 풍한의 사기는 먼저 피모로 들어간다

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廩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泝然起毫毛, 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 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¹𦐇破, 毛直而敗.

모든 병이 처음 생길 때는 반드시 피모에서 시작한다. 사기(邪氣)에 맞으면 주리가 열리고, 주리가 열리면 사기가 낙맥으로 들어온다. 사기가 낙맥에 머무를 때 제거되지 않으면 경맥으로 들어가고, 사기가 경맥에 머무를 때 제거되지 않으면 육부로 들어가 장위(腸胃)에 쌓인다. 사기가 처음 피부에 들어가면 오싹하면서 솜털이 일어서고 주리가 열린다. 사기가 낙맥에 들어가면 낙맥이 성해져 색이 변하고, 경맥에 들어가면 허한 곳으로 빠져들어 간다. 사기가 근골 사이에 머물 때 한(寒)이 많으면 근이 당기고 뼈가 아프다. 열이 많으면 근이 늘어지고 뼈가 삭으며, 살이 타는 것 같고 군육(脛肉)이 무너지며, 털이 곳곳해지면서 망가진다.

脈法 맥법

脈浮而大, 浮爲風虛, 大爲氣強, 風氣相搏, 以成癰疹, 身體爲痒, 痒者名泄風, 久久爲痂癬.

맥이 부(浮)하면서 대(大)할 때 부한 것은 풍으로 허해진 것이고, 대한 것은 기가 강한 것이다. 풍과 기가 맞부딪치면 은진이 생겨 몸이 가렵다. 가려운 것을 설풍(泄風)이라고 하는데, 오래되면 가뢰(痂癬)가 된다.

痒痛 가렵고 아픈 것

內經曰, 諸痒爲虛, 血不榮肌膚, 所以痒也, 當以滋補藥以養陰血, 血和氣²潤, 痒自不作.

《내경》에, "여러 가지 가려움증은 허증(虛證)이다"라고 하였다. 혈이 살과 주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운 것이다. 보하는 약으로 자양시키고 음혈을 길러서 혈을 조화롭게 하면 살이 윤택해지면서 가려움이 저절로 그친다. [《단심》]

○人近火氣者, 微熱則痒, 熱甚則痛, 附近則灼而爲瘡, 皆火之用也, 痒者美疾也, 故火旺於夏, 而萬物蕃美也, 或云, 痛爲實, 痒爲虛, 非謂虛爲寒也, 正謂熱之微甚也.

○사람이 불기운에 가까이 갈 때 약간 뜨거운 경우에는 가렵고, 심하게 뜨거우면 아프며, 더 가까이 가면 살을 데인다. 이것은 모두 화의 작용이다. 가려움증을 미질(美疾)이라고도 한다. 화가 여름에 왕성하여 만물이 번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누군가, "통증은 실증이고 가려움증은 허증이다. 이때의 허는 한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열이 조금 심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痲疹 반진

有色點而無顆粒者曰痲, 浮小而有顆粒者曰疹, 隨出即沒而又出.

색깔은 떠나 낱알처럼 돋지는 않는 것이 반(癍)이고, 조그맣고 얇게 낱알처럼 돋는 것이 진(疹)이다. 돌아나서 곧 사라진 후 다시 돋는다.

陰證發癍 음증의 반진

陰證發癍, 出胸背及手足, 亦稀少而微紅, 若作熱投之涼藥, 大誤矣, 此無根失守之火, 聚於胸中, 上獨熏肺, 傳於皮膚而爲班點, 但如蛟蜥³ 蚤蟲咬形狀, 而非錦紋也.

음증의 반진은 가슴·등·손발에 돋는다. 드문드문 나오면서 약간 붉다. 열로 보고 차가운 약을 투여하면 큰 잘못이다. 뿌리가 없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화가 가슴속에 몰려 위로 폐를 훈증하고 피부로 들어가 반점이 돋은 것이다. 모기·벼룩·이에 물린 것 같고 비단무늬 같지는 않다.

內傷發癍 내상의 반진

內傷發癍, 乃胃氣極虛, 一身之火遊行於外所致, 宜補以降之.

내상으로 반진이 돋는 것은 위기(胃氣)가 매우 허하여 몸에 있는 화가 겉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보하여 화를 내려야 한다.

發癍候 반진이 돋으려는 징후

凡汗下不解, 足冷耳聾, 煩悶嘔咳, 便是發癍之候⁴.

한법(汗法)이나 하법(下法)으로 병이 풀리지 않아서 발이 차갑고 귀가 멀며,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고 기침을 하는 것은 반진이 돋으려는 징후이다.

癰疹吉凶 반진의 예후

赤癰出, 五死一生. 黑癰出, 十死一生, 皆用化癰湯, 兼與紫雪.

붉은 반진이 나오면 다섯은 죽고 하나는 살고, 검은 반진이 돋으면 열은 죽고 하나는 산다. 모두 화반탕에 자설을 함께 쓴다.

○凡癰疹赤色身煖, 自胸腹散四肢者吉, 黑色身涼, 自四肢入胸腹者死.

○몸이 따뜻하면서 붉은 반진이 가슴과 배에서 사지로 퍼지는 것은 괜찮다. 몸이 차면서 검은 반진이 사지에서 가슴과 배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

○陽毒發癰, 紅潤稀⁵, 起發五六日自愈, 若陰脈見而黑癰, 稠蜜成片, 身涼, 六七日死.

○양독으로 붉고 윤기가 있는 반진이 드문드문 날 때는 돋은 후 5 - 6일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음맥이 나타나면서 검은 반진이 촘촘하게 얹게 돋고 몸이 차가울 때는 6 - 7일이 지나면 죽는다.

癰疹 은진

癰疹多屬脾, 隱隱然在皮膚之間, 故言癰疹也, 發則多痒, 或不仁者是也, 兼風熱濕之殊, 色紅者, 兼火化也, 疹有赤白, 赤疹屬陽, 遇清涼而消. 白疹屬陰, 遇溫煖而減.

은진은 대부분 비(脾)에 속한다. 은은히 피부 사이에 드러나기 때문에 은진이라고 한다. 은진이 돋으면 많이 가려운데, 간혹 감각이 없을 때도 있다. 풍·열·습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색이 붉은 것은 화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은진에는

붉은 것과 흰 것이 있다. 붉은 은진은 양에 속하므로 서늘한 것을 만나면 사라지고, 흰 은진은 음에 속하므로 따뜻한 것을 만나면 사라진다.

瘡瘰癧 사·뽀루지·땀띠

內經曰, 勞汗當風, 寒薄爲瘡, 鬱乃瘰, 此勞汗出於玄府, 脂液所凝. 暑月汗漬, 肌生紅粟, 謂之癰子.

《내경》에, "일을 많이 하여 땀을 흘리다가 바람을 쏘이거나 한기를 맞으면 사(瘡)가 되고, 그것이 쌓이면 뽀루지가 된다"고 하였다. 일을 많이 하여 땀이 허부에서 나오다가 기름기와 엉긴 것이다. 여름철에 땀에 젖어서 살에 붉은 좁쌀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땀띠[癰子]라고 한다.

丹毒 단독

人身忽然變赤, 如塗丹之狀, 俗云赤瘤, 或有因瘡而誤觸, 四畔焮赤, 謂之瘡瘤, 皆遊走不定, 狀如雲氣者是也, 小兒得之, 最忌百日之內, 謂之胎瘤, 最爲難治.

몸에 주사를 바른 것처럼 갑자기 벌겋게 변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적류(赤瘤)라고 한다. 간혹 창이 난 곳을 잘못 건드려 주위가 화끈거리면서 벌겋게 된 것을 창류(瘡瘤)라고 하는데, 모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닌다. 그 모습은 얇게 흐르는 구름과 같다. 소아는 100일 내에 생기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태류(胎瘤)라고 하는데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

麻木 마목

靈樞曰, 衛氣不行, 則爲麻木, 開目則陽道行, 陽氣遍布周身. 閉目則陽道閉而不行, 如晝夜之分, 知其陽衰而陰旺也, 久坐而起, 亦有麻木, 知其氣行也⁶, 當補其肺中之氣, 則麻木自去矣.

《영추》에, "위기(衛氣)가 흐르지 않으면 마목이 된다"고 하였다. "눈을 뜨면 양도(陽道)가 흘러 양기가 온몸에 두루 퍼지고 눈을 감으면 양도가 막혀 흐르지 못한다. 이것은 밤낮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양이 쇠퇴하면 음이 왕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마목이 생기니 마목은 기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폐의 기를 보하면 마목이 저절로 사라진다.

○河間曰, 着痺者, 留着不去, 四肢麻木拘攣也, 內經病久入深, 榮衛之行澁, 經絡時蹙⁷, 故不痛, 皮膚不榮, 故爲不仁, 夫所謂不仁者, 或周身, 或四肢, 唧唧然麻木, 不知痛痒, 如繩扎⁸, 縛初解之狀, 古方名爲麻痺者是也.

○하간이, "착비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고 사지가 마목이 되며 경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경》에, "병이 오래되어 깊이 들어가면 영위의 운행은 막히지만 경락은 때로 흐른다. 그래서 아프지는 않지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인(不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불인이라는 것은 온몸이나 사지가 서서히 마목되어서 아프거나 가려움을 모르는 것으로 마치 노끈으로 묶어놓았다가 막 풀었을 때와 같은 것이다. 고방에서 마비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索澤證 삭택증

內經曰, 三陽爲病, 發寒熱, 其傳爲索澤, 王註云, 索, 盡也, 精血枯涸, 故皮膚潤澤之氣皆盡也.

《내경》에, "삼양(三陽)에 병이 들면 오한·발열이 생기고, 그것이 전변하여 삭택이 된다"고 하였다. 왕빙의 주(註)에, "삭(索)은 '사라졌다'는 뜻이다. 정혈이 말라서 피부의 윤택한 기운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癰風癰瘍白駮 전풍·역양풍·백철

凡人身體皮肉變色, 赤者謂之紫癰, 白者謂之白癰, 或謂之癰瘍風白駮者, 浸淫漸長, 色白似癰, 但無瘡也, 皆因風搏皮膚, 血氣亦不和所生.

피부색과 살색이 붉게 변한 것을 자전풍(紫癰風)이라 하고, 희게 변한 것을 백전풍(白癰風) 혹은 역양풍(癰瘍風)이라고 한다. 백철(白駮)은 점점 커져서 버짐처럼 하얗게 되지만 창은 생기지 않는다. 모두 풍사가 피부에 맞부딪쳐 혈기 또한 조화를 잃어 생기는 것이다.

黑痣靨子 사마귀

黑痣者, 黑子也, 是風邪變生也.

흑지(黑痣)란 검은 사마귀를 말한다. 이것은 풍사가 변하여 생긴 것이다.

[《유취》]

○色黑而大曰𪔐.

○흑지에서 검고 큰 것을 엽자(𪔐子)라고 한다.

1. 𪔐 𪔐 𪔐 ※《동의보감》↩

2. 氣 肌 ※동의보감 ↩

3. 蛟蛭 蚊蚋 ※동의보감 ↩

4. 候 : 侯 ※《동의보감》 초간본

候 ※갑완_와 ↩

5. 踈 疏 ※《동의보감》↩

6. 行也 不行也 ※《동의보감》↩

7. 踈 : 疏 ※《동의보감》↩

8. 札 扎 ※《동의보감》↩

† 肉 살

肉屬脾胃 살은 비위에 속한다

內經曰, 脾主肉, 又脾在體爲肉.

《내경》에, "비(脾)는 살을 주관한다"고 하였고, 또, "비(脾)는 오체에서 살이 된다"고 하였다.

○邪在脾胃, 則病肌肉痛是也,

○사기(邪氣)가 비위에 있으면 기육이 아프다. [《입문》]

人之肉如地之土, 豈可以人而無肉, 故肉消盡則死矣.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으니 어떻게 사람에게 살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살이 모두 없어지면 죽는다. [《동원》]

肉有谿谷 살에는 계(谿)와 곡(谷)이 있다

黃帝曰, 願聞谿谷之會也, 岐伯曰, 肉之大會爲谷, 肉之小會爲谿, 肉分之間, 谿谷之會, 以行榮衛, 以會大氣.

황제가, "계곡이 모이는 곳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기백이, "살이 크게 모이는 곳이 곡(谷)이고, 살이 작게 모이는 곳이 계(谿)입니다. 살이 나뉘어 지는 사이와 계곡이 모이는 곳으로는 영위가 돌고 대기(太氣)가 모입니다"라고 하였다.

脰爲肉標 군육은 살의 표지가 된다

脰者, 肉之標也, 脰謂肘膝後肉如塊者.

군육(脰肉)은 살의 표지가 된다. 군육은 팔꿈치와 무릎 위쪽의 덩어리진 살이다.

○五藏傷損, 脰破肉脫, 皆爲不治之證也.

○오장이 손상되어 군이 무너지고 살이 빠지는 것은 다 치료할 수 없다.

肉主肥瘦 육은 비수를 주관한다

脾虛則肌肉削.

비가 허하면 기육이 빠진다.

○肥而澤者, 血氣有餘. 肥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瘦而無澤者, 血氣俱不足.

○살지고 윤기가 있는 사람은 혈·기에 여유가 있다. 살졌지만 윤기가 없는 사람은 기는 여유가 있지만 혈은 부족하고, 마르고 윤기가 없는 사람은 혈·기가 모두 부족하다.

○血實氣虛則肥, 氣實血虛則瘦, 所以肥耐寒而不耐熱, 瘦耐熱而不耐寒者, 由寒則傷血, 熱則傷氣, 損其不足, 則陰陽愈偏偏¹, 故不耐也, 損其有餘者, 方得平調, 故耐之矣.

○혈이 실하고 기가 허하면 살이 찌고, 기가 실하고 혈이 허하면 마른다. 살이 찌면 추위는 견디지만 더위는 견디지 못하고, 마르면 더위는 견디지만 추위는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한(寒)은 혈을 상하고 열은 기를 상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이 손상되면 음양이 더욱 치우치게 되어 견디지 못하고, 남는 것이 손상되면 고르게 되므로 견디는 것이다. [sm/]

食飢證 식역증

內經曰, 大腸移熱於胃, 善食而瘦, 又謂之食飢, 胃移熱於膽, 亦曰食飢, 註云, 食飢者, 謂飲食移易而過, 不生肌膚, 亦易飢也.

《내경》에, "대장이 위(胃)로 열을 옮겨서 잘 먹어도 여위는 것을 식역(食飢)이라 하고, 위가 담으로 열을 옮기는 것도 식역이라 한다"고 하였다. 주(註)에, "식역이란 음식이 그저 스쳐 지나가서 살이 되지 못 하는 것인데, 배가 자주 고프다"고 하였다. 삼령원을 써야 한다.

婦人瘦瘵 부인이 여위는 것

歌曰, 氣不充時血不榮, 肌肉不長瘦其身, 谷靈丸子服兩月, 頰紅肥大長精神.

노래에, "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혈이 돌지 못하여 기육이 자라나지 못하니 몸이 마른다. 곡령환을 두 달 먹으니 뺨이 붉고 살이 찌며 정과 신(神)이 자라난다"고 하였다.

肉脫不治證 살이 빠져서 치료하지 못하는 증상

形肉已脫, 九候雖調猶死.

살이 빠지면 구후맥(九候脉)이 비록 고르더라도 죽는다.

疣目 무사마귀

亦曰瘰癧, 是人手足忽生如豆, 或如結筋, 或五箇, 或十箇, 相連而生, 皆由風邪搏於肌肉而變生也.

무사마귀를 후자(瘰癧)라고도 한다. 갑자기 손발에 생기는 것으로 콩알 같거나 뭉친 근육 같은 것 5개나 10개가 연달아 생긴다. 모두 풍사가 기육에 들어와 변하여 생긴 것이다.

1. 偏偏 𠂇 偏 ※《동의보감》↩

† 脈 맥

脈者, 血氣之先 맥은 혈기에 우선한다

河間云, 脈者血氣之先, 斯論得之矣, 人身之脈, 血氣之所爲, 而不知所以周流不息者, 正乾道乾乾之意, 亦猶理之寓乎氣, 所以爲血氣之先, 先之一字, 厥有旨焉.

하간의 '맥이 혈기에 우선한다'는 말은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맥은 혈기가 만드는데서 먼저이지만, 혈이 쉬지 않고 몸을 돌 수 있는 바탕은 바로 건도(乾道)의 굳센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理)가 기(氣)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혈기에 우선한다고 할 때의 '우선'한다는 말에 참 뜻이 있다.

脈字有義 맥의 의미

榮行脈中, 衛行脈外, 脈者, 所以主宰榮衛, 而不可須臾失也, 從月從永, 謂得此可永歲月也, 古脈字從血從, 所以使氣血各依分派而行經絡也.

영(榮)은 맥 속으로 돌고, 위(衛)는 맥의 바깥으로 돈다. 맥은 영위를 주재하니 잠시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맥(脉)'은 '月'과 '永'이 합쳐진 글자이다. 맥이 잘 뛰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옛날에 '맥'자가 '血'과 " 로 이루어진 것은 기혈이 각각의 맥으로 갈라져 경락을 돌기 때문이다.

○脈者幕也, 如幕外之人, 而欲知幕內之事也.

○맥이란 장막[幕]이다. 장막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장막 안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診脈有法 진맥법

診法, 常以平坦, 陰氣未動, 陽氣未散, 飲食未進, 經脈未盛, 絡脈調勻, 氣血未亂, 故乃可診有過之脈, 切脈動靜而視精明, 察五色, 觀五藏有餘不足, 六府強弱, 形之盛衰, 以此三五, 決死生之分.

진맥할 때는 늘 새벽에 한다. 새벽에는 음기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양기는 아직 흩어지지 않았으며, 음식을 아직 먹지 않아 경맥이 왕성하지 않으며, 낙맥이 고르고 기혈이 아직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맥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 맥의 동정을 진찰하면서 정명(精明)과 오색(五色)을 살피고, 오장의 유여와 부족, 육부의 강약, 형(形)의 성쇠 등을 본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생사를 판단한다.

○診法有七, 一者靜其心, 存其神也. 二者忘外意, 無私慮也. 三者勻呼吸, 定其氣也. 四者輕指於皮膚之間, 探其府脈也. 五者, 微重指於肌肉之間, 取其胃氣也. 六者、沈指於筋骨之上, 取其藏脈也. 七者, 察病人脈息往來也.

○진맥하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신(神)을 보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잡념을 버리고 사사로운 걱정을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호흡을 고르게 하여 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피부를 가볍게 눌러 육

부의 맥을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는, 기육을 약간 깊게 눌러 위기(胃氣)를 보는 것이다. 여섯째는, 근골 위를 깊게 눌러 오장의 맥을 보는 것이다. 일곱째는, 환자 자신의 맥과 호흡을 살피는 것이다.

○清高貴客, 脈證兩憑, 勞苦¹人, 多憑外證, 傷寒陰陽證, 多從脈斷.

○청렴하고 고상한 귀인들에 대해서는 맥과 증을 모두 살펴보지만, 노동과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밖으로 드러난 증상에 근거해서 보는 때가 많다. 상한의 음증과 양증은 대부분 맥으로 판단한다.

下指法 맥을 짚는 법

凡初下指, 先以中指揣按得關脈, 掌後高骨, 謂之關也, 乃齊下前後二指, 是爲三部脈, 前指, 寸口也, 後指, 尺部也, 若人臂長則踈下指, 臂短則密下指, 先診寸口浮按消息之,²次上竟消息之, 次下竟消息之, 次推指外消息之, 次推指內消息之.

처음에 손가락으로 맥을 짚을 때, 먼저 중지로 관맥을 누르는데, 손바닥 아래 쪽의 고골(高骨)을 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지 옆의 두 손가락을 나란히 내려 삼부맥을 보는데, 앞 손가락이 있는 곳이 촌구이고 뒤 손가락이 있는 곳이 척부이다. 만약 환자의 팔이 길면 손가락 간격을 벌려서 누르고, 팔이 짧을 때는 손가락 간격을 좁혀서 누른다. 먼저 촌구를 진찰한다. 약간 눌러서 살핀 다음 중간쯤 눌러서 살피고, 그 다음 깊게 눌러서 살핀다. 그 다음, 가장 윗부분을 살피고, 가장 아랫부분을 살핀다. 그 다음, 손가락을 바깥으로 밀어서 살피고, 손가락을 안으로 밀어서 살핀다.

○脈有三部, 分爲寸、關、尺, 每部各浮、中、沈, 三診, 合爲九候, 浮以診其府, 見六府之盛衰. 沈以診其藏, 見五藏死生盈虛. 中則診其胃氣, 蓋胃爲水穀之海, 氣血之源, 有胃氣則生, 無胃氣則死故也.

○맥에는 삼부가 있으니 촌、관、척으로 나눈다. 매 부위마다 각기 부(浮)、중(中)、침(沈)의 3가지로 나누어서 진찰한다. 이것을 합하여 구후(九候)라고 한다. 부맥으로 육부를 진찰하여 육부의 성쇠를 보고, 침맥으로 오장을 진찰하여 오장의 생사와 허실을 본다. 중맥으로는 위기를 진찰한다. 위(胃)는 수곡의 바다이며 기혈의 원천이니 위기(胃氣)가 있으면 살고 위기가 없으면 죽는다.

脈動有準 맥이 뛰는 기준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사람이 숨을 1번 내쉴 때 맥이 2번 뛰고 숨을 1번 들이쉴 때도 맥이 2번 뛴다.

故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 三遲二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 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魂癡.

숨을 1번 쉴 때 4번 뛰는 것을 평화(平和)라고 하는데, 1번 더 뛰어도 큰 병은 아니다. 3번 뛰면 지맥(遲脈)이고 2번 뛰면 패맥(敗脈)인데, 냉증(冷證)으로 위태롭다. 6번 뛰면 삭맥(數脈)이고 7번 뛰면 극맥(極脈)인데, 열증이 많다. 8번 뛰면 탈맥(脫脈)이고 9번 뛰면 사맥(死脈)이며, 10번 뛰면 무덤으로 가고 11번、12번 뛰면 혼이 나간다.

六脈陰陽錯綜 육맥에는 음양이 섞여 있다

左尺水生左關木, 左關木生左寸火. 左寸火接右尺火, 右尺火生右關土, 右關土生右寸金, 右寸金生左尺水, 生生之意不絕, 有子母之親也.

좌척맥의 수(水)가 좌관맥의 목(木)을 낳고[生], 좌관맥의 목이 좌촌맥의 화(火)를 낳는다. 좌촌맥의 화가 우척맥의 화에 이어지고, 우척맥의 화가 우관맥의 토(土)를 낳는다. 우관맥의 토가 우촌맥의 금(金)을 낳고, 우촌맥의 금이 좌척맥의 수를 낳는다. 이처럼 낳고 또 낳는 것이 끊이지 않으니 어미와 자식처럼 친밀하다.

○左寸火剋右寸金, 左關木剋右關土, 左尺水剋右尺火, 左剛右柔, 有夫婦之別也, 左手屬陽, 右手屬陰, 左寸君火, 以尊而在上, 右寸³相火以卑而在下, 有君臣之道也.

○좌촌맥의 화가 우촌맥의 금을 누르고[剋], 좌관맥의 목이 우관맥의 토를 누르며, 좌척맥의 수가 우척맥의 화를 누른다. 이처럼 좌측은 강하고 우측은 부드러우니 남편과 아내처럼 구별이 있다. 왼손은 양에 속하고 오른손은 음에 속하며, 좌촌맥의 군화는 존귀하여 위에 있고 우척맥의 상화는 비천하여 아래에 있으니 군신의 도리가 여기에 있다. 《입문》

人迎氣口脈 인영맥·기구맥

左手關前曰人迎, 右手關前曰氣口, 兩關之後一分卽曰神門, 故脈法讚曰,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與命門俱出尺部, 魂魄穀神, 皆見寸口.

왼손의 관부(關部) 앞을 인영맥이라 하고 오른손의 관부 앞을 기구맥이라 하며, 양쪽 관부의 1푼 뒤를 신문(神門)이라 한다. 그래서 《맥법찬(脉法讚)》에, "간심은 왼쪽에서 나오고, 비폐는 오른쪽에서 나오며, 신(腎)과 명문은 모두 척부에서 나온다. 혼(魂)·백(魄)·곡(穀)·신(神)이 모두 촌구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二十七脈 27맥

浮 부맥

陽脈也, 按之不足, 舉之有餘, 脈在肉上行也, 瞥瞥如羹上肌, 又曰, 泛泛浮浮, 如水漂木. ○浮爲風爲虛, 浮而有力爲風, 無力爲虛.

양맥이다. 누르면 맥이 부족하고 약간 들면 맥에 여유가 있다. 맥이 살 위에서 흐르는 것으로 고깃국에 고기가 언뜻언뜻 보이는 듯 하다. 또, "물에 나무가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부맥은 풍증이거나 허증이다. 맥이 부하면서 힘이 있으면 풍증이고, 무력하면 허증이다.

芤 규맥

陽脈也, 浮大而軟, 按之中空傍實, 如按葱葉, 芤者, 葱葉也.

양맥이다. 부대(浮大)하면서 연(軟)하다. 누르면 가운데는 비어 있고 옆은 실하여 파 앞을 누르는 것 같다. 규란 파 앞이다.

○芤者, 失血之候, 爲吐衄便尿等血.

○규맥은 실혈의 증후로 토혈, 육혈, 변혈, 요혈의 증상이 있다.

滑 활맥

陽脈也, 按之累累如珠, 往來疾速, 又曰, 往來流利, 應指圓滑如珠.

양맥이다. 누르면 구슬이 줄줄이 달린 것 같고 흐름이 빠르다. 또, "막힘 없이 흘러가며 손가락의 느낌이 구슬처럼 둥글고 매끄럽다"고 하였다.

○滑爲多痰, 滑者, 血實氣壅之候, 滑而不斷絕者, 經不閉也, 其有斷絕者, 經閉也, 蓋滑主月經閉也.

○활맥은 대부분 담음증이다. 활맥은 혈이 실하고 기가 막힌 증후이다. 맥이 활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월경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고, 끊어지는 것은 월경이 끊어진 것이다. 활맥은 주로 월경이 끊어지면 나타난다.

實 실맥

陽脈也, 舉按皆有力, 隱指幅幅然, 浮中沈皆有力曰實, 又曰健而有力.

양맥이다. 누르거나 약간 들거나 모두 힘이 있고, 자세히 느끼면 뭉친 느낌이 있으며, 부(浮), 중(中), 침(沈)에 모두 힘이 있다. 또, "강건하면서 힘이 있다"고 하였다.

○實者, 三焦氣滿之候, 又曰, 實爲熱, 爲吐.

○실맥은 삼초의 기가 그득한 증후이다. 또, "실맥이면 열이 있거나 토한다"고 하였다. [《입문》]

弦 현맥

陽脈也, 勁直以長如弦, 又曰, 舉之無有, 按之如弓弦狀.

양맥이다. 활처럼 굳세고 곧으며 길다. 또, "약간 들면 맥이 없다가 누르면 활시위 같다"고 하였다.

○弦者, 氣血收斂⁴不舒之候, 又曰, 弦脈爲勞, 爲寒熱瘧, 爲拘急痛, 偏弦爲飲.

○현맥은 기혈이 모여서 퍼지지 않는 증후이다. 또, "현맥이면 허로이거나, 한열이 왕래하는 학질이거나, 당기고 아프다. 한쪽만 현하면 음병(飲病)이다"라고 하였다.

○最難調治者, 弦脈也, 弦爲肝脈, 肝木剋脾土, 五藏俱傷故也.

○치료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현맥이다. 현맥은 간맥으로 간목이 비토를 눌러 오장이 모두 상했기 때문이다.

緊 긴맥

陽脈也, 數而有力爲緊, 又曰, 舉按急數, 指下如牽⁵轉索之狀, 緊如切⁶狀, 誠得之.

양맥이다. 삭(數)하면서 힘이 있는 것이 긴맥(緊脉)이다. 또, "들거나 누르거나 급삭(急數)하여 손가락에 팽팽한 노끈이나 밧줄을 만지는 느낌이 있고 끊어질 듯이 팽팽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다.

○緊者, 風寒激搏, 伏於陽脈絡之候, 又曰, 弦緊爲傷寒, 又曰, 人迎緊盛傷於寒, 氣口緊盛傷於食.

○긴맥은 풍한이 치고 들어와 양맥락에 숨어든 증후이다. 또, "현긴맥(弦緊脉)은 상한이다"라고 하였고, 또, "인영맥이 긴성(緊盛)하면 한사에 상한 것이고, 기구맥이 긴성하면 음식에 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洪 홍맥

陽脈也, 指下洪大有力, 如洪水波浪, 卽鉤脈也, 極大滿指曰洪, 卽大脈也.

양맥이다. 손가락에 홍수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넓고 크며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맥(鉤脉)이다. 매우 커서 손에 가득 차는 것이 홍맥이니, 곧 대맥(大脉)이다.

○洪者, 榮衛大熱, 血氣燔灼之候, 又曰, 洪爲熱爲脹.

○홍맥은 영위에 크게 열이 나서 혈기가 불타오르는 증후이다. 또, "홍맥은 열증이거나 배가 불러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微 미맥

陰脈也, 若有若無, 極細而軟, 無浮沈之別, 曰微, 微如細絲, 時或欲絕.

음맥이다. 있는 듯 없는 듯 매우 가늘고 부드러우며, 부(浮)·침(沈)에 차이가 없는 것을 미맥이라고 한다. 가는 실처럼 미미하여 때로 끊어질 듯 하다.

○微者, 血氣俱虛之候.

○미맥은 혈기가 모두 허한 증후이다.

沈 침맥

陰脈也, 輕手不見, 重手乃得曰沈, 沈若爛綿, 尋之至骨.

음맥이다. 가볍게 누르면 나타나지 않다가 깊게 누르면 나타나는 것이 침맥이다. 오래된 솜처럼 눌러 있고 뼈 부근에서 맥이 나타난다.

○沈者, 陰氣厥逆, 陽氣不舒之候.

○침맥은 음기는 거슬러 오르고 양기는 퍼지지 못하는 증후이다.

緩 완맥

陰脈也, 一息四至, 往來和緩, 少駛於遲, 又曰, 舉按大而慢也,

음맥이다. 숨을 1번 쉴 때 4번 된다. 맥의 흐름이 평화롭고 느리지만 지맥(遲脈)보다는 약간 빠르다. 또, "손가락을 누르거나 들거나 맥이 크고 느리다"고 하였다.

緩者, 衛氣有餘, 榮氣不足之候.

완맥은 위기는 남고 영기는 부족한 증후이다.

瀦 색맥

陰脈也,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又曰, 往來澁滯, 如雨沾沙, 如輕刀刮竹狀, 瀦與澁同

음맥이다. 가늘고 더디며 그 흐름은 좋지 않고 흠어진다. 간혹 한 번 멎었다가 다시 흐르기도 한다. 또, "흐름이 걸끄럽고 막혀서 비가 모래에 떨어진 것 같거나 가벼운 칼로 대나무를 긁는 것 같다"고 하였다. 색맥은 삽맥(澁脈)과 같은 것이다.

○瀦者, 氣多血少之候, 又曰, 瀦爲精竭血枯.

○색맥은 기다혈소(氣多血少)의 증후이다. 또, "색맥은 정이 고갈되고 혈이 마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遲 지맥

陰脈也, 一息三至, 去來極遲, 隨浮沈而見曰遲.

음맥이다. 숨을 1번 쉴 때 3번 뵈인다. 그 흐름이 매우 더디고, 부(浮)·침(沈)에 모두 나타나는 것을 지맥이라고 한다.

○遲者, 陰盛陽虛之候, 遲爲虛寒.

○지맥은 음성양허(陰盛陽虛)의 증후이다. 지맥은 허한증(虛寒證)이다.

伏 복맥

陰脈也, 伏者, 脈行筋下也, 輕手取之, 絕不可見, 重手取亦不得, 必推開筋, 附着於骨, 乃得見也, 又曰, 沈至極曰伏, 伏潛於骨, 重按乃得.

음맥이다. '복(伏)'이라 한 것은 맥이 근 아래에서 흐른다는 뜻이다. 가볍게 손을 대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깊게 눌러도 나타나지 않으며, 반드시 근을 밀어젖히고 뼈에 닿도록 꺾 눌러야 나타난다. 또, "맥이 아주 깊은 것을 복맥이라고 한다. 복맥은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깊게 눌러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伏者, 陰陽潛伏, 關格閉塞之候, 又曰, 伏爲積聚, 停痰, 蓄水.

○복맥은 음양이 숨어들고 관격(關格)으로 막힌 증후이다. 또, "복맥은 적취가 있거나 담이 정체되었거나 물이 뭉쳐 있는 것이다."

濡 유맥

陰脈也, 卽, 軟脈也, 極軟而浮細, 輕手乃得, 不任尋按, 曰濡, 軟而無力也.

음맥으로 곧 연맥(軟脈)이다. 매우 부드러우면서 부세(浮細)하여 가볍게 손을 대야 나타나고 깊게 누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맥을 유맥(濡脈)이라고 한다. 부드러우며 힘이 없는 것이다.

○濡者, 血氣俱不足之候, 又曰, 爲亡血, 爲自汗.

○유맥은 혈기가 모두 부족한 증후이다. 또, "유맥은 망혈이나 자한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弱 약맥

陰脈也, 極軟而沈細, 按之如欲絕, 沈而無力.

음맥이다. 매우 연(軟)하면서 침세(沈細)하여 누르면 끊어질 듯하고 깊게 누르면 무력하다.

○弱乃六極之脈, 老人則爲順, 少壯則爲逆, 脈弱者無陽, 又主客風面腫.

○약맥은 육극증(六極證)의 맥이다. 노인은 순증이지만 어릴 때나 장년에 나타
나면 역증이다. 맥이 약한 것은 양기가 없는 것이다. 또, 약맥은 풍사로 얼굴이
부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長 장맥

陽脈也, 按之洪大而長, 出於本位, 三關通度.

양맥이다. 누르면 홍(洪)·대(大)하면서 장(長)하고,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삼
관(三關)에 모두 나타난다.

○氣血俱有餘也, 長爲陽毒, 主三焦熱, 及渾身壯熱, 又曰, 長而緩者, 胃脈也, 百病皆
愈, 蓋長則氣治也.

○장맥은 기혈이 모두 남아 도는 것이다. 장맥은 양독(陽毒)이 있는 것으로 주
로 삼초열이나 온몸에 심한 열이 있을 때 나타난다. 또, "맥이 장(長)·완(緩)한
것은 위맥(胃脉)이니 모든 병이 다 나을 징조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장맥이
보이면 기가 다스려진다.

短 단맥

陰脈也, 兩頭無, 中間有不及本位曰短.

음맥이다. 양쪽 끝에는 맥이 보이지 않고 가운데만 나타나 본래 위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단맥이라고 한다.

○爲心腹痛, 爲宿食, 爲氣鬱, 又曰, 諸病脈短 皆難治, 蓋短則氣病, 無胃氣故也.

○단맥은 명치가 아프거나 숙식(宿食)이 있거나 기울어 있다. 또, "모든 병에 맥이 단(短)하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단맥이 보이면 기에 병이 있으니 위기(胃氣)가 없기 때문이다.

虛 허맥

陰脈也, 遲大而軟, 輕舉, 指下豁然而空, 又曰, 尋之不足, 舉之有餘.

음맥이다. 지대(遲大)하면서 연(軟)하여 가볍게 누르면 손가락 아래에 넓게 빈 듯한 느낌이 있다. 또, "깊게 누르면 맥이 부족하고 약간 들면 맥에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虛者, 血氣俱虛之候, 又曰, 虛爲傷暑之脈.

○허맥은 혈기가 모두 허한 증후이다. 또, "허맥은 더위 먹은[傷暑] 맥이다"라고 하였다.

促 촉맥

陽脈也, 去來數, 時一止復來, 又曰尋之極數.

양맥이다. 흐름이 빠르고 때로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오는 것이다. 또, "깊게 누르면 매우 빠르다"고 하였다.

○促爲怒厥熱極, 老人及久病得之非福.

○촉맥은 노기로 기가 거슬러 오르거나 열이 심한 것이다. 노인이나 오래된 병에 촉맥이 있으면 좋지 않다.

結 結맥

陰脈也, 往來遲緩, 時一止復來, 又曰, 指下聚而却還曰結.

음맥이다. 그 흐름이 지완(遲緩)하고 때로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오는 것이다. 또, "손가락 아래에 모여 있다가 문득 다시 흩어지는 것을 결맥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結爲陰盛爲積聚.

○결맥은 음이 성하거나 적취가 있는 것이다.

代 代맥

陰脈也, 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由是復止, 尋之良久, 乃復強起曰代, 又曰動中一止, 停久乃還, 代者更代也, 止歇有定數, 未比促結止而不定.

음맥이다. 맥이 뛰다가 중간에 멎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다가 다시 뛴다. 이렇게 맥이 멎었을 때 한참 동안 깊이 누르면 다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대맥(代脈)이라고 한다. 또, "맥이 뛰다가 멈추는데, 오랫동안 멈춘 후 다시 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代)란 교대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멎는 것은 촉맥(促脈)과 결맥(結脈)이 아무 때나 멎는 것과는 다르다.

○代者藏氣絕危亡之脈也. 代爲脾元氣衰.

○대맥은 장부의 기가 끊어진 것으로 위급한 맥이다. 대맥은 비의 원기가 쇠한 것이다.

牢 뇌맥

牢卽革脈也, 陽脈也, 沈而有力, 動而不移曰牢, 牢比弦緊, 轉堅而勁.

뇌맥(牢脈)은 혁맥(革脈)으로 양맥이다. 침(沈)하면서 힘이 있고 동(動)하면서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뇌맥이라고 한다. 뇌맥은 현맥(弦脈)과 긴맥(緊脈)에 비하면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다.

○寒虛相搏則革, 婦人則半產崩漏, 男子則亡血失精.

○한(寒)과 허(虛)가 맞부딪치면 혁맥(革脈)이 된다. 부인에게는 유산·붕루가 있고, 남자에게는 망혈·실정(失精)이 있다.

動 동맥

陰脈也, 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大如豆, 厥厥然動搖, 名曰動, 又曰, 不往不來, 不離其處, 多於關部見之, 動者, 陰陽氣相搏耳, 陰陽和則脈不動也.

음맥이다. 삭맥이 관부(關部)에만 나타나고 그 위아래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콩알만한 것이 흔들리는 것을 동맥(動脈)라고 한다. 또, "동맥은 움직이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으며 대부분 관부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동맥은 음기와 양기가 맞부딪친 것이다. 음양이 조화로우면 맥이 동하지 않는다.

○陰陽相搏名曰動, 陽動則陽虛, 故汗出, 陰動則陰虛, 故發熱, 又曰, 動爲驚, 爲痛, 爲血痢, 爲崩漏.

○음양이 맞부딪친 것을 동맥이라고 한다. 양이 동하면 양허하기 때문에 땀이 나고, 음이 동하면 음허하기 때문에 열이 난다. 또, "동맥이 나타나면 경증(驚證)、통증、혈리(血痢)、붕루가 있다"고 하였다.

細 세맥

陰脈也, 較微脈差大耳, 細如一線, 小而有力, 又曰, 細細如絲, 往來極微.

음맥이다. 미맥(微脈)보다는 약간 큰 맥이다. 세맥은 실처럼 가늘고 작으면서 힘이 있다. 또, "실처럼 가늘고, 그 흐름은 매우 미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細爲精血不足, 脛痠髓冷, 又曰, 細爲氣少.

○세맥은 정혈이 부족한 것으로 정강이가 시리고 골수가 차다. 또, "세맥은 기가 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數 삭맥

陽脈也, 一息六至, 去來促急, 又曰, 過平脈兩至曰數.

양맥이다. 숨을 1번 쉴 때 6번 뛰어 그 흐름이 매우 급한 것이다. 또, "평맥(平脈)보다 맥이 2번 더 뛰는 것을 삭맥이라 한다"고 하였다.

○數爲心煩, 數而有力爲熱, 無力爲瘡.

○삭맥은 심번이 있다. 삭하면서 힘이 있으면 열증이고, 힘이 없으면 창(瘡)이 있는 것이다.

大 대맥

陽脈也, 大卽洪之別名也. 大爲病進, 爲血虛.

양맥이다. 대맥(大脉)은 홍맥(洪脉)의 별칭이다. 대맥은 병이 진행되는 것이거나 혈이 허한 것이다.

散 산맥

陽脈也, 舉之則似浮而散大無力, 按之則滿指, 散而不聚, 去來⁷不明, 漫無根柢.

양맥이다. 약간 들면 부맥(浮脉)과 비슷하여 산(散)、대(大)하고 힘이 없으며, 누르면 손가락에 가득 찼다가 흩어져서 모이지 않으며, 그 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산만하여 뿌리가 없는 것이다.

渙漫不收, 其脈爲散, 散乃將死脈, 散而不聚, 命亦危矣.

흩어져서 모이지 않는 것이 산맥이다. 산맥은 죽기 전의 맥이다. 흩어져 모이지 않으면 생명도 위급하다.

相類脈 유사맥

浮與芤相類, 弦與緊相類, 滑與數相類, 牢與實相類, 沈與伏相類, 微與瀦相類, 軟與弱相類, 緩與遲相類, 又曰, 浮似虛, 滑似動.

부맥(浮脉)과 규맥(芤脉)이 유사하고, 현맥(弦脉)과 긴맥(緊脉)이 유사하다.
활맥(滑脉)과 삭맥(數脉)이 유사하고, 뇌맥(牢脉)과 실맥(實脉)이 유사하다.
침맥(沈脉)과 복맥(伏脉)이 유사하고, 미맥(微脉)과 색맥(瀦脉)이 유사하다.
연맥(軟脉)과 약맥(弱脉)이 유사하고, 완맥(緩脉)과 지맥(遲脉)이 유사하다.
또, "부맥(浮脉)은 허맥(虛脉)과 유사하고, 활맥(滑脉)은 동맥(動脉)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五臟脈 오장맥

心之平脈, 浮大而數. 肝之平脈, 弦細而長. 腎之平脈, 沈濡而滑. 肺之平脈, 浮短而瀦. 脾之平脈, 和緩而大.

심(心)의 평맥(平脉)은 부대(浮大)하면서 삭(數)하고, 간(肝)의 평맥은 현세(弦細)하면서 장(長)하다. 신(腎)의 평맥은 침유(沈濡)하면서 활(滑)하고, 폐(肺)의 평맥은 부단(浮短)하면서 색(瀦)하며, 비(脾)의 평맥은 화완(和緩)하면서 대(大)하다.

六腑脈 육부맥

小腸脈微瀦⁸, 膀胱脈微沈, 膽脈微弦而急, 胃脈微緩, 此乃府與藏合氣, 同氣相求, 斯有得其近似者矣.

소장맥은 미홍(微洪)하고, 대장맥은 미색(微瀦)하다. 방광맥은 미침(微沈)하고, 담맥은 미현급(微弦急)하며, 위맥(胃脈)은 미완(微緩)하다. 육부가 오장의 기와 합쳐지기 때문이니 '동기상구(同氣相求)'라고 한 것은 그 뜻을 거의 터득한 것이다.

四時脈 사계절의 맥

肝弦, 心洪, 肺瀦, 腎沈, 脾緩者, 本藏脈也, 然春微弦, 夏微洪, 秋微毛, 冬微石, 俱帶和緩, 是有胃氣無病.

간맥이 현(弦)한 것, 심맥이 홍(洪)한 것, 폐맥이 색(瀦)한 것, 신맥이 침(沈)한 것, 비맥이 완(緩)한 것은 본장(本藏)의 맥이다. 봄에 약간 현(弦)하고, 여름에 약간 홍(洪)하고, 가을에 약간 모(毛)하고, 겨울에 약간 석(石)한 것은 모두 조화로운 기운을 띤 것이다. 위기(胃氣)가 있는 것이므로 병이 없다.

寸關尺所主 촌관척이 주관하는 부위

脈有三部, 卽、寸、關、尺也, 一部有浮、中、沈三診, 是爲九候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 中部法人, 主膈下至臍之上有疾. 下部法地, 主臍以下至足之有疾.

맥에는 삼부(三部)가 있으니 촌·관·척이다. 하나의 부(部)에서 부(浮)·중(中)·침(沈)의 3가지로 진찰하니 구후(九候)가 된다. 상부는 하늘을 본받아 가슴 위에서 머리까지의 병을 주관한다. 중부는 사람을 본받아 격막 아래에서 배꼽까지의 병을 주관한다. 하부는 땅을 본받아 배꼽 아래에서 발까지의 병을 주관한다.

人身九候脈 삼부구후맥

上部天, 兩額之動脈, 以候頭角之氣. 上部地, 兩頰之動脈, 以候口齒之氣. 上部人, 耳前之動脈, 以候耳目之氣.

상부의 천은 양쪽 이마에서 뛰는 맥으로 두각(頭角)의 기를 살핍니다. 상부의 지는 양 뺨에서 뛰는 맥으로 입과 치아의 기를 살핍니다. 상부의 인은 귀 앞에서 뛰는 맥으로 귀와 눈의 기를 살핍니다.

○中部天, 太淵穴以候肺. 中部地, 合谷穴以候胸之氣. 中部人, 神門穴以候心.

○중부의 천은 태원혈로 폐를 살핍니다. 중부의 지는 합곡혈로 가슴속의 기를 살핍니다. 중부의 인은 신문혈로 심을 살핍니다.

○下部天, 太衝穴以候肝, 下部地, 太谿穴以候腎, 下部人, 衝陽穴以候脾胃之氣.

○하부의 천은 태충혈로 간을 살핍니다. 하부의 지는 태계혈로 신을 살핍니다. 하부의 인은 충양혈로 비위의 기를 살핍니다.

○察九候⁹, 獨小者病, 獨大者病, 獨疾者病, 獨遲者病, 獨熱者病, 獨寒者病, 獨陷下者病.

○구후의 맥을 살필 때 유독 작은 것도 병이고, 유독 큰 것도 병입니다. 유독 빠른 것도 병이고, 유독 느린 것도 병입니다. 유독 뜨거운 것도 병이고, 유독 찬 것도 병이며, 유독 가라앉은 것도 병입니다.

1. 麤 : 麤 ※《동의보감》↩

2. 次中按消息之, 次重按消息, ※《동의보감》, 문장이 비슷하여 꺾여진 듯하다.↩

3. 寸 尺 ※《동의보감》↩

4. 歛 : 斂 ※《동의보감》↩

5. : 繩 ※《동의보감》↩

6. : 繩 ※《동의보감》↩

7. 去來 : 來 ※《동의보감》↩

8. 瀦 洪, 大腸脉微瀦 ※《동의보감》, 소장맥과 대장맥을 혼동하여 잘못 배킨 듯 하다.↩

9. 候 : 侯 ※《동의보감》초간본

候 ※갑영동, 기영나, 기영국, 갑완와, 남산↩

† 手¹ 손

四肢爲諸陽之本 사지는 양의 근본이다

內經曰, 四肢者, 諸陽之本也, 陽盛則四肢實, 又曰, 諸陽受氣於四肢.

《내경》에, "사지는 양의 근본이다. 양이 성하면 사지가 튼튼하다"고 하였다.
또, "모든 양은 사지에서 기를 받는다"고 하였다.

手掌以候胃 손바닥에서 위를 살핀다

靈樞曰, 掌中熱者腹中熱, 掌中寒者腹中寒.

《영추》에, "손바닥에 열이 나면 뱃속에 열이 있고, 손바닥이 차면 뱃속이 차다."고 하였다.

傷寒手心熱者, 邪在裏也. 手背熱者, 邪在表也, 手足溫者, 陽證也. 手足塞²者, 陰證也.

상한으로 손바닥 가운데에 열이 나면 사기가 속에 있는 것이고, 손등에 열이 나면 사기가 겉에 있는 것이다. 손발이 따뜻하면 양증이고, 손발이 차면 음증이다.

四肢不用 사지를 쓰지 못하는 것

黃帝曰, 脾病而四肢不用, 何也? 岐伯對曰, 四肢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乃得稟也,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肢不得稟水穀氣, 氣日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皆無氣以生, 故不用焉.

황제가, "비병(脾病)에 사지를 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사지는 모두 위(胃)에서 기를 받지만 위기(胃氣)만으로는 경락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비에 힘입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에 병이 생겨 위의 진액을 운행시키지 못하면 사지가 수곡의 기를 받지 못하여 기가 날로 쇠약해지고 맥도(脈道)가 잘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골·기육이 모두 살아갈 기가 없어져서 사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帝曰, 人之羸者, 何氣使然. 岐伯曰, 胃不實則諸脈虛, 諸脈虛則筋脈解墮, 筋脈解墮則行陰用力, 氣不能復, 故爲羸, 羸, 謂手足羸曳也.

○황제가, "사람이 무력하게 늘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위가 실하지 않으면 모든 경맥이 허하고, 모든 경맥이 허하면 근맥이 늘어져 무력해집니다. 근맥이 늘어져 무력한데 성생활로 힘을 쓰면 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하게 늘어지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무력하게 늘어진다[羸]는 것은 손발을 늘어뜨려 끄는 것이다.

肩臂病因 견비병의 원인

靈樞曰, 肺心有邪, 其氣流于兩肘.

《영추》에, "폐심에 사기가 있으면 그 사기가 양 팔꿈치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手屈而不伸者, 其病在筋. 伸而不屈者, 其病在骨, 在骨守骨, 在筋守筋.

○팔을 굽혔는데 펴지 못하는 것은 병이 근에 있는 것이고, 폈는데 굽히지 못하는 것은 병이 골에 있는 것이다. 병이 골에 있으면 골을 보살피고, 병이 근에 있으면 근을 보살펴야 한다.

○酒家之癖, 多爲項腫臂痛, 蓋熱在上焦, 不能清利, 故醞釀日久, 生痰涎, 聚飲氣, 流走於項臂之間, 不腫則痛耳.

술을 잘 먹는 사람의 고질병은 대부분 목덜미가 붓고 팔이 아픈 것이다. 열이 상초에 있어 시원하게 소통되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쌓이고 농축되어 담연이 생기고 음기(飲氣)가 몰려 목덜미와 팔 사이를 돌아다니므로 붓거나 아프게 된다.

○臂爲風寒濕所搏, 或睡後手在被外, 爲寒邪所襲, 遂令臂痛, 或乳婦以臂枕兒, 傷於風寒, 亦致臂痛.

○팔에 풍한습의 사기가 치받거나 잠든 후에 팔을 이불 밖에 두어 한사가 들어 오면 팔이 아프다. 혹 수유 중인 부인이 아이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풍한에 상하여도 팔이 아프다.

○又有氣血凝滯臂痛, 風濕臂痛, 七情臂痛.

○또 기혈이 엉기고 막혀 팔이 아프거나 풍습으로 팔이 아프거나 칠정으로 팔이 아프기도 하다.

痰飲多爲臂痛 담음이 있으면 팔이 아플 때가 많다

凡人忽患胸背手脚腰膀隱痛不可忍, 連筋骨牽引釣痛, 坐臥不寧, 時時走易不定, 意謂是風證, 或疑是癰疽, 皆非也, 此乃痰涎伏在心膈上下, 變爲此疾.

갑자기 가슴、등、손발、허리、사타구니가 은은히 아파서 참을 수 없고, 근육과 뼈까지 당기고 찌르듯 아프며,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않고, 자주 옮겨다니면서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을 때 풍증으로 보거나 옹저로 의심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담연이 명치 주위에 숨어 있다가 이러한 병이 된 것이다.
[《집요》]

手循衣撮空摸床 손으로 옷을 어루만지고 허공을 저으며 침상을 더듬는 것

傷寒熱病之極, 手循衣撮空摸床者凶, 產後血脫, 亦有此證.

상한열병이 극심하여 손으로 옷을 어루만지고 허공을 저으며 침상을 더듬는 것은 좋지 않은 증상이다. 산후의 혈탈(血脫)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다.

○病人手尋衣領及亂捻物者, 肝熱也, 手搯³眉目鼻面者, 肺熱也.

○환자가 손으로 옷깃을 만지고 물건을 함부로 비트는 것은 간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눈썹、눈、코、안면을 후비는 것은 폐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代指 대지

代指者, 指頭先腫, 焮熱掣痛, 然後於爪甲邊結膿潰破, 甚者爪甲俱脫.

대지(代指)는 손가락 끝이 먼저 붓고 화끈거리며, 당기면서 아프다가 손톱 주위가 끓었다가 터지는 것이다. 심하면 손톱이 모두 빠진다.

1. 《동의보감》에는 수(手) 앞에 근(筋), 골(骨)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생략하였다 ←

2. 寒 : 冷 ※《동의보감》 ←

3. 搯 : 搯 ※《동의보감》 ←



† 足 다리

脈法 맥법

脚氣之脈, 其狀有四, 浮弦爲風, 濡弱濕氣, 遲濇因寒, 洪數熱鬱.

각기의 맥은 4가지가 있다. 부현(浮弦)한 것은 풍이고, 유약(濡弱)한 것은 습기이다. 지색(遲濇)은 한이고, 홍삭(洪數)은 열울이다.

厥有寒熱 한꺠과 열꺠

王太僕云, 厥者, 氣逆上也, 世謬傳爲脚氣, 內經曰, 寒厥者, 手足寒也. 熱厥者, 手足熱也, 蓋陽衰於下, 則爲寒厥. 陰衰於下, 則爲熱厥, 陰陽之氣不相接續, 則爲厥.

왕태복이, "꺠이란 기가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와전되어 각기라 하였다. 《내경》에, "한꺠는 손발이 찬것이고, 열꺠는 손발에 열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이 아래에서 쇠하면 한꺠이 되고, 음이 아래에서 쇠하면 열꺠이 된다. 음양의 기가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꺠이다.

脚氣異名 각기의 다른 이름

脚氣古謂之緩風, 又謂之厥者, 是古今之異名也, 有乾濕之分, 其脚腫者名濕脚氣, 不腫者名乾脚氣, 漸而至於足脛腫大如瓜瓠者有之.

각기를 옛날에는 완풍(緩風)이나 꺾이라고 하였으니 옛날과 지금은 이름이 다르다. 건각기·습각기로 구분하는데 다리가 붓는 것을 습각기라 하고, 붓지 않는 것을 건각기라 한다. 점점 진행되어 정강이가 박 크기만큼 커지는 것도 있다.

脚氣病因 각기의 원인

脚氣之疾, 實水濕之所爲也, 其爲病有證無名, 脚氣之稱, 自蘇敬始, 關中、河朔無有也, 惟南方地下水寒, 其清濕之氣中於人, 必自足始, 故經曰, 清濕襲虛, 則病起於下是也.

각기는 사실 수습(水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이 병은 증상은 있으나 이름은 없었다. 각기라는 명칭은 소경(蘇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황하 이북 지방에는 없던 병이다. 오직 남방은 지대가 낮고 물이 차가우니 그 차고 습한 기가 사람에게 적중되어 반드시 발에서 병이 시작된 것이다. 《경》에 '차가운 습기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오면 병은 하부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南方者, 其地下, 水土弱, 霧露之所聚也, 江東、嶺南, 春夏之交, 山林蒸鬱, 風濕毒氣爲甚, 足或感之, 遂成瘴毒, 脚氣.

○남방은 지대가 낮고 수질과 토질이 약하여 안개와 이슬이 모인다. 강동이나 영남지방은 봄이 여름으로 바뀔 때 산림의 증기(蒸氣)가 쌓여 풍습의 독기가 심해지는데, 이 독기가 발에 들어오면 마침내 장독(瘴毒)으로 각기가 된다.

脚氣病證 각기의 증상

靈樞曰, 脾有邪, 其氣流于兩股. 腎有邪, 其氣流于兩臑.

《영추》에, "비에 사기가 있으면 그 기가 양 허벅지에 머물고, 신(腎)에 사기가 있으면 그 기가 양 오금에 머문다"고 하였다.

蹠跛, 寒風濕之病也.

다리를 절룩거리리는 것은 한풍습에 의한 병이다.

○脚氣爲病, 雖起於足, 實周乎身, 或壯熱頭痛, 或百節拘攣, 或十指走注, 或轉筋急痛, 或小腹不仁, 以至胸滿喘息, 煩悶怔忡, 昏愼羞明, 腹痛下利, 嘔噦痰涎, 惡聞食氣, 大小便多是秘澁, 自腿至膝, 自脛及踝, 屈弱頑痺, 攣急痠疼, 或焮不焮, 或腫不腫, 皆其候也, 其傳足六經外證與傷寒頗類, 但卒然脚痛爲異耳.

각기는 비록 다리에서 생기지만 사실은 온몸을 다 돌아다닌다. 열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온 관절에 경련이 일거나 열 손가락까지 경련이 생긴다. 근이 뒤틀려 당기고 아프거나, 아랫배에 감각이 없다. 심지어는 가슴이 그득하고 숨을 헐떡이며,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정신이 없고 밝은 것을 싫어한다. 배가 아프고 설사하며, 구역질·딸꾹질에 담연이 있으며, 음식 냄새를 맡기 싫어하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대퇴에서 무릎, 정강이에서 복사뼈까지 잘 굽히지 못하고 심하게 저리며, 경련이 일면서 시큰거리고 아프다. 화끈거리거나 화끈거리지 않거나, 붓거나 붓지 않는다. 이것이 모두 각기의 증후이다. 다리의 육경으로 전해진 각기의 증상은 상한과 비슷하지만,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있는 점에서 다르다.

脚氣危證 각기의 위험한 증상

凡脚氣覺病候有異卽, 須急治之, 稍緩則氣上肩息, 胸脅逆滿, 急者死不旋踵, 寬者數日必死, 不可不急治也, 但見心下急, 氣喘不停, 或自汗出, 或乍熱乍寒, 其脈促短而數, 嘔吐不止者死.

각기에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급히 치료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상기가 되어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쉬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해진다. 병세가 급하면 죽음이 곧 닥치고, 급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이 지나면 죽게 되니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멍치가 팽팽하고 계속 숨을 헐떡이거나, 자한이 나거나 잠깐 더웠다 추웠다하거나, 맥이 촉진(促短)하면서 삭(數)하고 구토가 멎지 않으면 죽는다.

脚氣按摩法 각기의 안마법

涌泉穴在足心, 濕氣皆從此入, 日夕之間, 常以兩足赤肉, 更次用一手握指, 一手摩擦, 數自¹多時, 覺足心熱卽, 將脚指略略動轉, 倦則少歇, 或令人擦之亦得, 終不若自擦爲佳, 脚力強健, 無痿弱痠痛之疾矣.

용천혈은 발바닥 가운데에 있는데, 습기는 모두 이곳으로 들어온다. 낮과 저녁의 사이에 늘 양 발의 벌건 살 부분을 번갈아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지른다. 여러 번 반복하여 발바닥 가운데에 열감을 느끼면 발가

락을 돌려주고 피곤하면 조금 쉰다. 혹 다른 사람이 문질러 주어도 괜찮으나 스스로 문지르는 것만 못하다. 이와 같이 하면 다리 힘이 좋아지고, 다리가 무력하고 시큰거리고 아픈 것이 사라진다.

痿病之因 위병의 원인

內經曰, 肺者藏之長, 爲心之蓋也, 有所失亡, 所求不得, 則發肺鳴, 鳴則肺熱葉焦, 故曰, 五藏因肺熱, 肺焦發爲痿躄, 此之謂也.

《내경》에, "폐는 오장의 우두머리이고 심의 덮개이다. 뜻하던 대로 되지 않거나, 구하던 것을 구하지 못하면 폐가 울고, 폐가 울면 폐에 열이 나서 폐엽이 타들어 간다. '오장은 폐의 열로 폐가 타들어 가서 위벽(痿躄)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痿病治法 위병의 치료법

肺金體燥而居上, 主氣, 畏火者也, 脾土性濕而居中, 主四肢, 畏木者也, 火性炎上, 若嗜慾無節, 則水失所養, 火寡于畏而侮所勝, 肺得火邪而熱矣, 木性剛急, 肺受熱則金失所養, 木寡于畏而侮所勝, 脾得木邪而傷矣, 肺熱則不能管攝一身, 脾傷則四肢不能爲用, 而諸痿之病作矣, 瀉南方則肺金清, 而東方不實, 何脾傷之有, 補北方則心火降, 而西方不虛, 何肺熱之有, 故陽明實則宗筋潤, 能束骨而利機關矣, 治痿之法, 無出於此.

폐금은 본체가 조하고 몸의 상부에 있으며, 기를 주관하고 화를 두려워한다. 비토는 성질이 습하고 몸의 가운데에 있으며, 사지를 주관하고 목을 두려워한다. 화의 성질은 타오르는 것이다. 기욕(嗜慾)을 절제하지 않으면 수가 길러지지 못해 화가 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화가 자신을 이기는 수를 업신여기게[侮所勝] 되어 폐가 화사(火邪)를 받아 열이 난다. 목의 성질은 강하고 급하다. 폐가 열을 받으면 금이 길러지지 못해 목이 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목이 자신을 이기는 금을 업신여기게[侮所勝] 되어 비가 목사(木邪)를 받아 상한다. 폐에 열이 나면 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비가 상하면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위병(痿病)이 생긴다. 남방을 사하면 폐금이 서늘해지고 동방이 실하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비를 상할 수 있겠는가? 북방을 보하면 심화가 내려가고 서방이 허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폐열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양명이 실하면 종근이 적셔지기 때문에 뼈를 묶고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한다. 위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鶴膝風 학슬풍

患痢後脚痛痿弱, 不能行履, 名曰痢風, 或兩膝腫大痛, 髀脛枯腊, 但存皮骨如鶴膝之節, 拘攣踞臥, 不能屈伸.

이질을 앓은 후 다리가 아프면서 마비되고, 약해져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을 이풍(痢風)이라고 한다. 간혹 양 무릎이 붓고 몹시 아픈데 넓적다리와 정강이는 바짝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 학의 무릎처럼 되기도 한다. 당기고 경련이

일어 몸을 구부리고 눕되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다.

甲疽瘡 갑저창

一名嵌甲, 或因割甲傷肌, 遂成瘡腫, 復緣窄靴²損, 四邊腫焮黃水出, 浸淫相染, 五指俱爛, 漸漸引上脚趺.

갑저창을 감갑(嵌甲)이라고도 한다. 발톱을 깎다가 살을 다쳐 창이 되어 부었는데, 볼이 좁은 신을 신어서 마찰되고 손상되어 주위가 붓고 화끈거리며, 누런 물이 나와 점점 옆으로 번져 다섯 발가락이 모두 짓무르며, 점점 다리나 발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肉刺 티눈

生指間礙痛, 不得着履靴, 此因穿窄靴而生.

티눈은 발가락 사이에서 자라난 것이 거슬리고 아파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것이다. 볼이 좁은 신을 신어서 생긴 것이다.

1. 自 目 ※동의보감

2. 斫 斫 ※《동의보감》

† 髮 모발

內經曰, 腎主髮, 又曰, 腎之合骨也, 其榮髮.

《내경》에, "신은 모발을 주관한다"고 하였고, 또, "신(腎)은 골과 상합하고 그 상태는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髮者血之餘 모발은 혈의 여분이다

血盛則髮潤, 血衰則髮衰, 血熱則髮黃, 血敗則髮白.

혈이 성하면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혈이 쇠하면 머리카락이 쇠한다. 혈에 열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누렇게, 혈이 상하면 머리카락이 희어진다.

髮、眉、鬚, 各有所屬 머리카락、눈썹、구레나룻이 속한 곳

髮屬心, 故上生, 稟火氣也. 眉屬肝, 故橫生, 稟木氣也. 鬚屬腎, 故下生, 稟水氣也.

머리카락은 심에 속하기 때문에 위로 자란다. 화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눈썹은 간에 속하기 때문에 옆으로 자란다. 목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턱수염은 신(腎)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로 자란다. 수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人之髮、眉、鬚, 雖皆毛類, 而所主五藏各異, 故有老而鬚白, 眉髮不白者, 或髮白而眉鬚不白者, 藏氣有所偏故也, 男子腎氣外行, 上爲鬚, 下爲勢, 故女子宦人無勢, 則亦無鬚, 而眉髮無異於男子, 則知不屬腎也明矣.

○사람의 머리카락, 눈썹, 턱수염은 비록 모두 털 종류이지만 주관하는 오장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늙어서 턱수염은 희고 눈썹과 머리카락은 희지 않거나, 머리카락은 희고 눈썹과 턱수염은 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장의 기가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신기가 겉으로 나와서 올라가면 턱수염이 되고 내려가면 고환이 된다. 여자와 환관은 고환이 없으므로 수염은 없지만 눈썹과 머리카락은 남자와 다를 게 없으니 눈썹과 머리카락이 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婦人無鬚 부인에게 수염이 없는 이유

黃帝曰, 婦人無鬚者, 無血氣乎. 岐伯曰,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腹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¹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皮膚, 生毫毛, 今婦人之生,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 衝任之脈, 不榮口唇², 故鬚不生焉.

황제가, "부인에게 수염이 없는 것은 혈기가 없기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충맥·임맥은 모두 포에서 일어나 뱃속을 따라 올라가 경락의 바다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배의 오른쪽으로 따라 올라가 인후에 모인 후 갈라져 입술과 입에 이어집니다. 혈과 기가 왕성하면 피부를 채우고 살을 뜨겁게 하지만, 혈만 왕성하면 피부에 스며들어 털을 생기게 합니다. 부인들의 경우 기는 남고 혈은 부족하니 혈을 자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임맥이 입과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鬚髮榮枯 수염과 머리카락의 성쇠

內經曰, 女子七歲, 齒更髮長, 五七面始焦, 髮始墮, 六七面焦髮白, 丈夫八歲, 齒更髮長, 五八髮墮齒枯, 六八面焦髮白.

《내경》에, "여자는 7세에 치아를 갈고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35세에는 얼굴이 마르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 42세에는 얼굴이 완전히 마르고 머리카락이 희어지기 시작한다. 남자는 8세에 치아를 갈고 머리카락이 자란다. 40세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마른다. 48세에는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다"고 하였다.

鬚髮黃落 수염과 머리카락이 누렇게 떨어지는 것

老來髮落鬚長, 常也, 少壯有髮落, 或鬚亦落者, 火炎血燥故也.

늙으면 머리카락은 빠지지만 수염은 자라는 것이 정상이다. 젊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수염이 빠지는 것은 화가 타올라 혈이 마르기 때문이다.

○髮燥者, 膽有怒火也, 膽合膀胱, 上榮毛髮, 風氣盛則焦燥, 汁竭則枯也.

○머리카락이 푸석해진 것은 담에 노화(怒火)가 있기 때문이다. 담은 방광과 합쳐져 모발에 올라가 영양을 공급하니 풍기가 왕성하여도 머리카락이 마르고 수액이 다하여도 머리카락이 마른다.

髮宜多櫛 머리카락은 자주 빗어야 한다

髮多梳則明目去風, 故道家晨梳, 常以百二十爲數.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면 눈이 밝아지고 풍을 없앤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늘 새벽에 빗질을 120번씩 하였다.

1. 脣 : 脣 ※동의보감 <→

2. 脣 : 脣 ※동의보감 <→



† 前陰 전음

內經曰, 前陰者, 宗筋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 註曰, 宗筋挾臍下, 合於陰器, 太陰脾脈, 陽明胃脈, 皆輔近宗筋, 故云合也.

《내경》에, "전음이란 종근이 모이는 곳이고, 태음과 양명이 합쳐지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종근은 배꼽 옆으로 내려와 생식기와 합해진다. 태음비맥과 양명위맥은 모두 종근을 가까이 보좌하기 때문에 '합쳐진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前陰諸疾 여러 가지 전음병

足厥陰之脈病, 爲丈夫癰疽、狐疝, 婦人小腹腫, 督脈起於下極之俞, 竝於脊裏, 上至風府, 任脈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至咽喉,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족궐음의 맥에 병이 들면 남자는 퇴산·호산이 생기고, 부인은 아랫배가 붓는다. 독맥은 회음에서 일어나 척추의 속으로 타고 올라가 풍부에 이른다. 임맥은 중극의 아래에서 일어나 음모의 발제로 올라가고 배속을 따라 올라가서 인후에 이른다. 임맥의 병은 남자의 경우 안으로 뭉쳐 칠산이 되고, 여자의 경우 대하와 징가·적취가 된다.

○陰腫、陰痿、陰痒、陰挺、陰縮、木腎、陰蝕瘡、腎藏風, 皆前陰之疾也.

◦음종(陰腫)·음위(陰痿)·음양(陰痒)·음정(陰挺)·음축(陰縮)·목신(木腎)·음식창(陰蝕瘡)·신장풍(腎藏風)이 모두 전음의 질병이다.

疝病之因 산병의 원인

疝者, 辜丸連小腹急痛也, 有痛在辜丸者, 有在五樞穴邊者, 皆足厥陰之經也, 或有形, 或無形, 或有聲如蛙, 有形如瓜¹, 自素問以下, 皆以爲寒, 理固然也, 予思之, 此病始於濕熱在經, 鬱而至久, 又感寒氣外束, 所以作痛, 若只作寒論, 恐爲未備, 人有踢氷涉水, 終身不病, 此者無熱故也, 蓋大怒則火起於肝, 醉飽則火起于胃, 房勞則火起于腎, 火積之久, 母能金²子虛, 濕氣便盛, 厥陰屬木, 係於肝, 爲將軍之官, 其性急速, 火性又暴, 爲寒所束, 宜其痛之太暴也, 有以烏頭梔子作湯服之, 其效亦敏, 然濕熱又須分多少而治, 濕者腫多瘻病是也.

산병이란 고환에서 아랫배까지 당기고 아픈 것이다. 고환이 아픈 경우가 있고, 오추혈 주변이 아픈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두 족궐음경의 병이다. 형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개구리 소리 같은 것이 나기도 하고, 오이 같은 모양을 띠는 때도 있다. 《소문》 이후로 산병을 모두 한으로 보았는데 물론 이치를 따져 보면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병은 습열이 경(經)에 오랫동안 울체된 상태에서 한기가 들어와 밖으로 감싸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으로만 논한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열음에서 미끄러지거나 물을 건너도 평생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열이 없기 때문이다. 크게 성내면 화가 간에서 일어나고, 술에 취하거나 배가 부르면 화가 위(胃)에서 일어나고, 성생활이 지나치면 화가 신(腎)에서 일어난다. 화가 오래도록 쌓

이면 모(母)가 자(子)를 허하게 하기 때문에 습기가 왕성해진다. 결음은 목에 속하는데 장군에 해당하는 기관[將軍之官]인 간에 이어서므로 그 성질이 급하고, 화의 성질 또한 사납기 때문에 한기가 감싸면 통증이 매우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 오두·치자를 끓여 복용하면 효과가 빠르다. 그러나 습·열 중 어느 것이 중한지 가려서 치료해야 한다. 습은 붓는 경우가 많은데 퇴산이다.

脈法 맥법

內經皆以滑脈爲疝.

《내경》에서는 활맥(滑脉)을 모두 산병으로 보았다.

○心脈搏滑急爲心疝, 肺脈沈搏爲肺疝, 腎脈肝脈大急沈皆爲疝.

○심맥이 활급(滑急)한 것은 심산이고, 폐맥이 침(沈)한 것은 폐산이다. 신맥과 간맥이 대(大)·급(急)·침(沈)한 것은 모두 산병이다.

疝專主肝 산병은 오로지 간이 주관한다

疝專主肝經, 與腎經絕不相干.

산병은 오로지 간경이 주관하지, 신경(腎經)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疝痛, 屬足厥陰肝經也, 故疝痛與小腹痛同一治法.

산통은 족궐음간경에 속하고, 아랫배도 간경에 속한다. 그래서 산통과 소복통은 치료법이 같다.

疝病有七 7가지의 산병

疝名雖七, 寒疝、卽疝之總名也, 水疝, 卽癰疝之屬. 氣疝卽, 狐疝之屬, 血疝卽, 癰癰之屬, 惟筋疝罕見之, 蓋下疳瘡之屬也.

산병에는 7가지 종류가 있으나 한산이 곧 산병을 총괄하는 이름이다. 수산(水疝)은 퇴산(癰疝)에 속하고, 기산(氣疝)은 호산(狐疝)에 속하며, 혈산(血疝)은 응결(癰癰)에 속한다. 근산(筋疝)은 드물게 보이는데 하감창(下疳瘡)에 속한다.

疝病證候 산병의 증상

內經曰, 小腹控臑引腰脊, 上衝心, 唾出清水, 及爲噦噫, 邪在小腸也.

《내경》에, "아랫배에서 고환과 요추까지 당기며, 위로 심장을 치받으며, 맑은 침을 뱉고 딸꾹질과 트림을 할 때는 사기가 소장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靈樞曰, 腎脈生病, 從小腹³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영추》에, "신맥(腎脉)에 병이 생기면 아랫배에서 위로 심장을 치받으며 아프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여 충산(衝疝)이 된다"고 하였다.

○小腹痛有三, 肝病小腹引脅痛. 小腸病小腹引臑丸, 腰脊痛. 膀胱病小腹痛腫, 不得小便.

○아랫배가 아픈 데는 3가지가 있다. 간병에는 아랫배에서 옆구리까지 당기면서 아프다. 소장병에는 아랫배에서 고환과 요추까지 당기면서 아프다. 방광병에는 아랫배가 붓고 아프며 소변을 보지 못한다.

陰卵偏墜 음낭 한쪽이 처진 것

偏左多瘀血怒火, 偏右多濕痰食積.

좌측이 처지는 것은 대부분 어혈이나 화를 내어 생긴 것이고, 우측이 처지는 것은 대부분 습담이나 식적으로 인한 것이다.

木腎 목신

木腎之證, 脹大作痛, 頑痺結硬, 治法當溫散溫利以內消之, 又有墜墮跌傷, 驚氣與敗血交攻, 亦有木強脹痛之證, 治法更爲之消瘀.

목신의 증상은 음경이 크게 부어 오르면서 아프고 심하게 저리며 단단해지는 것이다. 치료법은 따뜻하게 흘거나 따뜻하게 통하게 하여 안으로 삭이는 것이다. 또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놀란 기운과 패혈(敗血)이 서로 부딪쳐 음경이 단단하게 부어 오르면서 아프다. 치료법은 어혈을 없애는 것이다.

奔豚疝氣 분둔산기

臍下有動氣, 名曰腎氣, 亦曰奔豚, 奔豚, 腎之積名也, 五積中惟臍下奔豚衝心最急, 其人素有腎積, 因傷寒之邪, 衝突下焦, 致其發動, 如江豚之奔衝也, 大抵真氣內虛, 水結不散, 氣與之搏, 卽發奔豚, 雖有發表攻裏之證, 汗之下之, 皆不可也.

배꼽 아래에 동기가 있는 것을 신기(腎氣)나 분돈이라 한다. 분돈은 신적(腎積)의 이름이다. 오적(五積) 중에 배꼽 아래의 분돈으로 심장을 치받는 것이 제일 급증이다. 평소 신적이 있던 사람에게 상한의 사기가 하초에 충돌하면 움직이게 되는데, 돌고래가 치받는 것과 같다. 대개 진기가 속에서 허하여 수가 멎쳐 흩어지지 않을 때 사기가 그것과 맞부딪치면 분돈이 된다. 비록 발산하거나 설사시켜야 할 증상이 있어도 한법이나 하법을 쓸 수 없다.

陰縱陰縮 음종·음축

陰縱, 謂前陰受熱, 挺長不收也. 陰縮, 謂前陰受寒, 入腹內也. 經曰, 足厥陰之筋, 傷於內則不起, 傷於寒則陰縮入, 傷於熱則縱挺不收, 是也.

음종이란 전음이 열을 받아 늘어져서 수축되지 않는 것이다. 음축이란 전음이 한을 받아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經)에, "족궐음근이 성생활로 상하면 음경이 서지 않는다. 한으로 인한 것이면 음낭이 수축되어 들어가고, 열에 상한 것이면 음경이 늘어져 줄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陰痿 음위

陰痿, 皆耗散過度, 傷于肝筋所致, 經云, 足厥陰之經, 其病傷于內則不起是也.

음위는 모두 음정을 지나치게 써서 간경의 근을 상한 것이다. 경(經)에, "죽궤 음경의 병 가운데 성생활로 상했을 때에는 음경이 서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陰囊濕痒 음낭이 습하고 가려운 것

陰囊濕痒, 謂之腎藏風, 人之精血不足, 內爲嗜慾所耗, 外爲風冷所乘, 風濕毒氣, 從虛而入, 囊下濕痒, 或生瘡皮脫. 下注則兩脚生瘡癬, 或耳鳴眼昏.

음낭이 습하고 가려운 것을 신장풍이라고 한다. 사람의 정혈(精血)이 부족한 데, 안으로는 성생활로 소모되고, 밖으로는 풍랭이 침입하여 풍습의 독기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오면 음낭 밑이 습하고 가렵거나, 창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며, 아래로 흘러 내려가면 양 다리에 창이나 버짐이 생기거나, 귀가 울거나 눈이 흐리다.

陰挺陰脫 음정·음탈

瘻疝, 在婦人則爲陰戶突出, 名曰陰瘻.

부인에게 퇴산이 있어 음문이 튀어나오는 것을 음퇴라고 한다.

○陰中生一物, 漸大, 牽引腰腹膨痛, 此因多服熱藥, 或犯非理房事, 兼意淫不遂, 名曰陰挺.

○음부에서 무언가가 생겨나 점점 커져 허리가 당기고 배가 팽팽하면서 아픈 것은 뜨거운 약을 많이 먹었거나, 지나치게 성생활을 하였거나, 뜻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음정이라고 한다.

陰腫、陰痒、陰瘡、陰冷、交接出血 음종、음양、음창、음랭、교접출혈

婦人陰戶生瘡，乃七情鬱火損傷肝脾，濕熱下注也.

부인의 음문에 창이 생긴 것은 칠정의 울화로 간비(肝脾)가 손상되어 습열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交接出血而作痛，乃房室有傷，由肝火動而脾，不能攝血.

○성교를 할 때 피가 나오면서 아픈 것은 성생활로 상한 것이니 간화로 비가 흔들려 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 爪 𢶏 蛙 ※《동의보감》←

2. 令 𢶏 生 ※《동의보감》←

3. 復 : 腹 ※《동의보감》←

† 後陰 후음

肛門別名 항문의 별명

肛門者, 大腸之下載也, 一曰廣腸, 言其廣濶於大小腸也, 曰魄門, 言大腸爲肺之府, 肺藏魄, 故曰魄門也, 肛者, 言其處似車釐形也.

항문이란 대장이 끝나는 곳이다. 간혹 광장(廣腸)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소장 보다 넓기 때문이다. 또, 백문(魄門)이라고도 한다. 대장은 폐의 부(府)이고, 폐는 백(魄)을 간직하므로 백문이라고 한 것이다. 항(肛)이라고 한 것은 그곳이 수레의 바퀴통쇠(釐)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痔病之因 치질의 원인

內經曰,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澼爲痔, 又曰, 飲食不節, 起居不時者, 陰受之, 陰受之則入五藏, 入五藏則臍滿閉塞, 下爲飧¹泄, 久爲腸澼.

《내경》에, "포식하면 근맥이 제멋대로 풀어져 장벽(腸澼)이 생겨 치질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생활에 절도가 없으면 음(陰)으로 병이 온다. 음으로 병이 들어오면 오장으로 들어가고, 오장으로 들어가면 배가 불러올라 막히고 밑으로는 소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온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벽(腸澼)이 된다"고 하였다.

○蓋飽食則脾不能運, 食積停聚大腸, 脾土一虛, 肺金失養, 則肝木寡畏, 風邪乘虛下流, 輕則腸風下血, 重則變爲痔漏, 或醉飽入房, 精氣脫泄, 熱毒乘虛下注, 或淫極入房, 致傷膀胱與腎肝筋脈, 蓋膀胱筋脈抵腰絡腎, 貫臀走肝, 環前後二陰, 故痔乃筋脈病也.

○너무 많이 먹으면 비가 제대로 돌리지 못하여 식적이 대장에 모여서 고인다. 비토가 허하여 폐금을 기르지 못하면 간목이 두려움이 적어지고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밑으로 내려간다. 가벼울 때는 장풍으로 하혈하고, 중하면 변하여 치루(痔漏)가 된다. 취하거나 과식한 뒤에 성생활을 하여 정기가 빠져 나가면 열독이 허한 틈을 타서 아래로 흘러든다. 혹 음란한 마음으로 성생활이 지나치면 방광·신·간의 근맥을 상한다. 방광의 근맥은 허리에 이르고 신에 이어지며, 둔부를 뚫고 간으로 달려가 전음과 후음을 두른다. 그러므로 치(痔)는 근맥의 병이다.

痔者峙也 치는 솟았다는 뜻이다

內經曰, 腸澼爲痔, 如大澤中有小山突出爲峙, 人於九竅中, 凡有小肉突出, 皆曰痔, 不特於肛門邊者, 有鼻痔、眼痔、牙痔等類, 其狀不一.

《내경》에서, '장벽이 생겨 치질이 된다'고 하였다. 큰 연못에 작은 산이 솟아 나온 것을 치(峙)라고 하듯이 사람의 구규(九竅) 속에 살이 약간 튀어나온 것을 모두 치(痔)라고 한다. 이것은 단지 항문 주위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치(鼻痔)·안치(眼痔)·아치(牙痔)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 모양은 여러 가지이다.

脈法 맥법

凡痔脈沈小實者易治, 浮洪而軟弱者難愈.

치질에 맥이 침(沈)·소(小)·실(實)하면 치료하기 쉬우나, 부홍(浮洪)하면서 연약(軟弱)하면 낫지 않는다.

諸痔名目 여러 가지 치질의 이름

方書有五種, 一曰牡痔, 二曰牝痔, 三曰脈痔, 四曰腸痔, 五曰氣痔, 又有酒痔、血痔、瘻痔.

방서(方書)에 5가지의 치질이 나온다. 첫째는 모치(牡痔)이고, 둘째는 빈치(牝痔)이고, 셋째는 맥치(脈痔)이고, 넷째는 장치(腸痔)이고, 다섯째는 기치(氣痔)이다. 또 주치(酒痔)、혈치(血痔)、누치(瘻痔)가 있다.

○凡痔毒甚者, 大如鷄冠、蓮花、核桃. 毒淺者, 小如松子、牛乳、鷄心、鼠乳、櫻桃, 種種不同, 皆三陰虛也.

○치독이 심하면 닭 벼슬이나 연꽃이나 호두만 하고, 치독이 가벼우면 잣이나, 소의 젖꼭지나, 닭의 심장이나, 쥐의 젖꼭지나, 앵두만 하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삼음이 허하여 생기는 것이다.

○凡痔因酒、色、風、氣、食, 五事過度而變成.

치질은 주(酒)·색(色)·풍(風)·기(氣)·음식[食]의 오사(五事)가 지나쳐서 증상으로 변한다.

腸風臟毒 장풍·장독

卽血痔也.

장풍(腸風)·장독(臟毒)은 곧 혈치이다.

○如下清血色鮮者, 腸風也, 血濁而色黯者, 藏毒也.

○맑은 선혈이 나오는 것이 장풍이고, 탁하고 어두운 색의 피가 나오는 것이 장독이다

○腸風者, 邪氣外入, 隨感隨見, 所以其色清也, 藏毒者, 蘊積熱毒, 久而始見, 所以其色濁也, 治腸風以散風行濕, 治藏毒以清熱涼血.

○장풍은 사기가 밖에서 들어오면 바로 생기는 것이므로 피의 색이 맑다. 장독은 열독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비로소 나오는 것이므로 피의 색이 탁하다. 장풍을 치료할 때는 풍을 흘리고 습을 돌려야 하고, 장독을 치료할 때는 열을 내리고 혈을 식혀야 한다.

痔漏 치루

卽瘻痔也.

치루는 누치(瘻痔)이다.

○瘻痔亦謂之蟲痔, 歲月積久, 蟲蝕其間, 痒痛不堪, 或肛門間射血如線, 乃蟲痔也, 蟲痔宜熏, 千金用獐皮艾者佳.

○누치(癰痔)는 충치(蟲痔)라고도 한다. 치질이 오래되어 벌레가 항문 사이를 파먹어 가렵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거나 항문 사이에서 한 줄기 피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충치이다. 충치는 훈증해야 한다. 《천금방》에서 고슴도치 가죽과 쑥을 쓴 것이 좋은 예이다.

脫肛 탈항

卽腸痔也.

탈항은 장치(腸痔)이다.

○脫肛者, 肛門翻出也, 肺與大腸爲表裏, 腎主大便, 肺腎虛者, 多有此證.

○탈항은 항문이 뒤집혀 나오는 것이다. 폐와 대장은 표리가 되고 신(腎)은 대변을 주관하니 폐신(肺腎)이 허한 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다. 삼기탕으로 들어 올려 준다.

肛門痒痛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것

蟲痔多痒.

충치(蟲痔)가 있으면 대부분 가렵다.

○肛頭作大痛者, 火也, 又大便秘澁, 亦作大痛, 凡人醉飽行房, 忍泄前陰之氣, 歸於大腸, 木乘火熱而侮燥金, 故火就燥也, 大便必閉, 其疾甚者, 當以苦寒瀉火, 以辛溫和血潤燥, 疎風止痛, 是其治也.

○항문 끝이 몹시 아픈 것은 화로 인한 것이다. 또 변비가 있을 때도 몹시 아프다.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배부른 채로 성생활을 하거나 정액이 나오는 것을 참으면 전음의 기가 대장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목이 화열을 올라타 조금(燥金)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화가 조(燥)로 되어 대변이 반드시 막히게 된다. 병이 심하면 쓰고 찬 약으로 화를 사하고, 맵고 따뜻한 약으로 혈을 조화롭게 하고 마른 것을 적시며 풍을 내보내고 통증을 없애야 한다.

1. 飧 飧 ※동의보감 ↩

해제

개요

정조는 11년간 선대왕(영조)의 건강을 돌보며 의학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의사들이 단순히 처방과 약명을 외우는 것에 치중하여 병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의학을 국가 운영에 비유하며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제기하며 의학의 실제적인 적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증론과 맥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편찬시기는 영조 사후 정조가 즉위한 후, 1776년 이후로 추정된다.

구성 및 특징

원래 4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신(身), 형(形), 정(精), 기(氣)에서부터 부인과, 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증론과 맥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탕액에 관한 처방을 추가로 초록하여 5권의 별책을 만들어 총 9권이었다. 이후 유실되었고 4권의 《수민묘전》만 남았다. 내용은 병증에 대한 의론과 증상 위주로 발췌하였고, 《동의보감》에 조문마다 실려 있는 처방은 모두 생략하였다. 이는 정조가 서문에서 말한 "방제를 가르치는 의사들이 맥진, 병증, 탕약과 약제를 모두 한 책에서 섞어서 다뤄 의도와 치료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급한 해결만 추구하는 폐단을 벗어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관계

《정조실록》에는 《제중신편》에 대한 설명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 《동의보감》, 《수민요전》, 《제중신편》의 인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의보감》의 여러 판본 중에서는 기해영영개간본(1779)과 교감자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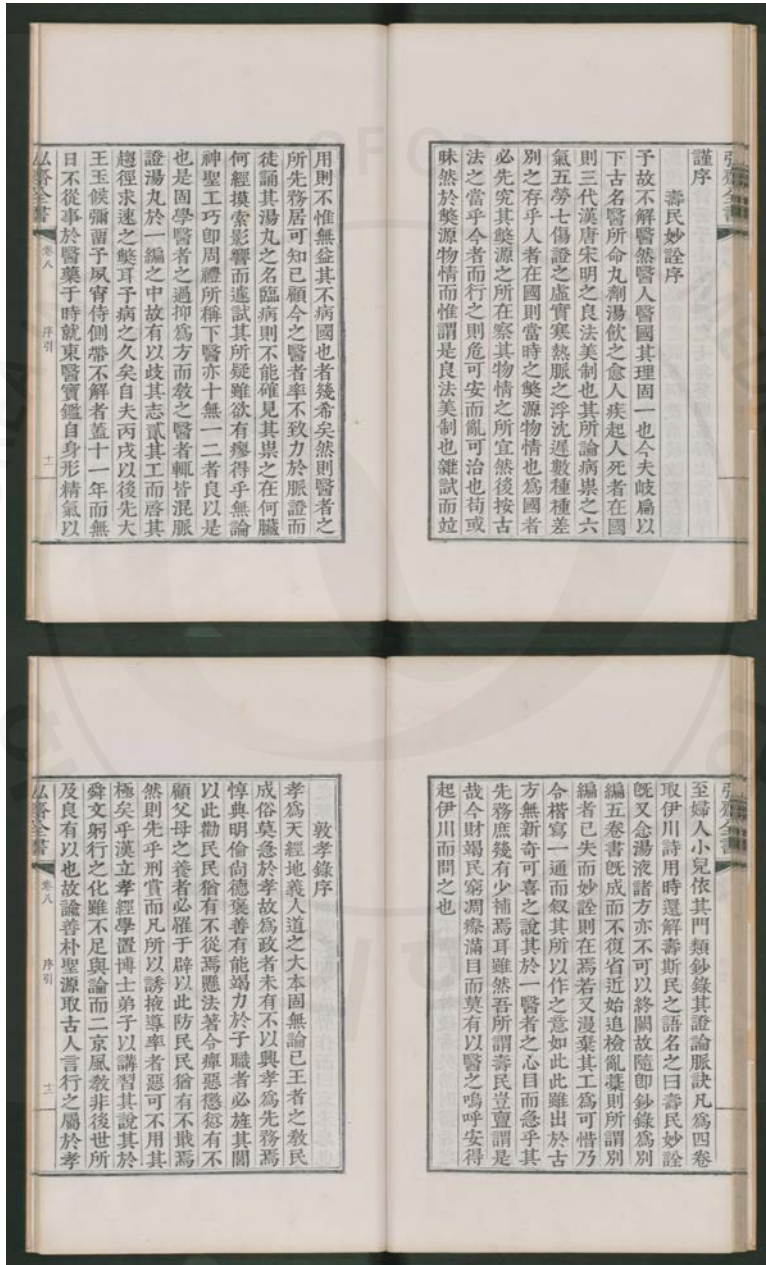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충하고 교정을 가하여 《수민요전》 9권을 만들어 낸 다음 다시 내의원에 명하여 여러 처방들을 채집하게 해서 요점만 취한 뒤 경험방을 그 사이에 첨부, 세상에 유행시킬 수 있는 책 1부를 따로 편집하게 하였다. 본문이 8권이고 목록이 1권이며, 風, 寒, 暑, 濕으로부터 <약성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70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목마다 먼저 진맥에 대한 비결과 증세를 서술한 다음 합당한 처방과 약제를 붙여 책 이름을 《제중신편》이라 하고 鑄字所에 넘겨 간행·반포토록 했다."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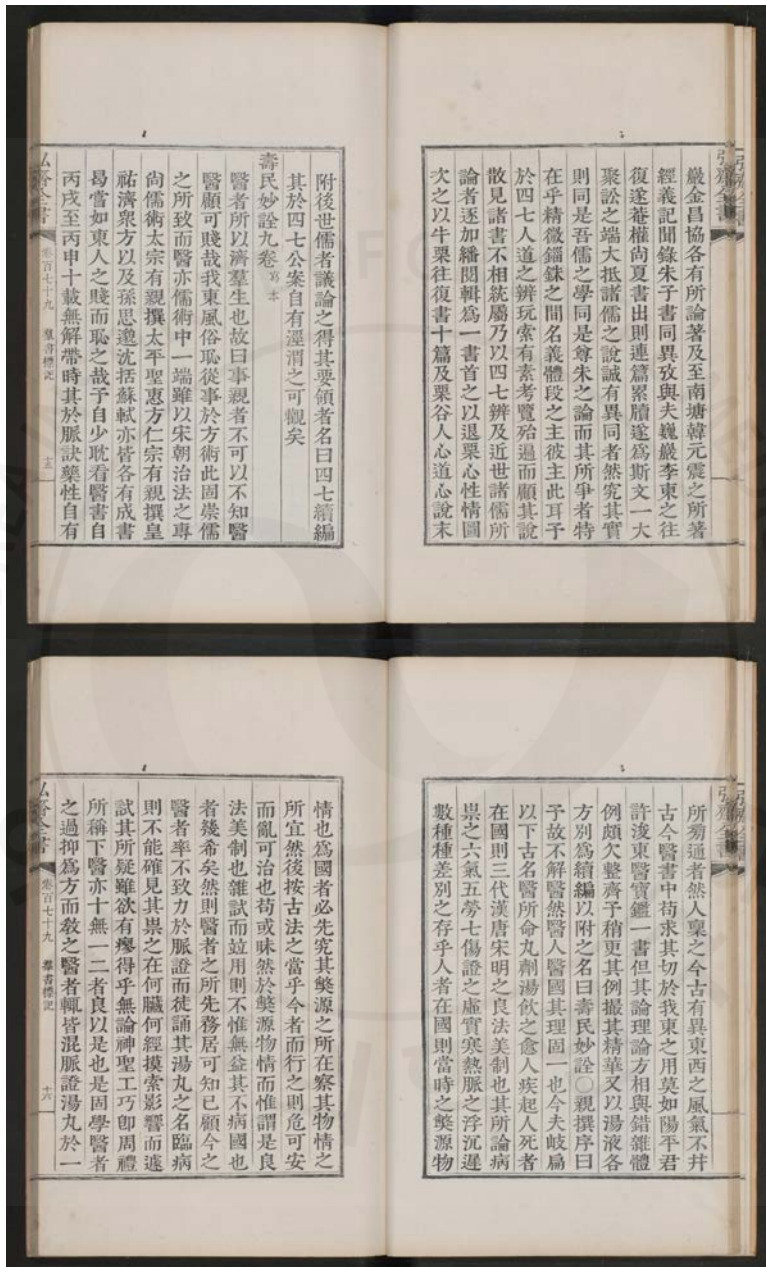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수록된 《수민요전》 친찬서에서는 유학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구제하는 의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학을 국가 운영에 비유하여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으며, 단순히 처방과 약명을 외우는 것에 치중하는 기존 의학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천(伊川)의 시어에서 인용한 '수민요전(壽民妙詮)'이라는 제목은 "때에 맞게 사용하여 백성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로서, 단순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조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홍재전서弘齋全書》서문 이미지

※《홍재전서弘齋全書》8권 〈壽民妙詮序〉



※《홍재전서弘齋全書》9권 〈壽民妙詮九卷 寫本〉



嚴金昌協各有所論著及至南塘韓元震之所著
經義記聞錄朱子書同異攷與夫巖巖李東之往
復達菴權尚夏書出則連篇累牘達爲斯文一大
聚訟之端大抵諸儒之說誠有異同者然究其實
則同是吾儒之學同是尊朱之論而其所爭者特
在乎精微鏘鏘之間名義體段之主彼主此耳予
於四七人道之辨玩索有素考覽殆遍而顧其說
散見諸書不相統屬乃以四七辨及近世諸儒所
論者逐加緝問輯爲一書首之以退栗心性情圖
次之以牛栗往復書十篇及栗谷人心道心說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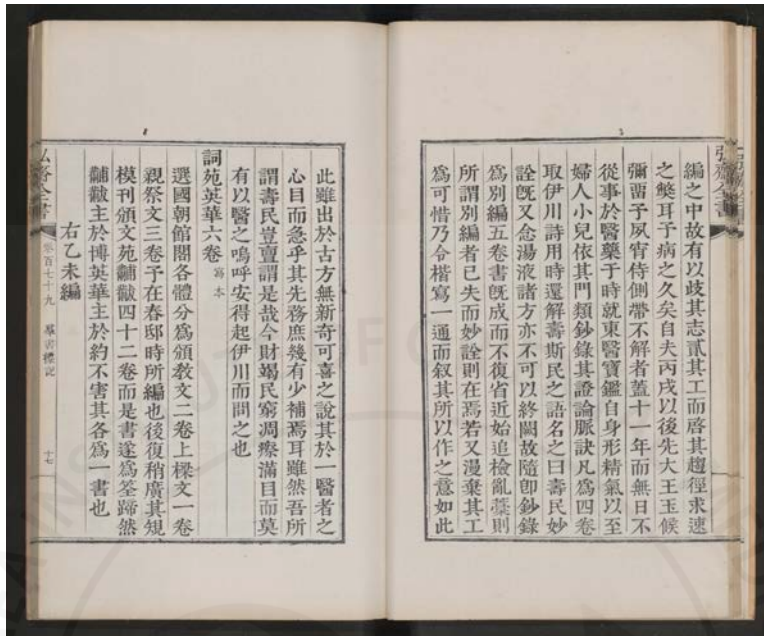
附後世儒者議論之得其要領者名曰四七續編
其於四七公案自有涇渭之可觀矣

壽民妙詮九卷 寫本

醫者所以濟羣生也故曰事親者不可以不知醫
醫顧可賤哉我東風俗恥從事於方術此固崇儒
之所致而醫亦儒術中一端雖以宋朝治法之專
尙儒術太宗有親撰太平聖惠方仁宗有親撰皇
祐濟衆方以及孫思邈沈括蘇軾亦皆各有成書
曷嘗如東人之賤而恥之哉予自少耽看醫書自
丙戌至丙申十載無解帶時其於脈訣藥性自有

所翊通者然人粟之今古有異東西之風氣不并
古今醫書中苟求其切於我東之用莫如陽平君
許浚東醫寶鑑一書但其論理論方相與錯雜體
例頗欠整齊予稍更其例撮其精華又以湯液各
方別爲續編以附之名曰壽民妙詮○親撰序曰
予故不解醫然醫人醫國其理固一也今夫岐扁
以下古名醫所命丸劑湯飲之愈人疾起人死者
在國則三代漢唐宋明之良法美制也其所論病
祟之六氣五勞七傷證之虛實寒熱脈之浮沉遲
數種種差別之存乎人者在國則當時之藥源物

情也爲國者必先究其藥源之所在察其物情之
所宜然後按古法之當乎今者而行之則危可安
而亂可治也苟或昧然於藥源物情而惟謂是良
法美制也雜試而竝用則不惟無益其不病國也
者幾希矣然則醫者之所先務居可知已顧今之
醫者率不致力於脈證而徒誦其湯丸之名臨病
則不能確見其祟之在何臟何經摸索影響而遽
試其所疑雖欲有瘳得乎無論神聖工巧即周禮
所稱下醫亦十無一二者良以是也固學醫者
之過抑爲方而教之醫者輒皆混脈證湯丸於一



※ 참고자료

정조. 《壽民妙詮》(청구기호.奎4809). 규장각

정조. 《弘齋全書》(청구기호.奎4465-v.1-38). 규장각

규장각. 《濟衆新編》 해제(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2077_00¬es=lang)

내손안에동의보감app. 《동의보감》(<https://app.medicclassics.kr/>)

일러두기

- 이 번역서는 《수민묘전(壽民妙詮)》의 卷2 중에서 [외형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 저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壽民妙詮》(청구기호.奎4809)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는 필사본으로 된 2책의 영본이다.
- 규장각본에는 서문이 없으니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8권에 〈壽民妙詮序〉와 9권에 〈壽民妙詮九卷 寫本〉이 실려있어 내용을 위해 〈壽民妙詮九卷 寫本〉을 가져와 번역서 앞에 실었다. 〈壽民妙詮九卷 寫本〉에는 간략 서문과 정조의 찬집서(親撰序)가 실려있으며, 내용에는 8권의 〈壽民妙詮序〉가 포함되어 있다.
- 대교본으로 한의학교전DB의 《동의보감》을 참조하였다.

표기법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歛=斂, 莖=莖, 裹=裹, 郤=卻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적의 작은 글씨
 - 【】: 음각
 - {} : 양각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수민묘전 하【외형편】 壽民妙詮 下【外形篇】

원저자 : 정조(正祖)

국 역 : 구현희

해 제 : 구현희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4년 12월 1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며,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1923111)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978-89-5970-566-5 (PDF)